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Climate Adaptation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the Future Generation

한국환경연구원 정다운 외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42-01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 계획 수립	한국환경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원	연구 보조원
저 자		정다운, 서양원, 엄정윤, 홍제우, 오규림, 강란희 문무경, 이재희, 박창현, 김희수		
주관 연구 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정다운 연구위원 (총괄 책임자)	서양원 연구위원 엄정윤 부연구위원 홍제우 부연구위원	오규림 연구원 강란희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박창현 연구위원 이재희 연구위원	김희수 연구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이 창 훈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규정하였다. 어린이는 생물학적 요인 및 행동학적 차이로 인하여 기후위기의 피해에 더 취약한 민감집단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취약 집단인 어린이 중 특히 공교육 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그리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우선 국가의 계획은 대부분 어린이를 야외 노동자, 노인 등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전반적인 국가 정책의 방향에서 어린이(영유아)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어린이 관련 기후위기 교육 대책은 대부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취학연령 미만의 어린이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시도 단위의 대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보다 이미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등의 정책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우선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에게 특화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 단위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 및 이행계획에서 영유아를 고려한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어린이를 정책의 우선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성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전략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의 취약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기후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기후 리터러시 향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기후시민의 양성은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전략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우선 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지역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 과제로 기후 정책의 계획과 법에 영유아 부문

지원 명시, 국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영유아 교사 교육 역량 강화,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된 기후 교육 제공,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후 교육의 제도적 편입, 영유아 시설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기관 실무자,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기후 환경 정책 및 환경교육 담당자, 유관학회 대표, 그리고 지역 환경 교육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워크숍과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여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마련을 위한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이 연구는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시민'이다.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는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로 선정하였다. 로드맵의 3대 전략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기후시민 교육 강화, 그리고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이며, 각 전략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선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비전

vision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시민]

목표

goal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전략

strategy



키워드 : 기후위기 적응정책, 영유아, 주류화, 기후 리터러시, 기후탄력성

Abstract

“Climate crisis is a child’s right crisis!” Children are more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the climate crisis due to b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refore, children’s nature and needs have to be fully recognized and evaluated in the national climate adaptation strateg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young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climate crisis, and are in the blind spot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We set a goal and directions for the climate adaptation policies centered on young children, and laid out a roadmap to achieve the goal.

First, we analyzed the National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Regional Adaptation Measures for Climate Crisis, and National Framework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Our analyses indicate that first, the national measures did not consider children (and young children) as an independent priority group, but part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that includes outdoor workers and the elderly. This categorization likely results in the exclusion of children (and young children) from consideration as a priority. Examination of the climate education plan revealed that most of the measures are centered around the school system, and excludes young children who are below school age. Regional adaptation measures at the city and provincial level lacked diversity in planning. Most measures included projects that are already in place, such as ‘Green Remodeling’ or ‘Atopy- and Asthma-Safe School’. Few reflected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The results of our analyses indicate that a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adaptation measures that address young children must be established, and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projects and measures must be continued to establish climate actions centered on children.

Next, we reviewed the latest climate adaptation policies overseas. We did not identify specific strategies or implementation plans that consider young children. However, recent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CEF and ARNEC have started to provide directions and methodologies for prioritizing young children in the climate adaptation strategies. Many countries have adapted this approach to prioritize young children’s vulnerability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strategies. In addition many countries are developing education contents to enhance children’s and young children’s climate literacy, and are incorporating climate literacy into their curricula. Such international trend has implications for Korea. Fostering climate citizenship through climate literacy education during early childhood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early childhood climate adaptation policies.

Lastly, we gathered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by surveying parents and teachers of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Childcare Support Center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Promotion Centers, which are local support organizations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following policy issues were identified as priorities for consideration: specifying support for the early childhood sector in climate policy plans and laws; ensuring consistency in national policies; strengthening the training capacity of teachers; providing climate education that correlates to the existing curricula; developing climate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and institutionalizing climate education. Other recommendations include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early childhood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the infrastructure.

Our next step in gathering opinions was to organize an expert workshop and a policy seminar. We invi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practitioners, local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organizations, climate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officials from centra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representatives of relevant academic institutions and local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s to identify key improvement issues. At the meetings we presented a draft climate adaptation roadmap for young children. We received feedback, gathered expert opinions, and discussed the directions for a climate adaptation roadmap centered on young children.

As a result of the study, we propose the Young Children Climate Adaptation Roadmap. We set the vision as "Climate Citizens who actively respond to Climate Crisis." The goal to achieve the vision is "strengthening climate adaptation capacity of young children". The three strategies of the roadmap are mainstreaming young children in all climate policies, enhancing climate citizen education, and increasing climate resilience of young children's activity zones. We also present detailed action plans for the strategies, as well as the short-, mid-, and long-term tasks.

Keyword : Climate Adaptation Strategy, Young Children, Mainstreaming, Climate Literacy, Climate Resilience

정책 제안

이 연구는 기후위기 취약 집단인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수립함

-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비전: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시민
-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목표: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로드맵의 3대 전략은 아래와 같음

1)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 영유아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영유아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된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영유아 주류화를 실현

○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 영유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연구 사업 수행
-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 영유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고려 정도 분석
- 의사결정 과정의 영유아 대표자 참여 제도화
-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영유아 적응전략 포함
-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후시민 교육 강화

- 기후시민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영유아 기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강화

○ 기후 리터러시 교육체계 확립

- 현행 제도와 연계된 영유아 기후 교육 방안 마련
- 기후 리터러시 교육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국가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제도화 및 시행

○ 영유아 기후 교육 기반 강화

- 지역 영유아 기후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 영유아 기후 교육 거점 마련
-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 영유아 중심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
- 환경교육 플랫폼-지역 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
-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사 교육 역량 강화 계획 수립
- 체계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 마련
- 영유아 교사 기후 교육 제도화 전략 마련

3)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연계하여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에 대비, 회복, 적응하는 역량을 높임

○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 구축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시설 지표 마련
- 영유아 활동공간 기후탄력성 제고 방안 마련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업 시행
- 지역 기후친화적 영유아 체험공간 구축 계획 수립

○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운영 체계 구축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지침 마련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지표 및 평가 방안 마련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체계 제도화

연구의 의의

- 이 연구는 영유아 분야에서 최초로 진행된 기후 정책 연구로 ‘모든 정책에 어린이 주류화 (Children in All Policies)’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띠
- 미래세대인 영유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연구의 결과물이 활용되기를 기대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3
나. 기후위기와 어린이	6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0
1. 연구 방법	10
가. 문헌 연구	10
나. 설문 조사	10
다. 심층 인터뷰(FGI)	14
라. 전문가 워크숍	15
마. 정책 세미나	16
바. 연구 추진 체계	16

제2장 국내외 어린이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 현황 및 동향

제1절 국가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21
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1
가. 개요	21
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2
다. 시사점	24
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4
3. 광역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27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어린이 대상 정책 현황	27
나. 도·특별자치도 어린이 대상 정책 현황	29
4. 기초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31
5.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32
6. 시사점	33
7. 소결	34

제2절 해외의 어린이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 동향	36
1. 국제기관의 적응 사업	36
가. UNICEF	36
나. ARNEC	41
2. EU의 어린이 기후변화 적응정책	43
가. 유럽 기후위기 적응전략	43
나. 유럽 기후 회복력 전략	43
다. 영국의 어린이 기후위기 교육정책	43
3. 미국의 어린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	44
가. 개괄	44
나. 교육부	44
다. EPA 기후 적응 이행계획	45
4. 시사점	46

제3장 기후위기 적응 관련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제1절 부모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49
1. 기후변화 인식	49
2. 기후변화 경험 및 양육 환경	57
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경험	57
나. 거주 주택 안전	59
다. 자녀 건강 상태	60
3. 기후변화 감수성, 실천 역량 및 지식	63
가. 기후변화 감수성	63
나.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72
다.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81
4.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93
가.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의견	93
나. 기후변화 교육 경험	96
다. 기후변화 정책 관련 의견	103
5. 소결	111
제2절 교사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113
1. 기후변화 인식	113

2. 기후변화 감수성, 실천 역량 및 지식	121
가. 기후변화 감수성	121
나.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123
3.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경험	124
4. 유치원·어린이집의 기후변화 교육 실태	133
가. 유치원·어린이집 기후변화 교육 경험	133
나.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 필요성	136
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	141
5. 교육과정과의 연계	142
6. 기후변화 교육 관련 지원 및 정책 요구	149
가. 기후변화 교육 지원 요구	149
나. 기후변화 정책 관련 의견	156
7.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164
제3절 지자체 실무자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168
1. 육아종합지원센터	168
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	168
나. 기후변화 관련 성공적 활동과 어려움	171
다. 지원 요구	172
2. 유아교육진흥원	173
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	173
나. 기후변화 관련 성공적 활동과 어려움	177
다. 지원 요구	178
제4절 전문가 워크숍 및 정책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180
1. 전문가 의견 수렴	180
가. 개요	180
나. 전문가 워크숍	180
다. 정책 세미나	181
라. 소결	181

제4장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제1절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기본 방향	185
1. 주요 개선과제 도출	185

가. 국가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정책	185
나.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범위	186
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교육	187
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190
제2절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추진전략	193
1.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개요	193
2. 추진전략	194
가.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194
나. 기후시민 교육 강화	195
다.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196
제3절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전략별 이행계획	198
1.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전략별 이행계획 개요	198
2.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200
가. 현황 및 과제	200
나.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200
다. 영유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201
3. 기후시민 교육 강화	202
가. 현황 및 과제	202
나. 기후 리더러시 교육 체계 확립	203
다. 영유아 기후 교육 기반 강화	204
4.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208
가. 현황 및 과제	208
나.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 구축	208
다.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운영 체계 구축	209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15
2. 로드맵 이행을 위한 협력 체계	216
3. 결론	218
■ 참고문헌	219
■ 부록	222

표 차례

〈표 Ⅰ-2-1〉 부모 설문 조사 개요	10
〈표 Ⅰ-2-2〉 부모 설문 조사 대상 표집 분포	11
〈표 Ⅰ-2-3〉 부모 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11
〈표 Ⅰ-2-4〉 부모 설문 조사 내용	12
〈표 Ⅰ-2-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설문 조사 개요	13
〈표 Ⅰ-2-6〉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설문 조사 대상 표집 분포	13
〈표 Ⅰ-2-7〉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14
〈표 Ⅰ-2-8〉 심층 인터뷰 개요	15
〈표 Ⅰ-2-9〉 워크숍 참석자	15
〈표 Ⅱ-1-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요 내용	21
〈표 Ⅱ-1-2〉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어린이 관련 세부시행계획	23
〈표 Ⅱ-1-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어린이 관련 신규 및 강화 내용	26
〈표 Ⅱ-1-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어린이 관련 세부시행계획	28
〈표 Ⅱ-1-5〉 도·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어린이 관련 세부시행계획	30
〈표 Ⅱ-1-6〉 기초지자체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적응대책	31
〈표 Ⅱ-2-1〉 어린이,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	37
〈표 Ⅲ-1-1〉 기후변화 문제 관심도	49
〈표 Ⅲ-1-2〉 기후변화 원인 인지	50
〈표 Ⅲ-1-3〉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 인식	51
〈표 Ⅲ-1-4〉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대	52
〈표 Ⅲ-1-5〉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	52
〈표 Ⅲ-1-6〉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도	53
〈표 Ⅲ-1-7〉 기후변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54
〈표 Ⅲ-1-8〉 기후변화로 인한 자녀 세대 피해 정도	55
〈표 Ⅲ-1-9〉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 영역	56
〈표 Ⅲ-1-10〉 최근 3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유무	57
〈표 Ⅲ-1-11〉 피해 유형별 피해 정도	59
〈표 Ⅲ-1-12〉 거주 주택의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 인식	59
〈표 Ⅲ-1-13〉 거주 주택의 상태	60
〈표 Ⅲ-1-14〉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61

〈표 III-1-15〉 기후변화가 자녀 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인식	62
〈표 III-1-16〉 기후변화로 인해 나빠진 자녀 증상	62
〈표 III-1-17〉 기후변화 감수성(종합 표)	64
〈표 III-1-18〉 기후변화 감수성-1.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65
〈표 III-1-19〉 기후변화 감수성-2.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를 알고 있다	66
〈표 III-1-20〉 기후변화 감수성-3.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7
〈표 III-1-21〉 기후변화 감수성-4.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67
〈표 III-1-22〉 기후변화 감수성-5.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럽다	68
〈표 III-1-23〉 기후변화 감수성-6.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69
〈표 III-1-24〉 기후변화 감수성-7.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70
〈표 III-1-25〉 기후변화 감수성-8.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71
〈표 III-1-26〉 기후변화 감수성-9.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72
〈표 III-1-27〉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종합)	73
〈표 III-1-28〉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1.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 온도 (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74
〈표 III-1-29〉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2. 방에서 나갈 때 전기 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	74
〈표 III-1-30〉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3. 물건을 살 때 친환경 마크(저탄소 제품, 친환경 인증 등)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다	75
〈표 III-1-31〉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4. 과대 포장인 제품은 사지 않는다	76
〈표 III-1-32〉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5.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78
〈표 III-1-33〉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6.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텀블러나 장바구니 등)을 가지고 다닌다	79
〈표 III-1-34〉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7.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79
〈표 III-1-35〉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8. 산이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80
〈표 III-1-36〉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	82
〈표 III-1-37〉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역량-1. 나는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82
〈표 III-1-38〉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역량-2. 나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와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	83

CONTENTS

〈표 III-1-39〉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역량-3. 나는 평소 자녀에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	84
〈표 III-1-40〉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역량-4.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85
〈표 III-1-41〉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역량-5. 자녀는 기후변화(환경 파괴 등)에 대해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다	86
〈표 III-1-42〉 기후변화 대응 활동(종합)	87
〈표 III-1-43〉 기후변화 대응 활동-1. 기후변화 관련 체험 학습	88
〈표 III-1-44〉 기후변화 대응 활동-2. 기후변화 관련 봉사 활동	89
〈표 III-1-45〉 기후변화 대응 활동-3. 기후변화 관련 가족 간 의사소통	90
〈표 III-1-46〉 기후변화 대응 활동-4.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유튜브, SNS 등)	91
〈표 III-1-47〉 기후변화 대응 활동-5. 기후변화 관련 독서	92
〈표 III-1-48〉 국가의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 필요성	93
〈표 III-1-49〉 기후변화 교육 형태(복수 응답)	94
〈표 III-1-50〉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기후변화, 환경보호 관련 교육 경험	96
〈표 III-1-51〉 프로그램 유형(복수 응답)	97
〈표 III-1-52〉 교육 내용 만족도	98
〈표 III-1-53〉 프로그램 불만족 이유	99
〈표 III-1-54〉 유치원·어린이집으로부터 기후변화·환경보호 관련 자료, 안내문을 제공받은 경험	100
〈표 III-1-55〉 함께 활동한 경험	101
〈표 III-1-56〉 기후변화(또는 자연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유무	102
〈표 III-1-57〉 기후변화(또는 환경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102
〈표 III-1-58〉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	103
〈표 III-1-59〉 적응-응답한 이유	105
〈표 III-1-60〉 완화-응답한 이유	106
〈표 III-1-61〉 아동 대상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107
〈표 III-1-62〉 아동 대상 적절한 적응정책(복수 응답)	107
〈표 III-1-63〉 각 주체의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 평가(종합)	109
〈표 III-1-64〉 영유아기 기후 환경 교육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	109
〈표 III-1-65〉 중앙부처 중 영유아기 기후 환경 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	110
〈표 III-2-1〉 기후변화 문제 관심도	113
〈표 III-2-2〉 기후변화 원인 인지(종합)	114
〈표 III-2-3〉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 인식(종합)	115
〈표 III-2-4〉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 심각 정도(종합)	116

〈표 III-2-5〉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도(종합)	117
〈표 III-2-6〉 기후변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종합)	118
〈표 III-2-7〉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 피해 정도(종합)	119
〈표 III-2-8〉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 영역(종합)	119
〈표 III-2-9〉 노력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대(종합)	120
〈표 III-2-10〉 기후변화 감수성(종합)	122
〈표 III-2-11〉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종합)	123
〈표 III-2-12〉 기후변화 교육 관심 정도(종합)	124
〈표 III-2-13〉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경험(종합)	125
〈표 III-2-14〉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기관(유치원 교사만 응답)	126
〈표 III-2-15〉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교육 관련 보수교육 기관(어린이집 교사만 응답)	127
〈표 III-2-16〉 기후변화 연수 방식(복수 선택)(종합)	128
〈표 III-2-17〉 기후변화 연수 유형(복수 선택)(종합)	128
〈표 III-2-18〉 기후변화 연수 횟수(종합)	129
〈표 III-2-19〉 기후변화 연수 시간(종합)	130
〈표 III-2-20〉 기후변화 연수 주제·내용(복수 선택)(종합)	131
〈표 III-2-21〉 기후변화 교육 관련 주제를 스스로 알아본 경험(종합)	131
〈표 III-2-22〉 기후변화 교육 관련 주제 채널 경로(종합)	132
〈표 III-2-23〉 기후변화 교육 실시 경험(종합)	134
〈표 III-2-24〉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시 교육 내용(종합)	134
〈표 III-2-25〉 기후변화 교육 실시 방법(종합)	135
〈표 III-2-26〉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 필요성(종합)	137
〈표 III-2-27〉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종합)	138
〈표 III-2-28〉 기후변화 교육 형태(1순위, 2순위)(종합)	139
〈표 III-2-29〉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종합)	140
〈표 III-2-30〉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종합)	141
〈표 III-2-31〉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 교육 가능성(종합)	142
〈표 III-2-32〉 기후변화 교육과 연계성 높은 개정 누리과정 영역(종합)	143
〈표 III-2-33〉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적절한 방향(1, 2, 3순위)(종합)	145
〈표 III-2-34〉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가장 적절한 교육 목표(종합)	146
〈표 III-2-35〉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가장 적절한 교육 방법(종합)	147
〈표 III-2-36〉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평가 내용 중요도(종합)	148
〈표 III-2-37〉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때 겪는 어려움(1~3순위)(종합)	149
〈표 III-2-38〉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종합)	150

CONTENTS

〈표 III-2-39〉 효과적인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종합)	152
〈표 III-2-40〉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를 받을 의향(종합)	153
〈표 III-2-41〉 희망하는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연수 내용(종합)	154
〈표 III-2-42〉 선호하는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연수 방식(종합)	155
〈표 III-2-43〉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의향이 없는 이유(종합)	155
〈표 III-2-44〉 정책을 개발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종합)	156
〈표 III-2-45〉 적응이라고 응답한 이유(종합)	157
〈표 III-2-46〉 완화라고 응답한 이유(종합)	159
〈표 III-2-47〉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과 관련한 의견(종합)	159
〈표 III-2-48〉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적응정책(1, 2순위)(종합)	161
〈표 III-2-49〉 각 주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평가(종합)	162
〈표 III-2-50〉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 환경 교육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종합)	162
〈표 III-2-51〉 중앙부처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 환경 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종합)	163
〈표 III-2-52〉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요구 비교	164
〈표 III-3-1〉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169
〈표 III-3-2〉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171
〈표 III-3-3〉 서울 유아교육진흥원 관련 연수 예시	174
〈표 III-3-4〉 2023년 경남유아교육원 생태환경 관련 연수	176
〈표 III-3-5〉 충북유아교육진흥원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177
〈표 V-1-1〉 기후위기 적응정책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전략과 주체별 역할	216

그림 차례

[그림 Ⅰ-1-1] 우리나라 온열질환자 수	3
[그림 Ⅰ-1-2]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리스크	4
[그림 Ⅰ-1-3] 글로벌 위기의 영향	5
[그림 Ⅰ-1-4] 사회 전체 및 개인이 인식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6
[그림 Ⅰ-1-5] 우리나라의 연도별 연령대별 천식 유병률	7
[그림 Ⅱ-2-1] 연구 추진 체계	17
[그림 Ⅱ-1-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체계도	22
[그림 Ⅱ-1-2] 제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비전 체계도	25
[그림 Ⅱ-1-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비전 체계도	32
[그림 Ⅱ-1-4] 2021년도 지자체 적응대책 주요 키워드 분석	33
[그림 Ⅱ-1-5]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 예시	35
[그림 Ⅱ-2-1] 어린이 기후 리스크 인덱스의 구성	39
[그림 Ⅱ-2-2]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어린이 고려 정책 비율	40
[그림 Ⅱ-2-3] ARNEC의 어린이 중심 기후위기 정책 마련을 위한 액션 플랜	42
[그림 Ⅲ-2-1] 다양한 주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관련한 부모와 교사의 평가	166
[그림 Ⅲ-2-2] 가장 적합한 영유아 대상 기후 환경 교육 주체	167
[그림 Ⅲ-2-3] 가장 적합한 기후 환경 교육 담당 부처	167
[그림 Ⅳ-1-1]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도출 프로세스	185
[그림 Ⅳ-1-2]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개선 방안	186
[그림 Ⅳ-1-3]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범위의 개선 방안	187
[그림 Ⅳ-1-4] 환경교육센터의 유아 대상 프로그램	189
[그림 Ⅳ-1-5]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교육의 개선 방안	190
[그림 Ⅳ-1-6]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개선 방안	192
[그림 Ⅳ-2-1]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비전 체계도	193
[그림 Ⅳ-2-2] 어린이 활동공간 녹색화 전략	197
[그림 Ⅳ-3-1]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199
[그림 Ⅳ-3-2] 스톡홀름 보육 시설 친환경 가이드라인의 업사이클링 장난감 예시	210
[그림 Ⅴ-1-1] 기후위기 적응정책 로드맵 이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 체계도	217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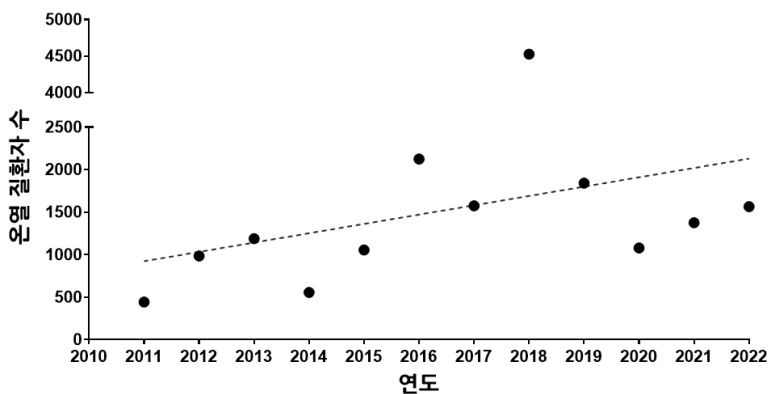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1~2021년의 기간 중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1500억 달러를 넘는 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¹⁾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8건의 대형 산불이 났으며 그 피해액은 1조 원을 웃돈다.²⁾ 또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와 홍수가 증가하고 폭염과 가뭄도 심화되고 있다.³⁾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의 온열질환자 수는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그림 I-1-1 참조).

[그림 I-1-1] 우리나라 온열질환자 수



자료: 질병관리청, “기후변화”, 2023. 7. 31. 인출

1) Christian Aid(2021),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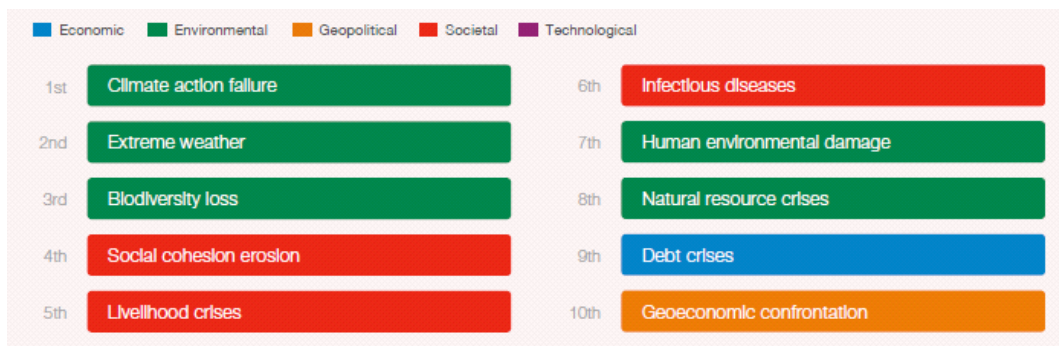
2) 산림청, “우리나라의 대형산불”, 2023. 7. 4. 인출.

3) BBC News 코리아, “홍수, 가뭄, 폭염… 기상 이변의 원인은 기후 변화?”, 2023. 7. 18. 인출.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 생태계, 재산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한 기후 체계의 변화가 아니며, “극한 기상 현상,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초래”하는 기후위기⁴⁾로 인식되고 있다.⁵⁾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이 최근에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⁶⁾에서 전문가들은 기후 행동 실패와 극한 기상 등 기후위기를 미래의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인식하였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는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리스크이자 인류에게 가장 극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였다(그림 I-1-2 참조).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현상인 극한 기상, 생물 다양성 감소 역시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리스크가 될 것으로 선정하였다. 이제 기후위기는 추상적인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현재를 포함하는 머지않은 미래에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구 전체의 위기이다.

[그림 I-1-2]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리스크



자료: WEF 2022,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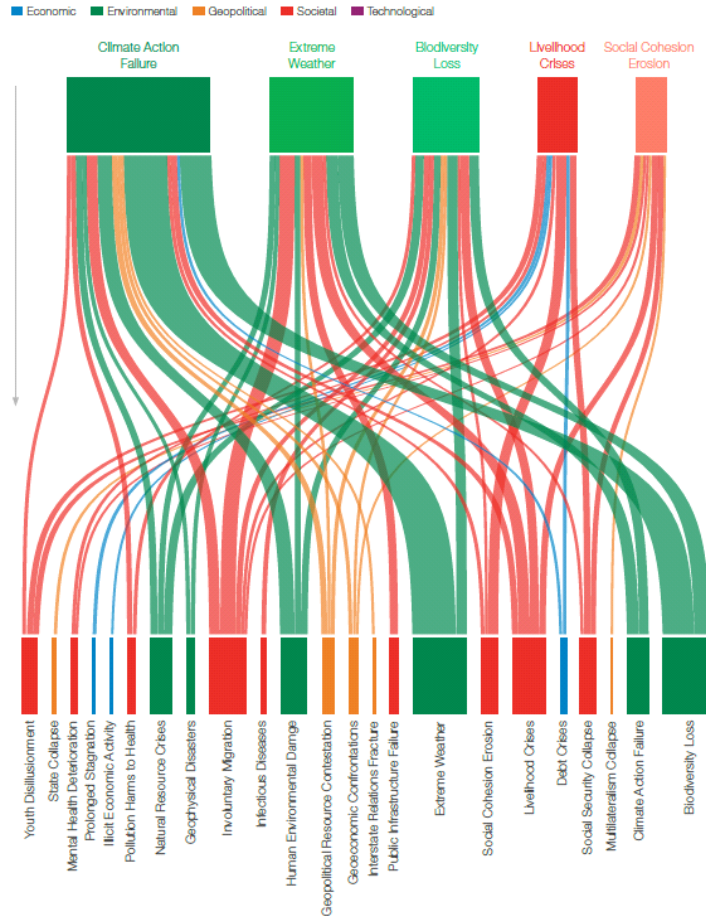
지구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는 기후위기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I-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 환멸, 오염원에 의한 건강 피해, 천연자원 위기, 지구물리학적 재해, 비자발적 이주, 인간 환경 피해, 지정학적 자원 경쟁, 지구경제적 대립, 국가 간 관계의 균열, 극한 기상, 사회적 결속 침식, 생계 위기, 부채 위기, 생물 다양성 등 사회와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러한 영향들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며, 결국에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짐으로 누적될 것이다.

4) 기후위기 적응 정보 포털, “기후위기 이해”, 2023. 7. 31. 인출.

5) The Guardian, “Why the Guardian is changing the language it uses about the environment”, 2023. 7. 31. 인출.

6) WEF(2022), pp. 24-26.

[그림 1-1-3] 글로벌 위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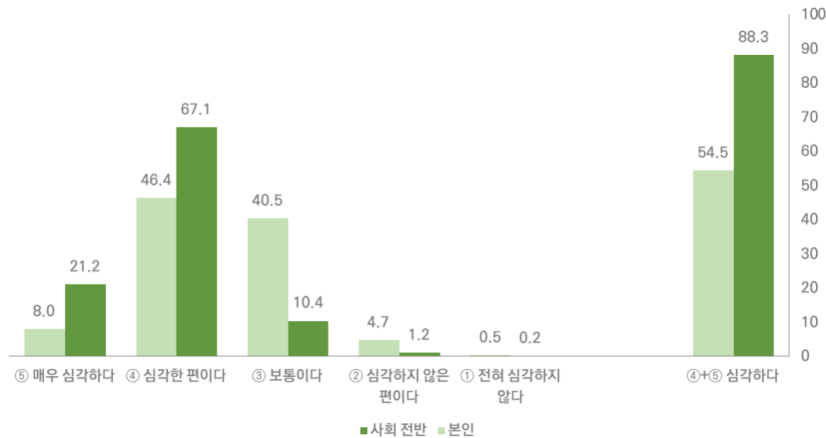


자료: WEF 2022, p. 26.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국민환경의식조사⁷⁾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80.9%가 기후변화가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또 57.1%가 우리나라가 이미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2.3%는 미래세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7) 안소은 외(2021), pp. 15-16.

[그림 1-1-4] 사회 전체 및 개인이 인식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자료: 안소는 외, 2022, p. 14.

나. 기후위기와 어린이

기후위기는 어린이 권리의 위기다.⁸⁾ 어린이는 생물학적 요인 및 행동학적 차이로 인하여 환경 요인 때문에 겪는 건강 피해가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며,⁹⁾ 기후위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영향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¹⁰⁾ 이미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환경 약자인 어린이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¹¹⁾

우선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므로 홍수, 가뭄, 폭염 등 이상 기상 현상에 대응하는 능력 및 생존력이 떨어진다.¹²⁾ 어린이는 성인에 비하여 체격이 작으므로 물리적 타격에 더 쉽게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생리적으로 발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민감하며,¹³⁾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내 대사율이 높고, 음식 섭취량과 호흡량이 더 많으므로 가뭄, 한파 등 극한의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에 더 쉽게 영향받을 수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는 수인성 질병과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과 대응력 역시 성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

8) UNICEF(2021).

9) Landrigan, Rauh, and Galvez(2010), pp. 178-187.

10) Oppenheimer and Anttila-Hughes(2016), pp. 23-29.

11) 환경 약자는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민감집단(sensitive population),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취약 집단(vulnerable population)으로 분류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환경 약자로서의 특징 중 생물학적 약자인 민감집단으로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므로 어린이를 민감집단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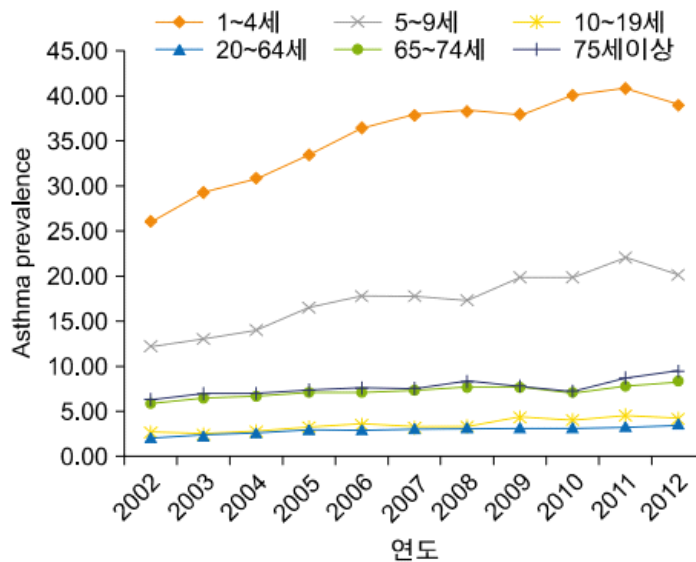
12) Kousky(2016), pp. 75-86; Zivin and Shrader(2016), pp. 31-50.

13) 이러한 window of vulnerability로 인해 특히 영유아 시기에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면 평생의 건강에 영향받을 수 있다.

다.¹⁴⁾ 최근 4세 이하 어린이의 폭염 기간 중 병원 방문 빈도가 더 높아지며 5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설사병이 발병할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하여 심화되는 환경오염에도 성인보다 훨씬 취약하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더라도 생리학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¹⁵⁾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린이는 성인보다 대사율이 높고 호흡량과 영양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체내로 유입된 화학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므로 같은 양의 오염원이라도 더 큰 독성 영향을 야기한다.¹⁶⁾ 영유아는 허파의 발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히 호흡기를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건강 피해가 평생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기후위기는 기상 패턴 변화로 국지적 대기오염 물질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오존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식으로 어린이, 특히 영유아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1-5 참조).

[그림 I-1-5] 우리나라의 연도별 연령대별 천식 유병률



자료: 박소영 외 2016, p. 29.

영유아는 성인과 비교하면 생활 환경이 작고, 물건이나 손가락을 빠는 행동(hand-to-mouth)을 하기 때문에 바닥 먼지 등 실내외 바닥의 오염물질에 노출되기 쉽고 그에 따른 독성 영향을 더

14) UNICEF(2021), p. 11; World Health Organization(2008), USGCRP(2016), pp. 255-257.

15) Larr and Neidell(2016), pp. 91-111

16) World Health Organization(2008).

크게 받는다.¹⁷⁾ 성인보다 높은 대사량, 그리고 아직 발달 중인 기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체내에 분포하는 유해물질은 어린이, 특히 영유아에게 성인과 다른 건강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직 신경계 및 내분비계 등이 발달 중인 영유아가 생애 초기에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영구적인 건강 피해를 볼 수 있다.^{18) 19)}

최근에는 기후위기가 어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극한 기상 현상이 어린이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²⁰⁾ 또 기후위기를 인식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포,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영국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조사 대상 어린이의 약 17%는 기후위기가 걱정스러워 불면증 증상을 겪고 있으며, 약 19%는 이로 인한 악몽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²¹⁾

마지막으로 기후위기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각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미래의 이슈임을 자각하고 어린이, 특히 영유아가 성인보다 더 먼 미래까지 살아야 한다는 사실(상대적으로 더 긴 미래 생존 연수)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 신체가 발달 중이기 때문에 민감한 영유아 시기(window of vulnerability)에 기후 및 환경 악화의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오랫동안 노출될 것이므로 그 영향 역시 생애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²²⁾

이렇듯 어린이는 성인에 비하여 기후위기에 더 취약하다. 따라서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마련할 때는 모든 분야에서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2022년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된 해이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는 어린이의 권리와 관련한 논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긴박하게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환경 약자인 어린이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담론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국내 기후위기 관련 정책 중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영유아 대상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적응정책은 부재하다. 어린이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영유아 대상의 적응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및 사업은 어린이를 취약 계층의 일부로 규정하고 취약

17) Berkowitz et al.(2001), pp. 59-68.

18) National Research Council(1993), pp. 38-39.

19) Landrigan et al.(2010), pp. 178-187.

20) USGCRP(2016), pp. 255-257.

21) Reuters(2023), "One in Five UK children report nightmares about climate change", 2023. 5. 7. 인출.

22) Currie and Deschênes(2016), pp. 3-4.

집단 지원을 위한 거시 전략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러한 전략은 환경 약자로서의 어린이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대상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적응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현시점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어린이 민감성(child-sensitivity)을 분석하고 미래세대 중 적응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학 전 영유아는 초등학생과 달리 공교육 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하며, 동시에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즉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규정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린이 중심의 적응대책 마련과 어린이를 기후시민(climate literate citizen)으로 육성하는 실행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 그 과정에서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 취약 집단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과제 도출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용석(2014)에 따라 미래세대를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아직 미성년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없는 사람들”²³⁾로 정의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취학 전 영유아에 집중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정책 및 실행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

23) 서용석(2014), p. 14.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영유아 대상 정책을 파악하기에 앞서 어린이 관련 정책 연구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어린이 관련 정책을 우선 검토한 후 이 중 영유아 관련 정책을 추가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시행계획, 그리고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어린이와 영유아 관련 정책을 목록화하였다. 또 UNICEF, ARNEC(Asia-Pacific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 등 어린이 관련 국제 기구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조사하고 EU, 미국 등 지역 단위의 어린이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설문 조사

1) 부모 설문 조사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영유아 연령별(0~5세), 지역 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로 비례 배분하여 표집하였다.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는 총 1012명이며, 응답자 특성은 <표 I-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2-1> 부모 설문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구분	내용
표본 크기	총 1000명(실제 1012명 참여)
표본 추출	자녀 연령(0~5세),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2023. 3. 2.~3. 10.

〈표 1-2-2〉 부모 설문 조사 대상 표집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합계		136	148	156	171	187	202	1,000
규모	대도시	53	58	59	65	71	77	383
	중소도시	62	67	71	78	85	92	455
	읍면	21	23	26	28	31	33	162
지역	서울·인천·경기	72	78	80	88	94	102	514
	부산·울산·경남	18	20	22	25	27	30	142
	대구·경북	12	13	14	16	17	19	91
	대전·세종·충북·충남	16	17	18	20	22	24	117
	광주·전북·전남	12	14	14	16	17	19	92
	강원·제주	6	6	7	8	8	9	44

실제 부모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012명 중 남성은 43.6%(441명), 여성은 56.4%(571명)이다. 연령은 30대가 56.0%(567명)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이 41.1%(416명), 20대가 2.9%(29명)로 분포되었다. 최종 학력은 대졸(4년제)이 59.3%(600명)를 차지하며, 취업 중인 응답자는 65.5%(663명)이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44.9%(355명)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18.6%(147명)이다.

응답자의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부모가 45%(455명), 2명인 부모가 55%(557명)이고,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한 자녀 연령은 5세 21.1%(214명), 4세 20.4%(206명), 3세 18.7%(189명), 2세 16.2%(164명), 1세 14.3%(145명), 0세 9.3%(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자녀는 33.6%(340명),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는 56.2%(569명)이다.

〈표 1-2-3〉 부모 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명)	구분	계(명)
전체	100.0(1,012)		
성별		맞벌이 여부	
남성	43.6(441)	맞벌이	63.8(646)
여성	56.4(571)	외벌이	32.7(331)
연령		기타	3.5(35)
20대	2.9(29)	배우자의 취업 상태	
30대	56.0(567)	취업	74.7(746)
40대 이상	41.1(416)	휴직	8.6(86)

12_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구분	계(명)	구분	계(명)
응답자 최종 학력		학업	0.6(6)
고졸 이하	10.0(101)	구직 중	4.0(40)
대졸(3년제 이하)	17.7(179)	미취업	12.0(120)
대졸(4년제)	59.3(600)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이상	13.0(132)	300만 원 미만	11.5(116)
취업 상태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21.6(219)
취업	65.5(663)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20.0(202)
휴직	12.6(128)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16.1(163)
학업	0.7(7)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11.9(120)
구직 중	5.5(56)	700만 원 이상	19.0(192)
미취업	15.6(158)	자녀 수	
직종		1명	45.0(455)
관리자	7.5(59)	2명 이상	55.0(55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6(147)	자녀 연령	
사무직 종사자	44.9(355)	0세	9.3(94)
서비스업 종사자	9.2(73)	1세	14.3(145)
판매업 종사자	4.4(35)	2세	16.2(16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4(3)	3세	18.7(189)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4.2(33)	4세	20.4(206)
정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13)	5세	21.1(214)
단순 노무 종사자	1.9(15)	자녀 연령대	
군인	0.1(1)	영아(0~2세)	39.8(403)
전업 주부	7.2(57)	유아(3~5세)	60.2(609)
지역 구분		자녀 기관	
대도시	39.0(395)	어린이집	33.6(340)
중소도시	45.1(456)	유치원	56.2(569)
농어촌	15.9(161)	기타 ¹⁾	10.2(103)

주: 자녀 기관 구분 중, 기타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 다니거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임.

설문 문항은 기후변화 인식, 기후변화 경험 및 양육 환경, 기후변화 감수성, 실천 역량, 기후변화 교육 경험 및 정책 요구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1-2-4〉 부모 설문 조사 내용

구분	문항 내용
기후변화 인식	-기후 문제 관심도, 기후변화 원인 인식,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 인식,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대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 기후변화 문제 중요도, 기후변화 관련 이미지 -자녀 세대가 겪을 기후 피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기후변화 경험 및 양육 환경	-최근 3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및 그 정도 -주택 안전, 주택 상태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자녀의 건강 상태(증상)
기후변화 감수성, 실천 역량	-기후변화 감수성 -환경 실천 행동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행동 -기후변화 대응 활동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 기후변화 교육의 형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받은 경험, 프로그램 유형, 교육 내용 만족도, 불만족 이유 -유치원·어린이집 기후변화 관련 자료(안내문)를 받은 경험, 활동 유무

구분	문항 내용
	-거주 지역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 -기후변화 정책 개발의 중점,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의 바람직성, 적절한 적응정책 항목 -주체별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가장 적합한 영유아기 기후환경 교육의 주체

2) 기관 설문 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기후위기 인식과 교육·보육의 실제, 연수 경험 및 관련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000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관 유형별(유치원,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공립, 사립), 지역 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읍면 지역)로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표 1-2-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설문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표본 크기	총 1000명 (실제 922명 참여)
표본 추출	유치원·어린이집 설립 유형,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읍면)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2023. 4. 12. ~ 5. 10.

〈표 1-2-6〉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설문 조사 대상 표집 분포

단위: 명

구분	유치원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법인	사립개인	전체		
대도시	4	40	14	94	152		
중소도시	9	78	11	88	186		
농어촌	5	126	5	26	162		
계	18	244	30	208	500		
구분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전체
대도시	40	45	50	10	10	20	175
중소도시	30	50	65	15	10	15	185
농어촌	25	35	35	20	15	10	140
계	95	130	150	45	35	45	500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922명 중 유치원 교사는 45.7%(421명),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54.3%(501명)이다. 기관 설립 유형을 살펴보면 공립 유치원(병설+단설 유치원)은 29.3%(270명), 사립 유치원(개인+법인)은 28.3%(119명), 국공립 어린이집 10.8%명(100명), 그 외 어린이집(민간+가정+사회복지 법인+법인 단체+직장)은 43.5%(401명)로 분포

되었다. 지역 구분을 살펴보면, 대도시 36.6%(337명), 중소도시 34.5%(318명), 농어촌 29.0%(267명)이다.

〈표 1-2-7〉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922)	유치원	100.0	(421)	어린이집	100.0	(501)
기관 구분			설립 유형			설립 유형		
유치원	45.7	(421)	공립 병설	59.1	(249)	국공립	20.0	(100)
어린이집	54.3	(501)	공립 단설	5.0	(21)	민간	29.1	(146)
기관 설립 유형			사립개인	28.3	(119)	가정	22.2	(111)
공립 유치원	29.3	(270)	사립 법인	7.6	(32)	사회복지 법인	9.8	(49)
사립 유치원	16.4	(151)				법인 단체	8.2	(41)
국공립 어린이집	10.8	(100)				직장	10.7	(54)
그 외 어린이집	43.5	(401)						
			유치원 규모			어린이집 규모		
			50인 이하	59.4	(250)	20인 이하	37.5	(188)
			51~100인 이하	19.7	(83)	21~40인 이하	30.1	(151)
			101인 이상	20.9	(88)	41~80인 이하	21.6	(108)
						81인 이상	10.8	(54)
지역 구분			지역 구분			지역 구분		
대도시	36.6	(337)	대도시	33.5	(141)	대도시	39.1	(196)
중소도시	34.5	(318)	중소도시	31.8	(134)	중소도시	36.7	(184)
농어촌	29.0	(267)	농어촌	34.7	(146)	농어촌	24.2	(121)
교사 경력			교사 경력			교사 경력		
1~4년 이하	19.8	(183)	1~4년 이하	20.0	(84)	1~4년 이하	19.8	(99)
5~9년 이하	27.3	(252)	5~9년 이하	28.5	(120)	5~9년 이하	26.3	(132)
10~14년 이하	22.8	(210)	10~14년 이하	16.9	(71)	10~14년 이하	27.7	(139)
15년 이상	30.0	(277)	15년 이상	34.7	(146)	15년 이상	26.1	(131)

설문 문항은 기후변화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실천 역량,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경험 및 실태,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 실태, 교육과정과의 연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지원 및 정책 요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 심층 인터뷰(FGI)

어린이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과 우선시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전달 체계인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지자체와 교육청 공무원 20여 명을 온오프라인으로 면담하였다.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공급자의 어린이 대상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 현황, 애로 사항, 성과와 제한점,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목표와 주요 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2-8〉 심층 인터뷰 개요

차수	일시	대상	내용
1차	2023. 3. 20.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수도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방향, 우선 과제 파악
2차	2023. 3. 28.	충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충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선임팀장	강원 지역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방향, 우선 과제 파악
3차	2023. 3. 31.	대전시 유아교육진흥원 기획부장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충청 지역 유아 대상 기후위기 및 환경교육 사업 현황 및 우선 과제와 지원 요구 파악
4차	2023. 4. 3.	광주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전남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호남 지역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 사항 등 파악
5차	2023. 4. 7.	부산시 유아교육진흥원 기획부장 대구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영남 지역 유아 대상 기후위기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 파악
6차	2023. 4. 9.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경기도 유아체험원 원장	수도권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 대상기후위기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우선 과제 파악

라. 전문가 워크숍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전략 초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전문가와 기후위기 교육 경험이 있는 영유아 교육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논의하고, 어린이 대상 기후위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제시된 전략의 추진 계획 등을 제안하였다.

- 일시: 2023년 7월 18~20일
- 제목: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 참석자: 김경숙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 등 10인

〈표 1-2-9〉 워크숍 참석자

전문영역	전문가	비고
연구진	정다운 연구위원 강관희 연구원 염정윤 단장(환경교육연구단 단장) 구영일 사무국장(환경정책교육원)	
유아 교육·보육	김경숙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청옥 원장(새싹유치원) 전형미 원감(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황보영 기획팀장(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	영유아 교육 현장 전문가
환경 교육	고은아(대전환경교육센터) 김문옥(충남환경센터)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센터 운영

마. 정책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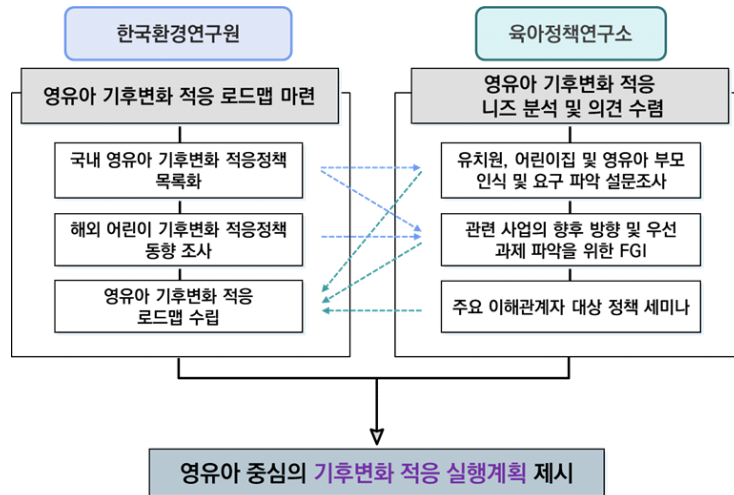
정책 세미나의 목적은 주요 관계 집단의 인식 분석 결과 및 영유아 기후 정책 마스터플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며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일시 및 장소: 2023년 5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제목: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
- 참석자 및 규모: 지자체와 교육청 담당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자, 학계 전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원 등 총 150여 명

바. 연구 추진 체계

이 연구는 한국환경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의 협업으로 수행하였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어린이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를 조사하고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목록화하고 분석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 니즈를 분석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심층 인터뷰(FGI)를 진행하여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방향성 및 우선 과제를 파악하였다. 한국환경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공동으로 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여 수렴된 현장의 요구와 분석된 정책 동향에 기반을 둔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로드맵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림 1-2-1] 연구 추진 체계



자료: 저자 작성



국내외 어린이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 현황 및 동향



제1절

국가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가. 개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²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의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후위기의 영향(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대책이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요 내용은 <표 II-1-1>과 같다.

<표 II-1-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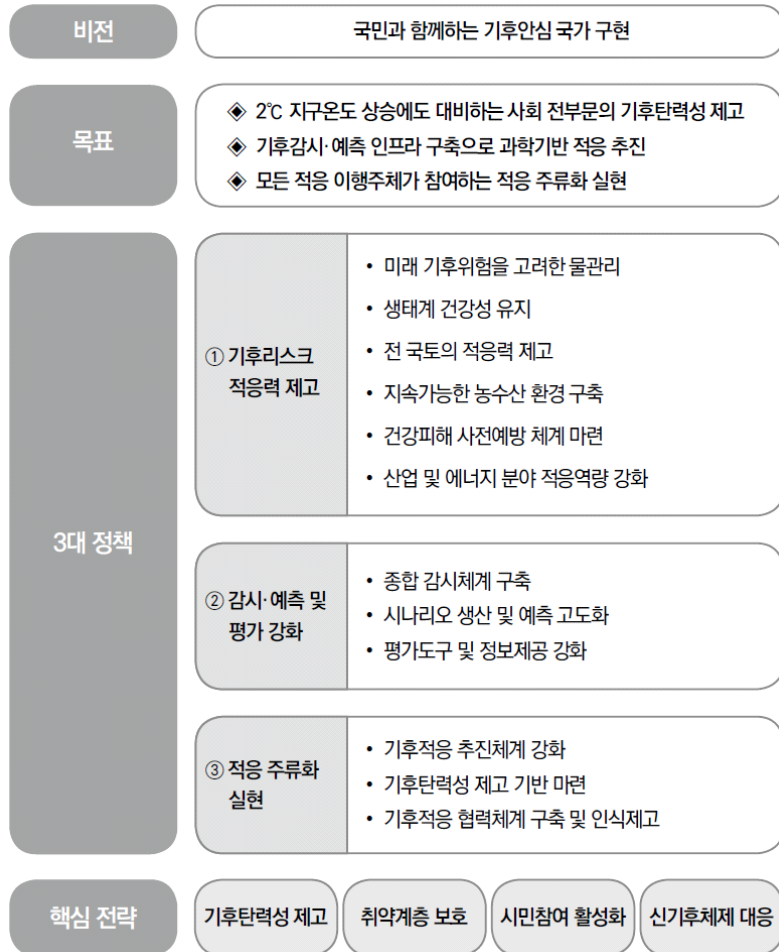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 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p. 2.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은 제1차(2011~2015) 및 제2차(2016~2020)에 이은 세 번째 대책으로, 상위 계획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과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이며, 하위 계획은 광역·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다. 제3차 대책의 비전, 목표 및 주요 3대 정책과 핵심 전략은 [그림 II-1-1]과 같다.

24) 우리나라 적응대책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변경된 것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된 이후이므로 이 절에서는 대책의 수립 시기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혼용한다.

[그림 II-1-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p. 46.

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²⁵⁾

2022년 7월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에서는 3대 정책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5) 관계부처합동(2022),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세부시행계획」.

1) 제2차 대책 성과: 어린이 관련

어린이 관련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성과는 전체 실적과 대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폭염에 대비한 어린이 놀이터 개선 위주로 한정되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어린이, 저소득층 대상 폭염·한파 지원 사업에서 어린이 놀이터 58곳에 그늘막 설치를 지원하였고, 2021년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 조성 사업에서 폭염의 날씨에도 안전한 야외 놀이 쉼터 조성을 위한 계획과 설계 요소, 조성 방법, 관련 기술 및 관리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2) 어린이 관련 시행계획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 중 어린이와 관련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표 II-1-2 참조).

〈표 II-1-2〉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어린이 관련 세부시행계획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취약 계층	- 공공 건축물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 집 440곳 신축
	- 폭염·한파 등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 대상 실내 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실내 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 진료 지원	- 실내 환경 개선: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 청정기 설치 등
정보 공유	- 기후보건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환경보건콘서트(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소통) 및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맞춤형 환경보건 교육 실시	
교육	- 유·초·중등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교육 자료(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 개발 및 보급	- 사회·과학 등의 정규 교과목에 접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전반(원인·영향·완화·적응 등)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 지원 체계 마련	- 국가 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국내외 교육 실태 및 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콘텐츠, 교육 등 지원 방안 영역 추진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세부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다. 시사점

국가 단위 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대상 대책은 주로 교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분야는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 세부 시행계획은 영유아 대상의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계획이 적응대책에 포함되지 않고 환경교육 종합계획²⁶⁾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후 변화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이 낮았다.

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위에서 기술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심화되고 있는 현 기후위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2023년 6월 사회 전반의 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보강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강화, 재난 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이, 특히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국가 보호 대책 및 적응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II-1-2 참조). 기존 대책(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새로 추가되었거나 강화된 어린이(영유아) 관련 대책은 <표 II-1-3>과 같다.

26) 환경부(20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그림 II-1-2] 제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비전 체계도

비전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4대 정책	① 과학적 기후 감시·예측 및 적응 기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② 기후재난·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③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위기 적응형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④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 거버넌스 구현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b),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p. 51.

〈표 II-1-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어린이 관련 신규 및 강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취약 계층	- (신규) 기후위기 취약 계층 실태 조사 및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에서 취약 계층의 유형별 고려 방안,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적응대책 발굴·평가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유동 인구 밀집도, 노후 주거 건물, 공공시설 분포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 계층 생활공간 현황 검토
	- (강화) 야외 근로자, 노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밀집도가 높고 적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응시설 설치 및 적응 수단 발굴 강화	- (2021)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 조성, (2022) 소규모 물길 쉼터 조성, (2023~24) 소규모 사업장 (공장·주거) 녹색인프라 조성, (2025) 폭설·한파 대비 결빙 취약지 안전망 조성 등
	- (강화) 모든 적응 주체가 동참하는 적응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 강화	- 행정계획에 적응대책 반영 강화, 기후위기 취약 계층 조사·지원 근거 마련, 취약성·기후위험 평가체계 구축 등
교육	- (신규) 탄소 중립 중점 학교 운영 지원	-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시설 공간 등 설계 운영 시 학생 의견 청취 및 참여 -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향점을 설정·실천하는 학교 문화 조성 및 학교·지역 환경교육 협력 모델 구축
	- (강화) 미래세대의 실천과 행동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교육·홍보	- 기후위기 인식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적응 생활 습관 유도를 위한 청소년용 모바일 플랫폼 구축·운영, 환경기후교육에 기후변화 적응 내용 포함 - 초·중등생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교재, 동영상 등) 개발·보급, 기후변화 대응 청년 서포터스 양성, 기후·환경 교육 강의 개설 및 체험 기회 확대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b),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취약 계층 보호책을 강화한 제3차 강화대책에서는 기존 대책에 비해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과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교육 부문은 탄소중립 중점 학교 운영 및 기후변화 적응 교육 등 기존 대책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기존 제3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취약 계층이 아닌 어린이를 특정한 대책은 부족하였으며, 교육 부문도 어린이,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화 대책은 전무하였다.

3. 광역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하위 계획이며,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17개의 광역지자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8곳, 도·특별자치도 9곳으로 구분하여 어린이 대상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어린이 대상 정책 현황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중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시 6곳은 모두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서울시는 제2차 계획(2017~2021)까지만 공개하였고, 세종시는 제2차 계획(2020~2024)을 2019년 수립하였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표 II-1-4〉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어린이 대상 대책은 주요하게 다루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린이 대상 적응대책으로 기존 환경보건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 광주, 울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계획 자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또한 대부분 어린이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이 아닌 시민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삼거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표 II-1-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어린이 관련 세부시행계획

지자체	구분	주요 내용
서울	어린이 활동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활동공간 내 시설 마감재, 도료, 바닥재 등 중금속 검사 - 어린이집 환경 컨설팅 및 친환경 시설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용품 환경호르몬,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분석 • 시설물 환경 관리 및 개선 방향 안내 및 교육 실시 • 환경 컨설팅 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100곳에 친환경 시설(벽지, 장판 등) 개선 지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어린이놀이터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안전 교육 • 환경호르몬 교육 및 홍보용 매뉴얼, 어린이 동영상 제작 및 보급 • 지역 아동센터 환경호르몬 예방 인형극 공연
	대기오염 (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 취약 지역을 고려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지원 확대 -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취약 계층 대상 행동 매뉴얼 보급 •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취약 계층 대상 보건용 마스크 보급 • 어린이집 및 아동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부산	취약 계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대비 건축물 온도 저감 사업: 취약 계층 쿨 루프 지원 사업 추진 -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 관련 질환 감시 체계 운영
	대기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 농도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제품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 단속 및 행정 처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추진 - 교육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취약 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대상 예방 차원의 안전 교육 - 기후·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대구	취약 계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안전 보험 사업 및 재해 구호 기금 관리 - 폭염 대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쿨 루프 사업 확대 및 폭염 취약 노후 불량 주택 개선 -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보급 지원 등
인천	어린이 활동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 조성 - 맞춤형 취약 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 어린이집 이중 창 교체 등
	취약 계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건강관리 사업 취약 계층 대상자 폭염 및 한파 대비 정보 전달 체계 구축
광주	대기오염 (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등 35곳에 미세먼지 저감·회피 시설 69기 설치 지원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인증 지원,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교육
	취약 계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주거 환경 개선, 취약 가구 밀집 지역 폭염 쉼터 조성 등: 어린이 공원 등

지자체	구분	주요 내용
대전	어린이 활동공간	-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취약 계층 대상	- 취약 계층 이용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취약 계층 실내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
	교육	- 잇대중 스쿨 운영 및 홍보 추진: 야생동물 및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 제고 -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정보 제공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 기후변화 교육 지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등
	질환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울산	취약 계층 대상	- 취약 계층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기후변화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추진: 쿨 루프, 쿨링 포그 조성 등 - 취약 계층 이용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실내 공기 질 개선
	교육	- 취약 계층 기후 적응 건강 매뉴얼 교육·홍보 추진 -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 사업 지속 추진
	질환	- 아토피 클리닉 운영, 코호트 조사 DB 구축 등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세종	취약 계층 대상	- 취약 계층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개선: 환경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친환경 벽지 및 장판 교체 등
	교육	- 폭염 대비 세부 매뉴얼 작성 후 교육·홍보 실시 - 지역 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시 -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 체험 교육 실시

자료: 서울특별시(2017),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 계획(2017~2021)」; 부산광역시(2022), 「제3차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대구광역시(2022), 「제3차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인천광역시(2021),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2~26)」; 광주광역시(2022), 「제3차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대전광역시(2022), 「제3차 대전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울산광역시(2022), 「제3차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세종특별자치시(2019),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나. 도·특별자치도 어린이 대상 정책 현황

총 9개 도·특별자치도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만 제외하고 모두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으며, 강원도와 제주도는 제2차 계획(2017~2021)까지만 공개하여 이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표 II-1-5〉와 같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비해 도·특별자치도는 취약 계층 및 어린이 관련 대책이 현저히 부족하고 구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어린이 대상 계획이나 관련 계획이 전무하였으며, 취약 계층 대상 대책 또한 대부분 노약자 대상으로 한정되었다.

〈표 II-1-5〉 도·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어린이 관련 세부시행계획

지자체	구분	주요 내용
경기	취약 계층 대상	- 경기도형 맞춤형 폭염 피해 저감대책 개발 및 홍보 -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 계층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지정 미세먼지 쉼터, 스마트 에어 샤워, 창호 부착형 환기 시스템 설치 지원 등
	교육	- 기후변화 적응 인식 강화 교육 지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활용
강원도		- 없음
충북	어린이 활동공간	- 어린이집의 방역 및 보육 환경 개선 지원: 실내외, 교재·교구 소독비 등 지원
	취약 계층 대상	- 취약 계층 이용 노후 공공 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충남	취약 계층 대상	- 기후위기 안심 마을 조성: LED 조명, 보일러 교체, 쿨 루프 시공, 창호 단열 개선 등 시행
	질환	- 아토피·천식 안심기관(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교육	- 충남기후변화교육센터 등을 통한 기후변화 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전북	취약 계층 대상	- 취약 계층 이용 시설(규모 미만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 60곳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컨설팅 진행 - 자녀 안심 그린 숲 2곳 조성 완료 - 에너지 취약 계층 시설 개선: LPG 용기, LED 조명 교체, 난방 시설 교체 등
	교육	- 연령별·분야별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운영(60회) - 체험 버스 운영 등 찾아오는 기후변화 교실 운영(3회)
	교육	- 폭염으로 인한 영향 교육, 홍보 등 - 생태계 체험 교육 및 생태 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남	취약 계층 대상	- 물길 쉼터, 쿨 루프, 쿨링 포그, 그늘막 설치 등 - 계량을 통한 단열 강화 효과 창출 사업 지속 추진 - 공공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
	교육	- 폭염으로 인한 영향 교육, 홍보 등 - 생태계 체험 교육 및 생태 학습 프로그램 운영
경북	취약 계층 대상	- 기후변화 취약 계층 지원 시설 4곳 신규 설치
	교육	- 찾아가는 어린이 기후변화 교육
경남	취약 계층 대상	- 도시 숲 조성 사업 49곳: 학교 숲, 자녀 안심 그린 숲 등 - 단독주택 쿨 루프 시공 지원 -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지원 사업 - 가정, 상가, 학교 대상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실시
	교육	- 기후변화·환경 캠페인 실시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실시
제주	취약 계층 대상	-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실시
	질환	-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
	교육	- 재난 안전 종합 체험 센터 건립 및 안전 체험 교육 강화

자료: 경기도(2022),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22~2026」; 강원도(2017), 「제2차 강원도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충청북도(2022), 「제3차 충청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충청남도(2022),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전라북도(2021), 「제3차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전라남도(2022), 「제3차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경상북도(2022), 「제3차 경상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경상남도(2022), 「제3차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4. 기초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별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한 목록화하여 검토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물놀이, 식중독, 아토피,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대책은 기후변화 또는 어린이와의 직접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기초지자체별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표 II-1-6>과 같이 크게 건강·지원, 공간, 교육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표 II-1-6> 기초지자체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적응대책

구분	지표	해당 지자체
건강·지원	- 산모·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경남 통영시, 전남 영광군·보성군
	-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 복지 서비스	전북 군산시, 경기 연천군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서구
공간	- 유아 숲 조성 및 관리	대전 서구, 광주 동구, 경북 경산시
	-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충남 금산군
	- 도심 속 녹색 어린이 공원 확충 및 보수	경북 안동시, 대구 수성구
교육	- 유아 숲 교육·체험장 운영	인천 동구·계양구, 충북 음성군, 서울 도봉구·양천구, 대전 동구, 경북 의성군
	- 기후변화 적응 시설 어린이 체험	경남 사천시, 충북 청주시, 경기 안양시
	- 기후 놀이터 및 생태 놀이터	
	- 임산부,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대응 교육 - 어린이 환경 교실 운영	충북 음성군·진천군, 울산 북구, 서울 용산구

자료: 지자체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1년 새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3년 3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²⁷⁾의 주요 과제에는 ‘기후위기 적응’이 이행기반 강화 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취약 계층 지원’이 들어 있다. 다만 실질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취약 계층 보호 기반 구축 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대상의 폭염 저감 그늘막 설치, 창문형 에어컨 설치, 쿨 쉼터 제작·보급으로 이전에 제안되었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의 차별성이 없다.

[그림 II-1-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비전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p.23.

27) 관계부처 합동, 202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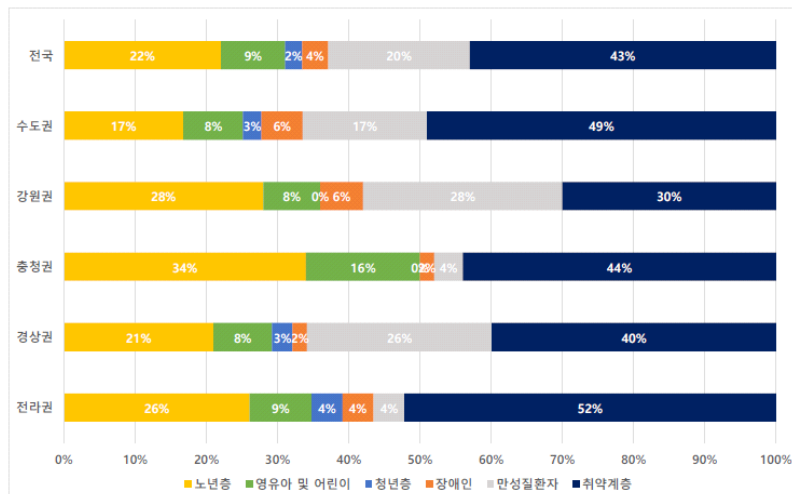
6. 시사점

시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대부분 공통으로 제시한 어린이 대상 대책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취약 계층 이용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책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 영향만을 다루므로 연관성이 부족하고, 이미 환경보건 사업 등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기초지자체에서 제시한 어린이 대상 대책 또한 아토피, 물놀이, 식중독 등이 대다수이며, 이 외 대책은 공간 개선과 교육 등에 한정되었다.

정휘철 외(2022)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 적응대책의 총 8469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약 94개(약 1.1%)만이 어린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 또한 아동 주치의제, 방문건강사업, 아토피, 식품 위생관리, 환경교육, 보육시설 미세먼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 식중독 예방 사업, 놀이 시설 안전 등 다수의 사업이 기후변화 적응과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적응대책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다른 대상 집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1-4참조). 전국 지자체에서 노년층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전체 65%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의 대책은 9%에 불과하다.²⁸⁾

[그림 II-1-4] 2021년도 지자체 적응대책 주요 키워드 분석



자료: 정휘철 외(2022), p. 107.

28) 정휘철 외(2022), p. 108.

7. 소결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국내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책으로 주로 취약 계층의 시설 및 공간 개선과 교육 부문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 단위 계획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대상을 어린이로 특정한 대책보다는 취약 계층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이 주를 이뤘다.

제3차 강화대책에서는 기존 대책에서 더 나아가 법적 기반 마련 등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어린이만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부족하였다. 광역지자체의 적응대책 또한 어린이 특화 정책이 현저히 적었으며, 기존의 환경보건 사업에서 시행한 대책과 차별화되지 않는 등 어린이 관련 대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시 단위 대책에 비해 도 단위 대책에서 이러한 한계점이 두드러졌으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에서는 노약자층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는 배제하는 등 어린이 관련 대책이 전무한 지자체도 있다.

시도 단위 지자체 대책에서는 공통으로 취약 계층 이용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광역지자체에 비해 영유아 관련 대책을 제시한 지자체가 다수 있으며, 유아 숲 조성 및 체험, 기후 놀이터 등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 영향을 주로 반영하여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 즉각 대응할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대책들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유사하거나 차별화되지 않았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 조성 부문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서 어린이는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며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대부분 어린이에게 특화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 취약 계층으로 묶인 통합 대책이며, 정책 이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상 취약 계층 중에서 어린이 및 영유아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린이 관련 기후위기 교육 대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에 치우쳐 있어 취학연령 미만의 어린이, 즉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 지자체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과 상관없이 차별점이 없는 유사한 대책들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기후위기 취약 계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같이 어린이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직접 영향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며, 어린이에게 특화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초지자체 대책에 다수 포함된 물놀이, 식중독, 아토피 등과 관련한 대책처럼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낮거나 어린이와의 직접 연관성이 낮은 어린이 통학 차량 규제 등과 같이 중요도가 낮은 대책을 무분별하게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취약 계층에 포함하여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및 영유아만의 근본 특성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대책을 도출해낸다면 기존 대책과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다.

국내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관련 대책은 그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환경 전 분야 및 생물 다양성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예상되는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는 잠재적으로 영향력이 큰 세대인 만큼 기후위기 관련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기후시민(climate literate citizen)’²⁹⁾으로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 거버넌스를 마련한다면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인류가 적절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1-5]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 예시



자료: Climate Lit, “Climate Lit Video Library”, 2023. 7. 16. 인출

29) 기후변화와 그 인위적 원인 및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USGCRP(2009), Climate Literacy: the Essential Principles of Climate Science).

제2절

해외의 어린이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 동향



1. 국제기관의 적응 사업

가. UNICEF

UNICEF는 국제사회에 어린이를 고려한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진행하였다.

1) 어린이,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Children, Youth, Climate Action Declaration)³⁰⁾

UNICEF는 2019년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에서 어린이,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을 이끌었다. 이 선언은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포용적이며 아동 및 청소년 중심의 기후 정책 및 액션을 가속화하는 최초의 선언이다. 5대륙의 38개국이 서명한 이 선언문은 어린이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 집단임을 명시하며, 협약 당사국이 7가지 의제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30) UNICEF, 2019a, Declaration on children, youth and climate action.

〈표 II-2-1〉 어린이,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

1. 건강한 환경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아동의 권리의 세계적인 인정과 이행을 지지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 지역 및 글로벌 프레임워크 그리고/또는 국가 정책과 법률에 이 권리를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Advocating for global recognition and fulfilment of children's inalienabl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nd to take steps to enshrine this right where appropriate into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frameworks and/or national policies and legislation

2. 민간 부문의 특정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국가 적응 계획(NAP) 및 장기 온실가스 배출 개발 전략에서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이행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특정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파리협약 이행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 증진 및 고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것.

Enhancing efforts to respect, promote and consider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at all levels, including recognition of their specific vulnerabilities, as well as their status as key stakeholders and implementers, in countries' national climate adaptation and mitigation measur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National Adaptation Plans (NAPs), and long-term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including consideration of the particular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3. 아동 및 청소년 대응의 적응, 재해 위험 감소 및 완화 조치에 대한 투자를 확대 및 가속화하며, 가장 위험한 아동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자간 기금에서 아동 민감성 기준의 주류화를 지지할 것.

Scaling up and accelerating investment in child- and youth-responsive adaptation,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itigation measures, cognizant of an urgent need to focus on reaching children most at risk, and advocate for child-sensitive criteria to be mainstreamed in multilateral funds

4. 기후변화 및 환경교육의 확립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며,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에게 그러한 노력이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orts by establishing and investing i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quipp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protect themselves and contribute to a safe and sustainable future, ensuring that such efforts reach marginalized children and youth

5.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년 대표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¹⁾에 초점을 맞추어 YOUNGO²⁾ 우선 사항과 청년 참여를 의미 있게 지원할 기회를 검토할 것.

Enhancing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climate change processes, including through the 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 dialogue, by participating in the Youth Delegate Programme in the UNFCCC, and examin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support YOUNGO priori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with a focus on the Global South

6. 기후변화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효과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또는 기존 메커니즘 및 국제 아동 미래세대위원회 설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Exploring measure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new or existing mechanisms at the national level to ensur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decision making on climate change

7. 상기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UNFCCC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나 워크스트림을 포함하고 파리협약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행하도록 기후 행동에 있어서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일관성과 전체를 아우르는 (cross-cutting) 초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레벨에서의 제도적·행정적 조치와 파트너십을 채택할 것.
Adopting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s well as partnership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actively pursue the above objectives, and to enhance coherence and a cross-cutting focus on children and youth in climate action, including with respect to UNFCCC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workstreams, and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¹⁾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남반구나 저위도에 위치한 통상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표현되는 국가들

²⁾ YOUNGO: Official Youth Constituency to the UNFCCC

자료: UNICEF, 2019a.

UNICEF는 추가로 지침서를 발표하여 선언문의 각 정책에 각국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는 이행계획의 예시를 제시하였다.³¹⁾ 예를 들어 4번 의제인 “기후변화 및 환경교육의 확립과 투자”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식·비공식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주요 과제에 어린이 교육을 포함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2019년 기후 행동 선언은 협약국에 모든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우선 고려하도록 촉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 이 선언과 함께 UNICEF는 각국의 기후위기 관련 정책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2) 어린이 기후 리스크 지표(Children's Climate Risk Index, CCRI)³²⁾

UNICEF가 2021년 발표한 ‘어린이 기후 리스크 지표’는 각국이 기후 적응정책을 기획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어린이 연관 분야의 선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CCRI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축은 ‘기후 및 환경 충격 및 스트레스’다. 이를 구성하는 8개 지표는 물 부족, 강물 홍수, 해안 홍수(침수), 열대저기압, 벡터 매개 질병, 폭염, 대기오염, 그리고 토양 및 수질 오염이다. 두 번째 축은 ‘어린이 취약성’이다. 어린이 건강 및 영양, 교육, 위생, 그리고 빈곤, 소통 자산 및 사회적 보고 등 4개의 지표를 포함한다. 이들은 환경보건학의 관점에서 주요 리스크 요소인 위해성, 노출, 그리고 취약성을 아우르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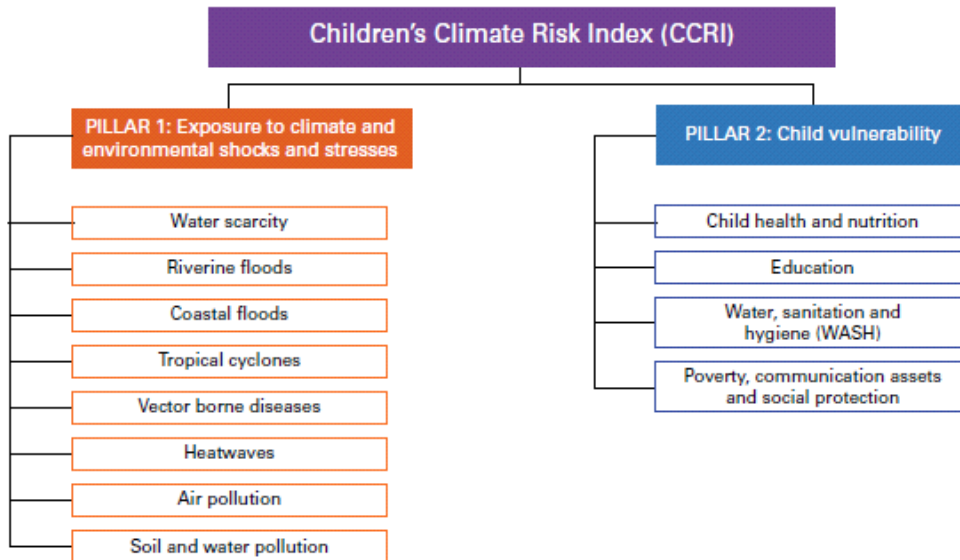
CCRI는 어린이 발달의 저하, 박탈 심화 그리고/또는 아동이나 취약한 가정 및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주의 상황 등을 초래하는 기후 및 환경 충격 또는 스트레스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합 지수이다. CCRI의 목적은 기후 및 환경적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노

31) UNICEF, 2019b.

32) UNICEF, 2021.

출되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동 권리의 박탈과 비인도주의 상황이 심화될 리스크에 처한 국가 또는 지역을 식별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림 II-2-1] 어린이 기후 리스크 인덱스의 구성



자료: UNICEF, 2021, p.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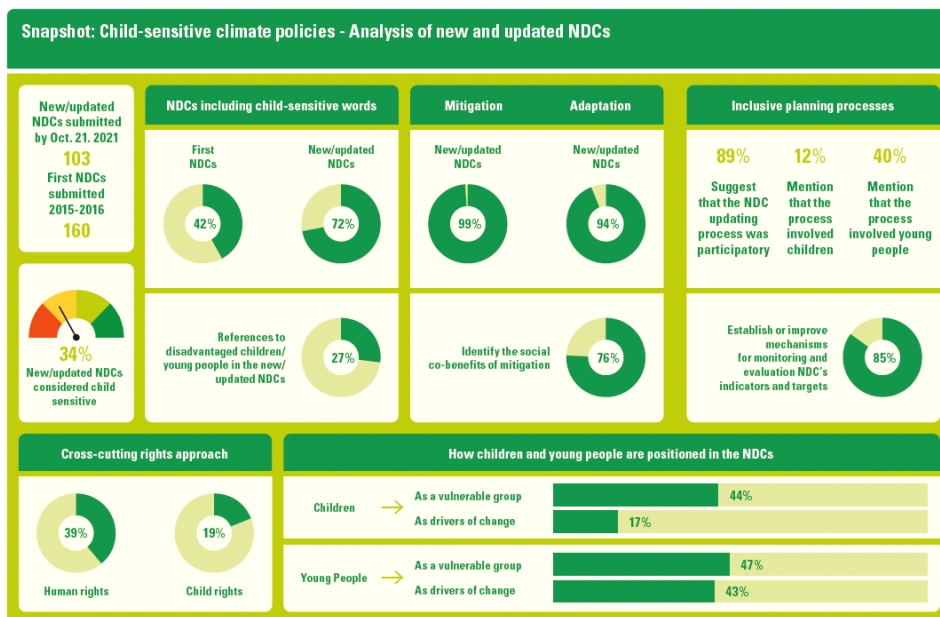
CCRI는 각국의 어린이 기후 리스크 구성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개별 국가가 좀 더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분야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취약성’ 지표는 1.8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기후 및 환경 충격 및 스트레스’ 지표는 매우 높은 7.3이다. 이에 따라 지표가 산출된 163개국 중 7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기오염 관련 점수가 가장 높으므로 어린이 관련 기후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리스크 감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CCRI가 주는 두 번째 시사점은 국내에서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수립할 때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CCRI의 지표 및 측정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많은 지표가 열악한 식수 위생 상태 등 우리나라에서는 연관성이 없거나 영유아 예방 접종처럼 관련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PM₁₀ 및 PM_{2.5} 노출 아동 인구, 사회적 안전망 및 금융 포용성 등 우리나라에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지표들은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어린이 고려 정책 비율 분석³³⁾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였다. UNICEF는 각국에서 제출한 NDC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고려된 정책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II-2-2]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어린이 고려 정책 비율



자료: UNICEF(2022), p. 4.

UNICEF는 2021년 103개국에서 수정하거나 새로 제출한 정책의 34%만이 어린이를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UNICEF는 분석을 통하여 기후 정책에 대한 어린이 민감도의 편차가 큼을 보여 주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어린이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 분석 결과 중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어린이를 고려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각국이 이를 반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제공하였다.

33) UNICEF(2022), Making Climate and Environment Policies for &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나. ARNEC

ARNEC(Asia-Pacific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는 아시아 태평양의 영유아 연관 기관 네트워크로서 영유아 발달(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과 연관된 주요 이슈를 어린이 권리의 이슈로 규정하고 다방면으로 영유아 권리 향상을 추진한다. ARNEC는 UNICEF와 함께 기후위기를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규정하고 어린이, 특히 영유아의 권리와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된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정책 마련을 위한 범위 연구 및 취약 집단 수립³⁴⁾

ARNEC는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UNICEF와 함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를 위한 범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우선 기후위기 관련 정책 중 어린이가 고려된 정책을 예시로 소개하며, 특히 영유아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조지아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특히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 페루의 리마는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 ‘안전한 외출’(Salidas Seguras)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은 어린이들이 녹지 공간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신체 활동을 함과 동시에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³⁵⁾

ARNEC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느 국가에서도 영유아 보육·교육 계획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영유아 보육·교육과 기후위기 적응정책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영유아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육과 기후위기와 연관된 영유아 관련 데이터 확보를 제안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RNEC는 기후 정책에서의 영유아 주류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액션 플랜을 제안하였다.

1. 가정의 기후탄력성 구축
2. 지역사회의 영유아 중심 정책을 위한 활동 강화
3. 영유아 보육·교육 시스템에 집중

34) ARNEC(2022) Most Vulnerable to Most Valu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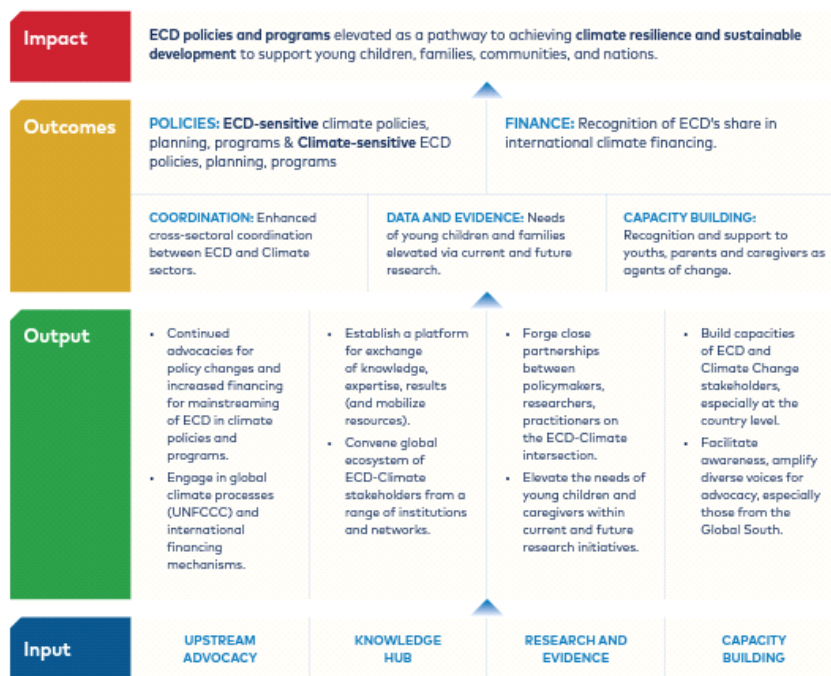
35) ARNEC(2022) Most Vulnerable to Most Valuable, pp. 41-42.

4. 영유아 중심의 정책 마련

- 영유아 대표성 강화
- 근거 기반 정책 생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후시민 교육 강화
- 영유아를 위한 예산 확보
- 영유아의 친환경적 활동공간 확보

또 위에서 제안한 액션 플랜을 바탕으로 [그림 II-2-3]과 같이 향후 과제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림 II-2-3] ARNEC의 어린이 중심 기후위기 정책 마련을 위한 액션 플랜



자료: ARNEC, Save the Children, UNICEF EAPRO(2022), p. 30, ARNEC(2023) p. 2. 재인용.

2. EU의 어린이 기후변화 적응정책

가. 유럽 기후위기 적응전략

EU는 2013년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21년 새로운 기후위기 적응전략을 발표하였다.³⁶⁾ 발표된 전략은 전 유럽 단위의 전략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지식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그리고 해법, 혁신, 구현, 예방 중심의 액션 가속화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취약 계층 범위 설정 및 보호 강화, 참여 독려 등을 포함하였으나 어린이, 특히 영유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유럽 기후 회복력 전략³⁷⁾

유럽은 또한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한 축으로 2030년까지 기후 회복적이고 정의로운 유럽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 to a climate resilient and just Europe)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전략의 주요 요소로는 환경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사회경제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이다. 이 중 사회경제,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강화 내용에는 기후 회복력 달성의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이고, 어린이를 포함하는 취약 집단의 기후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아직 추상적이며, 영유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은 연차별, 국가별 시행계획에서 다룰 예정이다.

다. 영국의 어린이 기후위기 교육정책

영국 교육부는 2022년 교육 시스템에서 지속가능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³⁸⁾ 전략 수립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어린이의 관점을 고려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전략은 교육 시스템과 사회 돌봄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특히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 보육 시설을 포함하며 5개 분야의 액션 플랜을 제시하였다.

36) EU, 2021.

37) EC, 2020.

38) UK Department of Education,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 Strategy for the Education and Children's Services Systems".

- 이행계획 1: 기후 교육
- 이행계획 2: 녹색 기술과 직업
- 이행계획 3: 교육 자산과 디지털 인프라
- 이행계획 4: 운영 및 공급망
- 이행계획 5: 국제 협력

3. 미국의 어린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가. 개괄

미국은 2021년 행정명령 14008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행정 각 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후 이행계획(Climate Action Plan)을 수립하고 매년 연방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federal chief sustainability officer)에게 이행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³⁹⁾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와의 연관성이 있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EPA의 기후 이행계획을 검토하였다.

나. 교육부

1) 기후 이행계획⁴⁰⁾

교육부가 부서에서 주목하는 기후변화 리스크는 극한 기상으로 인한 교육 및 보육 시설의 훼손 및 이로 인한 교육·보육의 부재, 학생 및 원생의 건강 및 안전의 위협, 정신건강 리스크의 증가, 그리고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속한 학생 및 원생이 기후위기로 받게 되는 차별적 영향 등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우선순위 적응정책으로는 첫 번째로 리더십과 시민 참여 부문에서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 소통 강화, 교육과 기후변화 적응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교육기관(학교 및 보육 시설)의 강화 및 홍보 등을 포함하였다. 두 번째 우선순위 부문인 정책, 지침 및 사업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사업 확대, 교육부 정책에 기후 적응 개념 포함, 교육부 직원 및 관계자의 기후 리터러시(climate literacy) 강화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학교 및 보육 시설의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 강

39) Executive order 14008,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2021.

40)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화, 교육과정 전반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내용 연계 및 기후 교육 강화, 기후 리터러시 향상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2) 2022 이행계획 평가⁴¹⁾

교육부의 2022 이행계획 평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예산 및 신규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 지속가능성, 그리고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Green Ribbon Schools 프로그램 운영 확대, 다양한 교육 툴 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교육 시설,⁴²⁾ 학군,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 Green Ribbon Schools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부는 교육, 시설, 운영 등 다방면에서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시행을 도모하였다. 또 교육부 내부의 예산으로 진행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들을 범부처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기후위기 적응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EPA 기후 적응 이행계획

1) 기후 적응 이행계획⁴³⁾

환경부의 기후 적응 이행계획(Climate Adaptation Action Plan)은 정책 성명에서 우선 어린이를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주요 집단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EPA가 수립한 5개의 기후 적응 우선순위 곳곳에 어린이를 고려한 정책 과정을 포함하였다.

첫 번째 우선순위인 “EPA의 정책, 프로그램, 규칙 제정 과정, 그리고 집행 활동에 기후 적응을 녹여낸다(Integrate climate adaptation into EPA programs, policies, rulemaking processes, and enforcement activities)”의 방법론에 (어린이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집단을 규칙 제정 과정의 가장 첫 단계에서부터 포함시켜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우선되도록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또 두 번째 우선순위인 “주, 부족, 영토민, 지방 정부, 환경 정의 조직, 지역사회 단체, 기업 및 기타 연방 기관과 협의하고 협력하여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탄력성을 높이며 특히 환경 정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Consult and partner with states, tribes, territories, local

41)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42) 영유아 보육 시설, 학교, 고등교육기관을 포함.

43) U.S. EPA, 2021.

44)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olicy Statement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2021. 5. 26.

governments, environmental justice organizations, community groups, businesses, and other federal agencies to strengthen adaptive capacity and increase the resilience of the n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advancing environmental justice)”에서는 기후변화가 어린이 건강의 주요 위해 요인임을 인정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정책이 환경정의 정책의 주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가 단위의 이행계획인 만큼 구체적으로 영유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없다. 현재 국가 및 지역 EPA의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어린이 관련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사례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국가 단위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 및 이행계획에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특히 영유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유럽과 미국은 어린이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략 수립 및 시행 전 과정에서 어린이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와 관련한 전략을 검토하였을 때 크게 극한 기상 현상 대비 등의 강화, 사회 안전망의 확대 및 강화, 그리고 기후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등이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극한 기상 현상에 대비한 어린이 중심의 보호 정책 마련은 어린이 중심의 리스크 평가를 우선한 후에 이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 특히 영유아 대상의 독립 리스크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기후 리터러시의 강화이다. 앞서 우리나라 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영유아의 기후 리터러시 향상 정책은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개별 어린이집 단위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UNICEF는 물론 유럽 각국은 기후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교육부의 기후 적응전략에 기후 리터러시 향상을 포함시켰다. 이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 기후 적응정책에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도 범부처 차원에서 교육 및 보육 시설에서의 기후 리터러시 강화 정책의 전체적인 평가, 전략 수립, 예산 확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 관련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제1절

부모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1. 기후변화 인식

설문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 1012명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기후변화 문제 관심도, 기후변화의 원인, 문제 해결 방법,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중요도 등을 질문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심 있다는 응답이 74.7%로 높게 나타났다(관심 있는 편 58.3%, 매우 관심 있음 16.4%, 평균 3.9점/5점 만점). 부모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원생 부모보다 유치원생 부모가 기후변화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부모가 기후변화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기후변화 문제 관심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는 편	보통	관심 있는 편	매우 관심 있음	계	평균
전체	0.0	3.1	22.2	58.3	16.4	100.0 (1,012)	3.9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0	4.7	23.6	54.6	17.1	100.0 (403)	3.8
유아(3~5세)	0.0	2.0	21.3	60.8	15.9	100.0 (609)	3.9
$\chi^2(df) / t$			8.294(3)*				-1.4
지역 구분							
대도시	0.0	2.5	25.3	57.0	15.2	100.0 (395)	3.8
중소도시	0.0	3.7	19.5	60.5	16.2	100.0 (456)	3.9
농어촌	0.0	2.5	22.4	55.3	19.9	100.0 (161)	3.9
$\chi^2(df) / F$			6.709(6)				0.8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0	1.0	40.6	46.5	11.9	100.0 (101)	3.7
대졸(3년제 이하)	0.0	3.4	23.5	54.7	18.4	100.0 (179)	3.9
대졸(4년제)	0.0	2.8	20.5	60.8	15.8	100.0 (600)	3.9
대학원 이상	0.0	5.3	14.4	60.6	19.7	100.0 (132)	3.9
$\chi^2(df) / F$			29.895(9)***				2.9*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기후변화의 원인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9.1%(아는 편 54.4%, 매우 잘 앎 4.7%), 보통은 35.0%이다. 모르는 편도 5.8%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평균 3.6점/5점 만점).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원생보다 유치원생 부모가, 가구 소득별로는 7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부모가,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이상인 부모가 기후변화의 원인을 유의하게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기후변화 원인 인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모르는 편	보통	아는 편	매우 잘 앎	계	평균
전체	0.0	5.8	35.0	54.4	4.7	100.0 (1,012)	3.6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0	8.2	36.7	50.9	4.2	100.0 (403)	3.5
유아(3~5세)	0.0	4.3	33.8	56.8	5.1	100.0 (609)	3.6
$\chi^2(df) / t$			8.936(3)*				-2.6**
기관 구분							
유치원	0.0	3.5	32.6	60.3	3.5	100.0 (340)	3.6
어린이집	0.0	6.3	36.0	52.0	5.6	100.0 (569)	3.6
기타	0.0	10.7	36.9	48.5	3.9	100.0 (103)	3.5
$\chi^2(df) / t$			13.855(6)*				3.1*(a)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10.3	39.7	48.3	1.7	100.0 (116)	3.4
300만~400만 원	0.0	5.0	37.4	52.1	5.5	100.0 (219)	3.6
400만~500만 원	0.0	8.4	39.6	46.5	5.4	100.0 (202)	3.5
500만~600만 원	0.0	3.7	31.3	61.3	3.7	100.0 (163)	3.7
600만~700만 원	0.0	2.5	34.2	58.3	5.0	100.0 (120)	3.7
700만 원 이상	0.0	5.2	28.1	60.9	5.7	100.0 (192)	3.7
$\chi^2(df) / F$			25.991(15)*				3.6**(a)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0	13.9	46.5	38.6	1.0	100.0 (101)	3.3
대졸(3년제 이하)	0.0	7.8	40.8	44.7	6.7	100.0 (179)	3.5
대졸(4년제)	0.0	4.7	33.3	58.7	3.3	100.0 (600)	3.6
대학원 이상	0.0	2.3	25.8	60.6	11.4	100.0 (132)	3.8
$\chi^2(df) / F$			55.725(9)***				14.0*** (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9.1%로 반이 넘지 않았으며(아는 편 45.1%, 매우 잘 앎 4.0%), 보통이라는 응답은 41.5%이다. 모른다는 응답은 9.5%(모르는 편 9.3%, 전혀 모름 0.2%)로 부모의 상당수가 문제 해결 방안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종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부모가 해결 방법을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 연령별 응답은 유아 부모가 영아 부모보다 조금 더 많이 해결 방법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5점 기준, 3.5점; 아는 편 47.0%, 매우 잘 앎 3.9%).

〈표 III-1-3〉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모르는 편	보통	아는 편	매우 잘 앎	계	평균
전체	0.2	9.3	41.5	45.1	4.0	100.0 (1,012)	3.4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2	12.4	41.2	42.2	4.0	100.0 (403)	3.4
유아(3~5세)	0.2	7.2	41.7	47.0	3.9	100.0 (609)	3.5
$\chi^2(df) / t$			8.343(4)				-2.2*
지역 구분							
대도시	0.0	9.1	43.0	44.3	3.5	100.0 (395)	3.4
중소도시	0.4	9.4	39.7	46.3	4.2	100.0 (456)	3.4
농어촌	0.0	9.3	42.9	43.5	4.3	100.0 (161)	3.4
$\chi^2(df) / F$			3.688(8)				0.1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0	13.9	48.5	33.7	3.0	100.0 (101)	3.2
대졸(3년제 이하)	0.0	8.4	47.5	39.7	4.5	100.0 (179)	3.4
대졸(4년제)	0.2	9.0	40.8	47.0	3.0	100.0 (600)	3.4
대학원 이상	0.0	8.3	31.1	52.3	8.3	100.0 (132)	3.6
$\chi^2(df) / F$			26.990(12)**				5.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1.8%(약간 해결할 수 있을 것 48.9%,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12.9%),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19.7%(별로 해결하지 못할 것 18.5%,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1.2%)로 나타나 긍정적 전망이 많지만 부정적 전망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대감을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하면 평균 3.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부모가, 지역 유형별로는 중소도시 거주 부모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4〉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별로 해결 하지 못할 것	보통	약간 해결 할 수 있을 것	상당한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	계	평균
전체	1.2	18.5	18.5	48.9	12.9	100.0 (1,012)	3.5
응답자 연령							
20대	6.9	24.1	27.6	24.1	17.2	100.0 (29)	3.2
30대	1.4	18.0	20.3	47.4	12.9	100.0 (567)	3.5
40대 이상	0.5	18.8	15.4	52.6	12.7	100.0 (416)	3.6
$\chi^2(df) / F$			20.513(8)**				2.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2	17.4	19.6	48.4	13.4	100.0 (403)	3.6
유아(3~5세)	1.1	19.2	17.7	49.3	12.6	100.0 (609)	3.5
$\chi^2(df) / t$			1.066(4)				0.4
지역 구분							
대도시	0.3	18.5	21.5	48.1	11.6	100.0 (395)	3.5
중소도시	2.0	18.6	17.5	50.7	11.2	100.0 (456)	3.5
농어촌	1.2	18.0	13.7	46.0	21.1	100.0 (161)	3.7
$\chi^2(df) / F$			20.064(8)*				2.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우리나라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는지 질문하였다. 심각하다는 응답이 81.7%로 압도적으로 높으며(심각한 편 60.4%, 매우 심각 21.3%), 보통이 16.4%, 심각하지 않은 편이 1.9%로 나타났다(평균 4.0점/5점 만점).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비율이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이 외 다른 유형별 응답에서도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III-1-5〉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심각 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매우 심각	계	평균
전체	0.0	1.9	16.4	60.4	21.3	100.0 (1,012)	4.0
성별							
남성	0.0	2.0	19.7	59.6	18.6	100.0 (441)	3.9
여성	0.0	1.8	13.8	60.9	23.5	100.0 (571)	4.1
$\chi^2(df) / t$			8.218(3)*				-2.7**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0	2.0	16.6	60.3	21.1	100.0 (403)	4.0
유아(3~5세)	0.0	1.8	16.3	60.4	21.5	100.0 (609)	4.0

구분	전혀 심각 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매우 심각	계	평균
$\chi^2(df) / t$			0.082(3)				-0.3
지역 구분							
대도시	0.0	2.5	18.7	58.2	20.5	100.0 (395)	4.0
중소도시	0.0	1.3	15.1	63.6	20.0	100.0 (456)	4.0
농어촌	0.0	1.9	14.3	56.5	27.3	100.0 (161)	4.1
$\chi^2(df) / F$			8.590(6)				2.1(a)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0	3.0	21.8	57.4	17.8	100.0 (101)	3.9
대졸(3년제 이하)	0.0	3.4	15.1	57.5	24.0	100.0 (179)	4.0
대졸(4년제)	0.0	1.7	15.7	61.3	21.3	100.0 (600)	4.0
대학원 이상	0.0	0.0	17.4	62.1	20.5	100.0 (132)	4.0
$\chi^2(df) / F$			9.368(9)				1.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이어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요하다는 응답이 81.8% (중요한 편 51.3%, 매우 중요 30.5%)로 높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는 평균 4.1점으로서 중요한 편으로 인식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요하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86.5%(중요한 편 55.9%, 매우 중요 30.6%, 평균 4.2점/5점 만점)로 아버지보다 더 높은 비율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6〉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보통	중요한 편	매우 중요	계	평균
전체	0.2	2.3	15.7	51.3	30.5	100.0 (1,012)	4.1
성별							
남성	0.5	4.3	19.5	45.4	30.4	100.0 (441)	4.0
여성	0.0	0.7	12.8	55.9	30.6	100.0 (571)	4.2
$\chi^2(df) / t$			29.356(4)***				-3.2**
응답자 연령							
20대	0.0	3.4	17.2	48.3	31.0	100.0 (29)	4.1
30대	0.0	2.1	15.7	53.8	28.4	100.0 (567)	4.1
40대 이상	0.5	2.4	15.6	48.1	33.4	100.0 (416)	4.1
$\chi^2(df) / F$			6.742(8)				0.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0	2.5	14.4	54.3	28.8	100.0 (403)	4.1
유아(3~5세)	0.3	2.1	16.6	49.3	31.7	100.0 (609)	4.1
$\chi^2(df) / t$			4.086(4)				-0.1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0	1.0	22.8	49.5	26.7	100.0 (101)	4.0
대졸(3년제 이하)	0.6	2.8	16.2	48.0	32.4	100.0 (179)	4.1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 은 편	보통	중요한 편	매우 중요	계	평균
대졸(4년제)	0.2	2.3	15.3	52.8	29.3	100.0 (600)	4.1
대학원 이상	0.0	2.3	11.4	50.0	36.4	100.0 (132)	4.2
$\chi^2(df) / F$			10.686(12)				1.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기후변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 증가 등 공기 질 악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7.5%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지형 변화’ 23.0%, ‘개화 시기 변화나 재배 곡물·과일 변화’ 10.7%, ‘신종 감염병 증가’ 9.7%, ‘동식물 멸종 등 생물 다양성 감소’ 8.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 응답에서는 ‘신종 감염병 증가’가 6.8%로 가장 낮으나, 어머니의 응답에서는 ‘동식물 멸종 등 생물 다양성 감소’가 6.5%로 가장 낮다.

〈표 III-1-7〉 기후변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단위: %(명)

구분	온실가스 증가 등 공기 질 악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지형 변화	개화 시기 변화나 재배 곡물·과일 변화	동식물 멸종 등 생물 다양성 감소	신종 감염병 증가	기타	계
전체	47.5	23.0	10.7	8.4	9.7	0.7	100.0 (1,012)
성별							
남성	47.6	23.6	10.4	10.9	6.8	0.7	100.0 (441)
여성	47.5	22.6	10.9	6.5	11.9	0.7	100.0 (571)
$\chi^2(df)$			12.598(5)*				
응답자 연령							
20대	55.2	13.8	10.3	10.3	10.3	0.0	100.0 (29)
30대	45.9	24.2	10.8	7.8	10.6	0.9	100.0 (567)
40대 이상	49.3	22.1	10.6	9.1	8.4	0.5	100.0 (416)
$\chi^2(df)$			5.128(10)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48.1	21.6	10.4	9.4	9.4	1.0	100.0 (403)
유아(3~5세)	47.1	24.0	10.8	7.7	9.9	0.5	100.0 (609)
$\chi^2(df)$			2.458(5)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5.5	24.8	9.9	5.0	14.9	0.0	100.0 (101)
대졸(3년제 이하)	50.3	23.5	10.1	5.6	10.6	0.0	100.0 (179)
대졸(4년제)	45.8	23.0	11.8	8.7	9.7	1.0	100.0 (600)
대학원 이상	53.0	21.2	6.8	13.6	4.5	0.8	100.0 (132)
$\chi^2(df)$			21.413(1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다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녀 세대의 피해 예측에 관하여 물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녀 세대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이 93.5%(다소 피해를 볼 것 46.5%, 매우 큰 피해를 볼 것 47.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 세대가 보게 될 피해를 우려하였다(평균 4.4점/5점 만점). 반대로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0.7%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 세대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은 어머니가 95.6%(다소 피해를 볼 것 44.8%, 매우 큰 피해를 볼 것 50.8%)로 아버지(91.0%)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매우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I-1-8〉 기후변화로 인한 자녀 세대 피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피해 보지 않을 것	거의 피해 보지 않을 것	보통	다소 피해 볼 것	매우 큰 피해 볼 것	계	평균
전체	0.0	0.7	5.7	46.5	47.0	100.0 (1,012)	4.4
성별							
남성	0.0	1.4	7.7	48.8	42.2	100.0 (441)	4.3
여성	0.0	0.2	4.2	44.8	50.8	100.0 (571)	4.5
$\chi^2(df) / t$			15.137(3)**				-3.7***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0	1.0	5.7	49.9	43.4	100.0 (403)	4.4
유아(3~5세)	0.0	0.5	5.7	44.3	49.4	100.0 (609)	4.4
$\chi^2(df) / t$			4.334(3)				-1.7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2.6	4.3	48.3	44.8	100.0 (116)	4.4
300만~400만 원 미만	0.0	0.5	4.6	47.0	47.9	100.0 (219)	4.4
400만~500만 원 미만	0.0	0.5	6.9	48.5	44.1	100.0 (202)	4.4
500만~600만 원 미만	0.0	0.6	7.4	42.3	49.7	100.0 (163)	4.4
600만~700만 원 미만	0.0	0.0	3.3	52.5	44.2	100.0 (120)	4.4
700만 원 이상	0.0	0.5	6.8	42.7	50.0	100.0 (192)	4.4
$\chi^2(df) / F$			14.739(15)				0.4
지역 구분							
대도시	0.0	0.3	8.6	45.6	45.6	100.0 (395)	4.4
중소도시	0.0	1.3	3.5	47.4	47.8	100.0 (456)	4.4
농어촌	0.0	0.0	5.0	46.6	48.4	100.0 (161)	4.4
$\chi^2(df) / F$			15.028(6)*				1.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기후변화로 인해 자녀를 비롯한 미래세대가 향후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4%로 가장 높으며 ‘고용 및 경제활동’ 7.0%, ‘주거’ 5.7%, ‘교육’ 2.3%, ‘문화 활동’ 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응답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건강 다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영역으로 20대 응답자는 ‘교육’(10.3%)을, 30대는 ‘주거’(7.1%)를, 40대는 ‘고용 및 경제활동’(8.9%)을 꼽았다.

〈표 III-1-9〉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 영역

단위: %(명)

구분	건강	교육	고용 및 경제활동	주거	문화 활동	기타	계
전체	83.4	2.3	7.0	5.7	1.1	0.5	100.0 (1,012)
성별							
남성	80.3	3.2	9.1	5.4	1.8	0.2	100.0 (441)
여성	85.8	1.6	5.4	6.0	0.5	0.7	100.0 (571)
$\chi^2(df)$			13.462(5)*				
응답자 연령							
20대	75.9	10.3	6.9	6.9	0.0	0.0	100.0 (29)
30대	84.0	1.9	5.6	7.1	0.7	0.7	100.0 (567)
40대 이상	83.2	2.2	8.9	3.8	1.7	0.2	100.0 (416)
$\chi^2(df)$			20.459(10)*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83.1	2.2	5.5	7.4	1.5	0.2	100.0 (403)
유아(3~5세)	83.6	2.3	8.0	4.6	0.8	0.7	100.0 (609)
$\chi^2(df)$			7.567(5)				
지역 구분							
대도시	83.8	3.0	6.6	5.1	1.3	0.3	100.0 (395)
중소도시	82.9	1.5	7.7	6.4	0.9	0.7	100.0 (456)
농어촌	83.9	2.5	6.2	5.6	1.2	0.6	100.0 (161)
$\chi^2(df)$			4.432(10)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83.2	4.0	6.9	5.0	0.0	1.0	100.0 (101)
대졸(3년제 이하)	81.6	2.2	8.4	5.0	2.2	0.6	100.0 (179)
대졸(4년제)	82.8	2.2	7.2	6.5	1.0	0.3	100.0 (600)
대학원 이상	88.6	1.5	4.5	3.8	0.8	0.8	100.0 (132)
$\chi^2(df)$			10.012(1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2. 기후변화 경험 및 양육 환경

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경험

응답자 가구에 최근 3년 동안 기후변화(더위, 한파, 홍수, 가뭄, 화재, 미세먼지 등)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8.3%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2세와 3세인 경우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7.7%로 가장 높으며, 1세인 경우는 5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기후변화 피해가 각각 60% 이상(대도시 60.5%, 중소도시 63.8%)인 것에 비하여 농어촌은 58.4%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III-1-10〉 최근 3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61.7	38.3	100.0	(1,012)
성별				
남성	54.2	45.8	100.0	(441)
여성	67.4	32.6	100.0	(571)
$\chi^2(df)$	18.424(1)***			
자녀 연령				
0세	59.6	40.4	100.0	(94)
1세	51.7	48.3	100.0	(145)
2세	67.7	32.3	100.0	(164)
3세	67.7	32.3	100.0	(189)
4세	57.3	42.7	100.0	(206)
5세	63.6	36.4	100.0	(214)
$\chi^2(df)$	13.680(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1.2	38.8	100.0	(116)
300만~400만 원	65.8	34.2	100.0	(219)
400만~500만 원	60.4	39.6	100.0	(202)
500만~600만 원	62.0	38.0	100.0	(163)
600만~700만 원	62.5	37.5	100.0	(120)
700만 원 이상	57.8	42.2	100.0	(192)
$\chi^2(df)$	2.943(5)			

구분	있다	없다	계	
지역 구분				
대도시	60.5	39.5	100.0	(395)
중소도시	63.8	36.2	100.0	(456)
농어촌	58.4	41.6	100.0	(161)
$\chi^2(df)$	1.849(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최근 3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부모 624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별 피해 정도를 물었다.

먼저 ‘더위(이상 고온)’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0.5%(심각함 57.5%, 매우 심각함 13.0%), 보통이라는 응답이 22.0%,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5%(전혀 심각하지 않음 0.3%, 심각하지 않음 3.2%)로 나타났다(평균 3.8점/5점 만점).

‘한파(이상 저온, 냉해 등)’ 피해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52.7%(심각함 44.4%, 매우 심각함 8.3%), 보통이라는 응답이 35.1%,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6.9%(전혀 심각하지 않음 0.8%, 심각하지 않음 6.1%)로 나타났다(평균 3.6점/5점 만점).

‘홍수’에 따른 피해 정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4.3%, 심각하다는 응답이 32.2%(심각함 25.0%, 매우 심각함 7.2%),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16.6%(전혀 심각하지 않음 3.0%, 심각하지 않음 13.6%)로 나타났다(평균 3.2점/5점 만점).

다음으로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45.1%(심각함 33.7%, 매우 심각함 11.4%), 보통이라는 응답이 26.9%,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12.2%(전혀 심각하지 않음 2.9%, 심각하지 않음 9.3%)로 나타났다(평균 3.5점/5점 만점).

‘화재’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35.6%(심각함 27.1%, 매우 심각함 8.5%), 보통이라는 응답이 29.2%,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15.9%(전혀 심각하지 않음 2.4%, 심각하지 않음 13.5%)로 나타났다(평균 3.3점/5점 만점).

기후변화 유형별 피해 정도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1.8%(심각함 27.2%, 매우 심각함 64.6%)로 매우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6.6%,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3%(전혀 심각하지 않음 0.2%, 심각하지 않음 1.1%)로 나타났다(평균 4.6점/5점 만점).

이상의 응답을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하면 ‘미세먼지’가 평균 4.6점으로 피해 정도가 가장 심하며, 그다음은 ‘더위(이상 고온)’ 3.8점, ‘한파(이상 저온, 냉해 등)’ 3.6점, ‘가뭄’ 3.5점, ‘화재’ 3.3점, ‘홍수’ 3.2점 순이다.

〈표 III-1-11〉 피해 유형별 피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1+2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심각함	매우 심각함	해당 없음	4+5	계	평균
		1	2	3	4	5				
1. 더위(이상 고온)	3.5	0.3	3.2	22.0	57.5	13.0	4.0	70.5	100.0 (624)	3.8
2. 한파(이상 저온, 냉해 등)	6.9	0.8	6.1	35.1	44.4	8.3	5.3	52.7	100.0 (624)	3.6
3. 홍수	16.6	3.0	13.6	34.3	25.0	7.2	16.8	32.2	100.0 (624)	3.2
4. 가뭄	12.2	2.9	9.3	26.9	33.7	11.4	15.9	45.1	100.0 (624)	3.5
5. 화재	15.9	2.4	13.5	29.2	27.1	8.5	19.4	35.6	100.0 (624)	3.3
6. 미세먼지	1.3	0.2	1.1	6.6	27.2	64.6	0.3	91.8	100.0 (624)	4.6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나. 거주 주택 안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모 중 45.0%가 보통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한 편이라는 응답은 31.6%(안전한 편이다 30.2%, 매우 안전하다 1.4%),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3.4%(전혀 안전하지 않다 2.2%,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21.2%)이다(평균 3.1점/5점 만점).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가구 소득별 700만 원 이상인 부모, 최종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부모가 현재 거주 주택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2〉 거주 주택의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전하 지 않음	안전하지 않은 편	보통	안전한 편	매우 안전	계	평균
전체	2.2	21.2	45.0	30.2	1.4	100.0 (1,012)	3.1
성별							
남성	1.8	16.3	43.5	36.3	2.0	100.0 (441)	3.2
여성	2.5	25.0	46.1	25.6	0.9	100.0 (571)	3.0
$\chi^2(df) / t$			21.602(4)***				4.5***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2.2	20.6	42.7	33.0	1.5	100.0 (403)	3.1
유아(3~5세)	2.1	21.7	46.5	28.4	1.3	100.0 (609)	3.1
$\chi^2(df) / t$			2.666(4)				1.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4	23.3	44.0	28.4	0.9	100.0 (116)	3.0
300만~400만 원	1.4	24.2	50.7	22.4	1.4	100.0 (219)	3.0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은 편	보통	안전한 편	매우 안전	계	평균
미만							
400만~500만 원	2.5	23.3	40.1	34.2	0.0	100.0 (202)	3.1
미만							
500만~600만 원	2.5	22.7	42.3	31.3	1.2	100.0 (163)	3.1
미만							
600만~700만 원	2.5	14.2	58.3	23.3	1.7	100.0 (120)	3.1
미만							
700만 원 이상	1.6	17.7	38.0	39.6	3.1	100.0 (192)	3.3
$\chi^2(df) / F$			37.907(20)**				2.6*(a)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0	22.8	54.5	20.8	1.0	100.0 (101)	3.0
대졸(3년제 이하)	3.4	25.7	48.0	21.8	1.1	100.0 (179)	2.9
대졸(4년제)	1.7	20.2	43.3	33.7	1.2	100.0 (600)	3.1
대학원 이상	3.8	18.9	40.9	33.3	3.0	100.0 (132)	3.1
$\chi^2(df) / F$			22.720(12)*				3.8*(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상태를 질문한 결과 ‘바닥이나 벽이 축축하다(습기가 많다)’라는 응답이 19.2%로 가장 많으며, ‘집이 어둡다’ 15.2%, ‘천장에서 물이 샌다’ 6.1%, ‘난방 기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5.9%, ‘냉방 기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4.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습기와 채광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1-13〉 거주 주택의 상태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요	계
1. 냉방 기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4.2	95.8	100.0 (1,012)
2. 난방 기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5.9	94.1	100.0 (1,012)
3. 천장에서 물이 샌다	6.1	93.9	100.0 (1,012)
4. 바닥이나 벽이 축축하다(습기가 많다)	19.2	80.8	100.0 (1,012)
5. 집이 어둡다	15.2	84.8	100.0 (1,0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다. 자녀 건강 상태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67.0% (좋은 편 55.1%, 매우 좋음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은 30.3%, 나쁘다는 2.7%(매우 나쁨 0.1%, 나쁜 편 2.6%)이다(평균 3.8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생 부모보다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가구 소득 600만 원 이상인 부모가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1-14〉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나쁨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음	계	평균
전체	0.1	2.6	30.3	55.1	11.9	100.0 (1,012)	3.8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2	1.5	27.5	57.3	13.4	100.0 (403)	3.8
유아(3~5세)	0.0	3.3	32.2	53.7	10.8	100.0 (609)	3.7
$\chi^2(df) / t$			8.196(4)				2.3*
기관 구분							
유치원	0.0	3.2	32.9	52.4	11.5	100.0 (340)	3.7
어린이집	0.0	2.3	30.2	56.8	10.7	100.0 (569)	3.8
기타	1.0	1.9	22.3	55.3	19.4	100.0 (103)	3.9
$\chi^2(df) / t$			19.069(8)*				2.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3.4	33.6	51.7	11.2	100.0 (116)	3.7
300만~400만 원	0.0	3.2	35.2	52.5	9.1	100.0 (219)	3.7
400만~500만 원	0.0	4.5	27.7	59.4	8.4	100.0 (202)	3.7
500만~600만 원	0.6	1.8	35.6	49.1	12.9	100.0 (163)	3.7
600만~700만 원	0.0	0.0	27.5	56.7	15.8	100.0 (120)	3.9
700만 원 이상	0.0	1.6	22.9	59.9	15.6	100.0 (192)	3.9
$\chi^2(df) / F$			31.280(20)				3.4**(a)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0	5.0	39.6	45.5	9.9	100.0 (101)	3.6
대졸(3년제 이하)	0.0	3.4	30.7	57.5	8.4	100.0 (179)	3.7
대졸(4년제)	0.2	2.3	28.3	56.0	13.2	100.0 (600)	3.8
대학원 이상	0.0	0.8	31.8	55.3	12.1	100.0 (132)	3.8
$\chi^2(df) / F$			13.898(12)				2.7*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기후변화가 자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60.1%(매우 영향 미침 9.9%, 약간 영향 미침 50.2%), 보통이라는 응답은 29.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10.9%(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10.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0.5%)로 나타났다(평균 3.6점/5점 만점).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 연령별로는 3세아의 부모가, 이용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기후변화가 자녀의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III-1-15〉 기후변화가 자녀 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음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음	보통	약간 영향 미침	매우 영향 미침	계	평균
전체	0.5	10.4	29.1	50.2	9.9	100.0 (1,012)	3.6
성별							
남성	0.5	14.5	29.3	45.4	10.4	100.0 (441)	3.5
여성	0.5	7.2	28.9	53.9	9.5	100.0 (571)	3.6
$\chi^2(df) / t$			16.825(4)**				-2.6**
응답자 연령							
20대	0.0	13.8	34.5	41.4	10.3	100.0 (29)	3.5
30대	0.7	9.3	29.8	50.3	9.9	100.0 (567)	3.6
40대 이상	0.2	11.5	27.6	50.7	9.9	100.0 (416)	3.6
$\chi^2(df) / F$			3.813(8)				0.2
자녀 연령							
0세	3.2	10.6	30.9	48.9	6.4	100.0 (94)	3.4
1세	0.0	15.2	26.9	49.0	9.0	100.0 (145)	3.5
2세	0.0	7.9	31.1	50.6	10.4	100.0 (164)	3.6
3세	0.5	6.9	24.3	56.6	11.6	100.0 (189)	3.7
4세	0.5	8.3	34.0	47.6	9.7	100.0 (206)	3.6
5세	0.0	14.0	27.6	48.1	10.3	100.0 (214)	3.5
$\chi^2(df) / F$			34.417(20)*				2.0(a)
기관 구분							
유치원	0.0	10.6	28.2	50.9	10.3	100.0 (340)	3.6
어린이집	0.5	9.3	27.9	51.7	10.5	100.0 (569)	3.6
기타	1.9	15.5	37.9	39.8	4.9	100.0 (103)	3.3
$\chi^2(df) / F$			17.846(8)*				7.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기후변화가 자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 608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영유아 자녀에게서 발병한 질환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호흡기 질환이 78.6%로 가장 높고, 피부 질환 17.9%, 소화기 질환과 기타 1.3%, 신체 운동 장애 0.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0세에서 다른 연령보다 소화기 질환이 5.8%로 높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피부 질환의 비율이 23.5%로 중소도시와 농어촌보다 높다.

〈표 III-1-16〉 기후변화로 인해 나빠진 자녀 증상

단위: %(명)

구분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소화기 질환	신체 운동 장애	기타	계
전체	78.6	17.9	1.3	0.8	1.3	100.0 (608)
응답자 연령						
20대	80.0	20.0	0.0	0.0	0.0	100.0 (15)

구분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소화기 질환	신체 운동 장애	기타	계	
30대	80.4	16.7	1.2	0.3	1.5	100.0	(341)
40대 이상	76.2	19.4	1.6	1.6	1.2	100.0	(252)
$\chi^2(df)$			4.716(8)				
자녀 연령							
0세	69.2	23.1	5.8	0.0	1.9	100.0	(52)
1세	79.8	17.9	0.0	0.0	2.4	100.0	(84)
2세	80.0	17.0	1.0	2.0	0.0	100.0	(100)
3세	84.5	11.6	0.0	1.6	2.3	100.0	(129)
4세	83.1	13.6	1.7	0.8	0.8	100.0	(118)
5세	70.4	27.2	1.6	0.0	0.8	100.0	(125)
$\chi^2(df)$			32.703(2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3.8	13.2	1.5	1.5	0.0	100.0	(68)
300만~400만 원	80.0	17.7	0.8	0.8	0.8	100.0	(130)
400만~500만 원	78.4	18.4	1.6	0.8	0.8	100.0	(125)
500만~600만 원	83.5	13.8	1.8	0.0	0.9	100.0	(109)
600만~700만 원	73.2	19.7	1.4	0.0	5.6	100.0	(71)
700만 원 이상	72.4	23.8	1.0	1.9	1.0	100.0	(105)
$\chi^2(df)$			21.226(20)				
지역 구분							
대도시	70.9	23.5	1.7	0.9	3.0	100.0	(234)
중소도시	84.0	14.2	0.7	0.7	0.4	100.0	(268)
농어촌	82.1	15.1	1.9	0.9	0.0	100.0	(106)
$\chi^2(df)$			18.959(8)*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3. 기후변화 감수성, 실천 역량 및 지식

가. 기후변화 감수성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감수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항목의 긍정 응답률은 86.6%이고, 평균 4.3점으로 가장 높다.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긍정 응답률 80.3%),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긍정 응답률 79.9%),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럽다’(긍정 응답률 77.6%)의 항목은 평균 4.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긍정 응답률 64.8%, 평균 3.6점/5점 만점),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긍정 응답률 54.2%, 평균 3.5점/5점 만점),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긍정 응답률 52.9%)에 대한 항목은 평균 3.5점(5점 만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표 III-1-17〉 기후변화 감수성(종합 표)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이다	보통 3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	평균
		1	2		4	5			
1.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5.1	0.7	4.4	30.0	59.0	5.8	64.8	100.0 (1,012)	3.6
2.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9.7	0.8	8.9	37.4	46.6	6.3	52.9	100.0 (1,012)	3.5
3.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9.0	0.7	8.3	36.8	49.3	4.9	54.2	100.0 (1,012)	3.5
4.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5.0	0.5	4.5	14.6	57.7	22.6	80.3	100.0 (1,012)	4.0
5.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럽다	3.2	0.4	2.8	19.3	51.9	25.7	77.6	100.0 (1,012)	4.0
6.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8	0.6	4.2	15.2	57.3	22.6	79.9	100.0 (1,012)	4.0
7.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9.9	1.5	8.4	31.0	47.0	12.1	59.1	100.0 (1,012)	3.6
8.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3.5	0.2	3.3	19.2	58.4	19.0	77.4	100.0 (1,012)	3.9
9.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1.4	0.4	1.0	12.1	45.6	41.0	86.6	100.0 (1,012)	4.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기후변화 감수성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4.8%(그런 편이다 59.0%, 매우 그렇다 5.8%)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0.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1%(전혀 그렇지 않다 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4.4%)로 나타났다(평균 3.6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아 부모보다는 유아 부모가, 가구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III-1-18〉 기후변화 감수성-1.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7	4.4	30.0	59.0	5.8	100.0 (1,012)	3.6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0	6.7	31.8	54.8	5.7	100.0 (403)	3.6
유아(3~5세)	0.5	3.0	28.9	61.7	5.9	100.0 (609)	3.7
$\chi^2(df) / t$			11.159(4)*				-2.7**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9	6.0	40.5	47.4	5.2	100.0 (116)	3.5
300만~400만 원	0.9	2.7	31.5	60.3	4.6	100.0 (219)	3.6
400만~500만 원	0.5	8.9	30.2	53.5	6.9	100.0 (202)	3.6
500만~600만 원	0.6	3.1	28.2	65.6	2.5	100.0 (163)	3.7
600만~700만 원	0.0	2.5	31.7	58.3	7.5	100.0 (120)	3.7
700만 원 이상	1.0	3.1	22.4	65.1	8.3	100.0 (192)	3.8
$\chi^2(df) / F$			36.660(20)*				2.9*(a)
지역 구분							
대도시	0.8	4.3	29.6	59.5	5.8	100.0 (395)	3.7
중소도시	0.7	3.7	30.9	59.2	5.5	100.0 (456)	3.7
농어촌	0.6	6.8	28.6	57.1	6.8	100.0 (161)	3.6
$\chi^2(df) / F$			3.396(8)				0.1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0	6.9	40.6	44.6	5.0	100.0 (101)	3.4
대졸(3년제 이하)	0.6	5.6	38.5	50.3	5.0	100.0 (179)	3.5
대졸(4년제)	0.3	4.2	26.8	63.5	5.2	100.0 (600)	3.7
대학원 이상	0.8	2.3	25.0	61.4	10.6	100.0 (132)	3.8
$\chi^2(df) / F$			37.425(12)***				8.1***(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그런 편이다 46.6%, 매우 그렇다 6.3%)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7.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7%(전혀 그렇지 않다 0.8%, 그렇지 않은 편이다 8.9%)로 나타났다(평균 3.5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영아 부모보다는 유아 부모가, 가구 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III-1-19〉 기후변화 감수성-2.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를 알고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8	8.9	37.4	46.6	6.3	100.0 (1,012)	3.5
성별							
남성	1.4	7.5	32.7	51.7	6.8	100.0 (441)	3.6
여성	0.4	10.0	41.0	42.7	6.0	100.0 (571)	3.4
$\chi^2(df) / t$			14.155(4)**				2.3*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0	12.4	36.2	43.4	6.9	100.0 (403)	3.4
유아(3~5세)	0.7	6.6	38.1	48.8	5.9	100.0 (609)	3.5
$\chi^2(df) / t$			11.766(4)*				-1.9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16.4	50.9	29.3	3.4	100.0 (116)	3.2
300만~400만 원	1.4	6.8	37.4	47.9	6.4	100.0 (219)	3.5
400만~500만 원	1.5	9.4	39.1	42.6	7.4	100.0 (202)	3.5
500만~600만 원	0.0	5.5	38.7	51.5	4.3	100.0 (163)	3.5
600만~700만 원	0.0	11.7	33.3	49.2	5.8	100.0 (120)	3.5
700만 원 이상	1.0	7.3	28.6	54.2	8.9	100.0 (192)	3.6
$\chi^2(df) / F$			44.424(20)**				4.8***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0	15.8	50.5	28.7	3.0	100.0 (101)	3.1
대졸(3년제 이하)	1.1	13.4	43.0	39.1	3.4	100.0 (179)	3.3
대졸(4년제)	0.5	6.8	35.8	50.3	6.5	100.0 (600)	3.6
대학원 이상	0.8	6.8	26.5	53.8	12.1	100.0 (132)	3.7
$\chi^2(df) / F$			50.188(12)***				15.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4.2% (그런 편이다 49.3%, 매우 그렇다 4.9%)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6.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0%(전혀 그렇지 않다 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8.3%)로 나타났다(평균 3.5점/5점 만점). 최종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부모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20〉 기후변화 감수성-3.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7	8.3	36.8	49.3	4.9	100.0 (1,012)	3.5
응답자 연령							
20대	0.0	10.3	41.4	41.4	6.9	100.0 (29)	3.4
30대	0.9	7.9	38.6	48.0	4.6	100.0 (567)	3.5
40대 이상	0.5	8.7	33.9	51.7	5.3	100.0 (416)	3.5
$\chi^2(df) / F$			4.219(8)				0.6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2	9.7	35.7	48.4	5.0	100.0 (403)	3.5
유아(3~5세)	0.3	7.4	37.4	49.9	4.9	100.0 (609)	3.5
$\chi^2(df) / t$			4.756(4)				-1.2
지역 구분							
대도시	0.3	8.6	35.4	51.6	4.1	100.0 (395)	3.5
중소도시	1.1	7.7	37.9	48.0	5.3	100.0 (456)	3.5
농어촌	0.6	9.3	36.6	47.2	6.2	100.0 (161)	3.5
$\chi^2(df) / F$			4.999(8)				0.1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0	9.9	51.5	34.7	2.0	100.0 (101)	3.2
대졸(3년제 이하)	1.1	11.2	37.4	42.5	7.8	100.0 (179)	3.4
대졸(4년제)	0.3	7.7	35.5	52.8	3.7	100.0 (600)	3.5
대학원 이상	0.8	6.1	30.3	53.8	9.1	100.0 (132)	3.6
$\chi^2(df) / F$			34.453(12)**				6.0*** (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0.3%(그런 편이다 57.7%, 매우 그렇다 22.6%)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4.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0%(전혀 그렇지 않다 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로 나타났다(평균 4.0점/5점 만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응답자가, 거주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21〉 기후변화 감수성-4.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5	4.5	14.6	57.7	22.6	100.0 (1,012)	4.0
성별							
남성	0.9	6.3	16.8	57.1	18.8	100.0 (441)	3.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여성	0.2	3.2	13.0	58.1	25.6	100.0 (571)	4.1
$\chi^2(df) / t$			15.826(4)**				-3.9***
응답자 연령							
20대	0.0	6.9	17.2	58.6	17.2	100.0 (29)	3.9
30대	0.7	5.1	14.3	55.7	24.2	100.0 (567)	4.0
40대 이상	0.2	3.6	14.9	60.3	20.9	100.0 (416)	4.0
$\chi^2(df) / F$			5.353(8)				0.3
지역 구분							
대도시	0.0	4.6	15.9	57.7	21.8	100.0 (395)	4.0
중소도시	0.7	4.2	13.4	61.4	20.4	100.0 (456)	4.0
농어촌	1.2	5.6	14.9	47.2	31.1	100.0 (161)	4.0
$\chi^2(df) / F$			15.865(8)*				0.2(a)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0	7.9	19.8	53.5	17.8	100.0 (101)	3.8
대졸(3년제 이하)	0.0	6.1	21.2	50.3	22.3	100.0 (179)	3.9
대졸(4년제)	0.7	3.8	12.7	59.8	23.0	100.0 (600)	4.0
대학원 이상	0.0	3.0	10.6	61.4	25.0	100.0 (132)	4.1
$\chi^2(df) / F$			21.701(12)*				3.9**(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럽다’라는 응답 비율은 77.6%(그런 편이다 51.9%, 매우 그렇다 25.7%)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9.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2%(전혀 그렇지 않다 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로 나타났다(평균 4.0점/5점 만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응답자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22〉 기후변화 감수성-5.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럽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4	2.8	19.3	51.9	25.7	100.0 (1,012)	4.0
성별							
남성	0.2	4.3	23.1	51.7	20.6	100.0 (441)	3.9
여성	0.5	1.6	16.3	52.0	29.6	100.0 (571)	4.1
$\chi^2(df) / t$			21.104(4)***				-4.2***
응답자 연령							
20대	0.0	3.4	31.0	48.3	17.2	100.0 (29)	3.8
30대	0.5	2.6	19.4	48.3	29.1	100.0 (567)	4.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40대 이상	0.2	2.9	18.3	57.0	21.6	100.0 (416)	4.0
$\chi^2(df) / F$			12.596(8)				1.8(a)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9	5.2	21.6	52.6	19.8	100.0 (116)	3.9
300만~400만 원	0.9	0.9	22.4	47.5	28.3	100.0 (219)	4.0
미만							
400만~500만 원	0.0	2.0	19.8	55.4	22.8	100.0 (202)	4.0
미만							
500만~600만 원	0.6	3.7	19.0	52.8	23.9	100.0 (163)	4.0
미만							
600만~700만 원	0.0	0.8	15.0	56.7	27.5	100.0 (120)	4.1
미만							
700만 원 이상	0.0	4.7	16.7	49.0	29.7	100.0 (192)	4.0
$\chi^2(df) / F$			24.421(20)				1.5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0	3.0	23.8	54.5	17.8	100.0 (101)	3.9
대졸(3년제 이하)	1.1	3.4	21.8	46.4	27.4	100.0 (179)	4.0
대졸(4년제)	0.2	3.2	18.5	52.7	25.5	100.0 (600)	4.0
대학원 이상	0.0	0.0	15.9	53.8	30.3	100.0 (132)	4.1
$\chi^2(df) / F$			16.495(12)				3.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친환경적인 행동 실천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79.9%(그런 편이다 57.3%, 매우 그렇다 22.6%)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5.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8%(전혀 그렇지 않다 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로 나타났다(평균 4.0 점/5점 만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응답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가 친환경적인 행동 실천이 기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23〉 기후변화 감수성-6.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6	4.2	15.2	57.3	22.6	100.0 (1,012)	4.0
성별							
남성	1.1	5.7	18.8	56.2	18.1	100.0 (441)	3.8
여성	0.2	3.2	12.4	58.1	26.1	100.0 (571)	4.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chi^2(df) / t$	21.350(4)***						-4.5***
응답자 연령							
20대	0.0	6.9	27.6	48.3	17.2	100.0 (29)	3.8
30대	0.7	5.5	15.2	53.8	24.9	100.0 (567)	4.0
40대 이상	0.5	2.4	14.4	62.7	20.0	100.0 (416)	4.0
$\chi^2(df) / F$	15.986(8)*						1.3(a)
지역 구분							
대도시	0.0	4.6	15.7	61.0	18.7	100.0 (395)	3.9
중소도시	0.9	4.6	14.5	57.7	22.4	100.0 (456)	4.0
농어촌	1.2	2.5	16.1	47.2	32.9	100.0 (161)	4.1
$\chi^2(df) / F$	19.849(8)*						2.0(a)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0	5.0	18.8	57.4	18.8	100.0 (101)	3.9
대졸(3년제 이하)	1.1	6.1	19.0	48.0	25.7	100.0 (179)	3.9
대졸(4년제)	0.7	3.5	15.2	59.3	21.3	100.0 (600)	4.0
대학원 이상	0.0	4.5	7.6	60.6	27.3	100.0 (132)	4.1
$\chi^2(df) / F$	18.779(12)						2.0(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59.1%(그런 편이다 47.0%, 매우 그렇다 12.1%)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1.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9%(전혀 그렇지 않다 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8.4%)로 나타났다(평균 3.6점/5점 만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응답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영아 부모보다는 유아 부모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24〉 기후변화 감수성-7.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1.5	8.4	31.0	47.0	12.1	100.0 (1,012)	3.6
성별							
남성	2.0	9.8	34.9	42.9	10.4	100.0 (441)	3.5
여성	1.1	7.4	28.0	50.3	13.3	100.0 (571)	3.7
$\chi^2(df) / t$	11.775(4)*						-3.2**
응답자 연령							
20대	0.0	27.6	27.6	31.0	13.8	100.0 (29)	3.3
30대	1.6	10.1	29.6	46.6	12.2	100.0 (567)	3.6
40대 이상	1.4	4.8	33.2	48.8	11.8	100.0 (416)	3.6
$\chi^2(df) / F$	24.493(8)**						2.5(a)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0	11.4	31.3	43.7	12.7	100.0 (403)	3.6
유아(3~5세)	1.8	6.4	30.9	49.3	11.7	100.0 (609)	3.6
$\chi^2(df) / t$			10.154(4)*				-1.2
지역 구분							
대도시	1.3	9.1	29.4	50.4	9.9	100.0 (395)	3.6
중소도시	0.9	8.3	32.2	45.6	12.9	100.0 (456)	3.6
농어촌	3.7	6.8	31.7	42.9	14.9	100.0 (161)	3.6
$\chi^2(df) / F$			12.698(8)				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응답 비율은 77.4%(그런 편 이다 58.4%, 매우 그렇다 19.0%)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9.2%, 그렇지 않다는 응답 은 3.5%(전혀 그렇지 않다 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3%)로 나타났다(평균 3.9점/5점 만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응답자가, 거주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가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25〉 기후변화 감수성-8.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2	3.3	19.2	58.4	19.0	100.0 (1,012)	3.9
성별							
남성	0.5	5.4	23.6	54.2	16.3	100.0 (441)	3.8
여성	0.0	1.6	15.8	61.6	21.0	100.0 (571)	4.0
$\chi^2(df) / t$			27.183(4)***				-4.6***
지역 구분							
대도시	0.0	3.8	21.0	58.2	17.0	100.0 (395)	3.9
중소도시	0.2	3.3	17.1	62.3	17.1	100.0 (456)	3.9
농어촌	0.6	1.9	20.5	47.8	29.2	100.0 (161)	4.0
$\chi^2(df) / F$			20.232(8)**				2.4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0	5.0	23.8	54.5	16.8	100.0 (101)	3.8
대졸(3년제 이하)	0.0	3.9	22.3	53.6	20.1	100.0 (179)	3.9
대졸(4년제)	0.3	3.2	18.0	59.8	18.7	100.0 (600)	3.9
대학원 이상	0.0	1.5	16.7	61.4	20.5	100.0 (132)	4.0
$\chi^2(df) / F$			8.577(12)				1.2(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86.6%(그런 편이다 45.6%, 매우 그렇다 41.0%)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2.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전혀 그렇지 않다 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로 나타났다(평균 4.3점/5점 만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응답자가, 유아 부모보다는 영아 부모가, 최종 학력이 대졸(4년제) 이상인 부모가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26〉 기후변화 감수성-9.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4	1.0	12.1	45.6	41.0	100.0 (1,012)	4.3
성별							
남성	0.7	1.4	14.3	47.2	36.5	100.0 (441)	4.2
여성	0.2	0.7	10.3	44.3	44.5	100.0 (571)	4.3
$\chi^2(df) / t$			10.234(4)*				-3.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5	2.2	10.4	44.7	42.2	100.0 (403)	4.3
유아(3~5세)	0.3	0.2	13.1	46.1	40.2	100.0 (609)	4.3
$\chi^2(df) / t$			12.504(4)*				0.0
지역 구분							
대도시	0.0	0.3	13.2	47.3	39.2	100.0 (395)	4.3
중소도시	0.7	1.5	9.9	46.5	41.4	100.0 (456)	4.3
농어촌	0.6	1.2	15.5	38.5	44.1	100.0 (161)	4.2
$\chi^2(df) / F$			12.849(8)				0.1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0	1.0	19.8	39.6	39.6	100.0 (101)	4.2
대졸(3년제 이하)	1.1	2.2	17.3	36.9	42.5	100.0 (179)	4.2
대졸(4년제)	0.3	0.8	10.2	48.2	40.5	100.0 (600)	4.3
대학원 이상	0.0	0.0	7.6	50.0	42.4	100.0 (132)	4.3
$\chi^2(df) / F$			26.180(12)*				2.0(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나.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비용을 아끼거나 개인의 선호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거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산이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항목의 긍정 응답률은 84.0%이고, 평균 4.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방에서 나갈 때 전기 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긍정 응답률 78.4%) 항목은 평균 4.1점(5점 만점),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받는다’(긍정 응답률 65.3%) 항목은 평균 3.7점(5점 만점) 순이다. 반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긍정 응답률 36.7%)’ 항목은 평균 3.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다.

〈표 III-1-27〉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종합)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	평균
		1	2	3	4	5			
1.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 온도(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16.3	1.2	15.1	24.6	43.3	15.8	59.1	100.0 (1,012)	3.6
2. 방에서 나갈 때 전기 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	6.3	0.5	5.8	15.3	43.0	35.4	78.4	100.0 (1,012)	4.1
3. 물건을 살 때 친환경 마크(저탄소 제품, 친환경 인증 등)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다	19.5	2.8	16.7	44.9	30.5	5.1	35.6	100.0 (1,012)	3.2
4. 과대 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는다	12.2	1.8	10.4	42.6	39.0	6.2	45.2	100.0 (1,012)	3.4
5.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33.3	5.8	27.5	30.0	27.4	9.3	36.7	100.0 (1,012)	3.1
6.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텀블러나 장바구니 등)을 가지고 다닌다	12.7	2.2	10.5	26.3	43.7	17.4	61.1	100.0 (1,012)	3.6
7.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9.4	1.7	7.7	25.3	49.7	15.6	65.3	100.0 (1,012)	3.7
8. 산이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1.9	0.6	1.3	14.1	45.4	38.6	84.0	100.0 (1,012)	4.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환경을 위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59.1%(그런 편이다 43.3%, 항상 그렇다 15.8%)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24.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3%(전혀 그렇지 않다 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1%)로 나타났다(평균 3.6점/5점 만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응답자가, 영아 부모보다는 유아 부모가, 또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환경을 위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28〉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1.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 온도(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전체	1.2	15.1	24.6	43.3	15.8	100.0 (1,012)	3.6
성별							
남성	1.1	15.9	29.0	40.4	13.6	100.0 (441)	3.5
여성	1.2	14.5	21.2	45.5	17.5	100.0 (571)	3.6
$\chi^2(df) / t$			10.459(4)*				-2.3*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7	20.8	23.8	40.9	12.7	100.0 (403)	3.4
유아(3~5세)	0.8	11.3	25.1	44.8	17.9	100.0 (609)	3.7
$\chi^2(df) / t$			21.464(4)***				-4.1***
지역 구분							
대도시	1.0	15.7	23.0	46.1	14.2	100.0 (395)	3.6
중소도시	0.9	14.9	27.0	40.4	16.9	100.0 (456)	3.6
농어촌	2.5	14.3	21.7	44.7	16.8	100.0 (161)	3.6
$\chi^2(df) / F$			7.690(8)				0.0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0	12.9	29.7	38.6	17.8	100.0 (101)	3.6
대졸(3년제 이하)	1.7	16.8	22.3	40.8	18.4	100.0 (179)	3.6
대졸(4년제)	1.3	15.0	25.0	44.0	14.7	100.0 (600)	3.6
대학원 이상	0.0	15.2	22.0	47.0	15.9	100.0 (132)	3.6
$\chi^2(df) / F$			7.371(12)				0.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환경을 위해 방에서 나갈 때 전기 제품을 모두 끈다’라는 응답 비율은 78.4%(그런 편이다 43.0%, 항상 그렇다 35.4%)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5.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3%(전혀 그렇지 않다 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5.8%)로 나타났다(평균 4.1점/5점 만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환경을 위해 방에서 나갈 때 전기 제품을 모두 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29〉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2. 방에서 나갈 때 전기 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5	5.8	15.3	43.0	35.4	100.0 (1,012)	4.1
성별							
남성	1.1	7.9	17.5	42.4	31.1	100.0 (441)	3.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여성	0.0	4.2	13.7	43.4	38.7	100.0 (571)	4.2
$\chi^2(df) / t$			18.934(4)**				-4.0***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2	6.9	18.1	41.7	33.0	100.0 (403)	4.0
유아(3~5세)	0.7	5.1	13.5	43.8	36.9	100.0 (609)	4.1
$\chi^2(df) / t$			7.006(4)				-2.0
지역 구분							
대도시	0.3	6.8	14.4	44.1	34.4	100.0 (395)	4.1
중소도시	0.4	5.0	15.1	43.4	36.0	100.0 (456)	4.1
농어촌	1.2	5.6	18.0	39.1	36.0	100.0 (161)	4.0
$\chi^2(df) / F$			5.322(8)				0.4
응답자 최종 학 력							
고졸 이하	0.0	6.9	20.8	36.6	35.6	100.0 (101)	4.0
대졸(3년제 이하)	0.6	5.0	14.0	43.0	37.4	100.0 (179)	4.1
대졸(4년제)	0.7	5.5	16.8	43.8	33.2	100.0 (600)	4.0
대학원 이상	0.0	7.6	6.1	43.9	42.4	100.0 (132)	4.2
$\chi^2(df) / F$			17.186(12)				1.8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환경을 위해 친환경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다’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9%로 가장 높으며, 구매한다는 응답은 35.6%(그런 편이다 30.5%, 항상 그렇다 5.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9.5%(전혀 그렇지 않다 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7%)로 나타났다(평균 3.2점/5점 만점). 어린이집 원생 부모보다 유치원생 부모가 친환경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30〉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3. 물건을 살 때 친환경 마크(저탄소 제품, 친환경 인증 등)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전체	2.8	16.7	44.9	30.5	5.1	100.0 (1,012)	3.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3.5	18.9	43.9	29.0	4.7	100.0 (403)	3.1
유아(3~5세)	2.3	15.3	45.5	31.5	5.4	100.0 (609)	3.2
$\chi^2(df) / t$			3.940(4)				-1.8
기관 구분							
유치원	2.4	17.4	42.1	31.5	6.8	100.0 (340)	3.2
어린이집	2.1	15.3	48.0	30.2	4.4	100.0 (569)	3.2
기타	7.8	22.3	36.9	29.1	3.9	100.0 (103)	3.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chi^2(df) / t$	19.275(8)*						3.1*(a)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6	21.6	49.1	22.4	4.3	100.0 (116)	3.0
300만~400만 원 미만	3.7	17.4	45.7	29.2	4.1	100.0 (219)	3.1
400만~500만 원 미만	4.0	19.8	44.6	28.2	3.5	100.0 (202)	3.1
500만~600만 원 미만	1.2	17.2	44.2	33.7	3.7	100.0 (163)	3.2
600만~700만 원 미만	0.8	13.3	45.0	35.0	5.8	100.0 (120)	3.3
700만 원 이상	3.1	11.5	42.2	33.9	9.4	100.0 (192)	3.3
$\chi^2(df) / F$	26.674(20)						3.5**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0	21.8	46.5	23.8	3.0	100.0 (101)	3.0
대졸(3년제 이하)	3.4	20.1	44.1	25.7	6.7	100.0 (179)	3.1
대졸(4년제)	2.2	16.3	45.3	31.5	4.7	100.0 (600)	3.2
대학원 이상	3.0	9.8	42.4	37.9	6.8	100.0 (132)	3.4
$\chi^2(df) / F$	17.799(12)						4.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환경을 위해 과대 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2%(그런 편이다 39.0%, 항상 그렇다 6.2%)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2.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2%(전혀 그렇지 않다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4%)로 나타났다(평균 3.4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졸(4년제) 이상의 학력일수록 환경을 위해 과대 포장된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31〉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4. 과대 포장이 된 제품은 사지 않는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전체	1.8	10.4	42.6	39.0	6.2	100.0 (1,012)	3.4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2.2	11.2	43.7	37.5	5.5	100.0 (403)	3.3
유아(3~5세)	1.5	9.9	41.9	40.1	6.7	100.0 (609)	3.4
$\chi^2(df) / t$	2.417(4)						-1.5
월평균 가구 소득							
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300만 원 미만	1.7	13.8	49.1	28.4	6.9	100.0 (116)	3.3
300만~400만 원 미만	3.7	11.9	46.1	33.3	5.0	100.0 (219)	3.2
400만~500만 원 미만	1.0	11.4	41.1	43.6	3.0	100.0 (202)	3.4
500만~600만 원 미만	0.6	11.0	41.7	41.7	4.9	100.0 (163)	3.4
600만~700만 원 미만	0.0	6.7	41.7	42.5	9.2	100.0 (120)	3.5
700만 원 이상	2.6	7.3	37.5	42.7	9.9	100.0 (192)	3.5
$\chi^2(df) / F$			35.540(20)*				3.6**
지역구분							
대도시	3.0	9.9	38.5	41.8	6.8	100.0 (395)	3.4
중소도시	0.9	10.7	45.8	37.9	4.6	100.0 (456)	3.3
농어촌	1.2	10.6	43.5	35.4	9.3	100.0 (161)	3.4
$\chi^2(df) / F$			14.822(8)				0.5(a)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	11.9	46.5	35.6	5.0	100.0 (101)	3.3
대졸(3년제 이하)	2.8	13.4	44.7	33.0	6.1	100.0 (179)	3.3
대졸(4년제)	1.3	9.7	42.7	41.5	4.8	100.0 (600)	3.4
대학원 이상		8.3	36.4	38.6	13.6	100.0 (132)	3.5
$\chi^2(df) / F$	3.0		24.314(12)*				2.6*(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7%(그런 편이다 27.4%, 항상 그렇다 9.3%)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0.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3%(전혀 그렇지 않다 5.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5%)로 나타났다(평균 3.1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 대졸(3년제 이하) 및 대학원 이상 학력의 부모일수록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32〉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5.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전체	5.8	27.5	30.0	27.4	9.3	100.0 (1,012)	3.1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6.7	28.8	31.0	23.6	9.9	100.0 (403)	3.0
유아(3~5세)	5.3	26.6	29.4	29.9	8.9	100.0 (609)	3.1
$\chi^2(df) / t$			5.325(4)				-1.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8	28.4	29.3	25.9	8.6	100.0 (116)	3.0
300만~400만 원 미만	5.5	26.5	27.9	25.1	15.1	100.0 (219)	3.2
400만~500만 원 미만	4.5	26.2	36.1	27.7	5.4	100.0 (202)	3.0
500만~600만 원 미만	8.6	30.1	31.3	26.4	3.7	100.0 (163)	2.9
600만~700만 원 미만	3.3	30.8	30.8	25.8	9.2	100.0 (120)	3.1
700만 원 이상	5.7	25.0	25.0	32.3	12.0	100.0 (192)	3.2
$\chi^2(df) / F$			31.542(20)*				2.4*(a)
지역 구분							
대도시	5.1	24.6	29.1	28.1	13.2	100.0 (395)	3.2
중소도시	3.7	28.3	31.6	28.9	7.5	100.0 (456)	3.1
농어촌	13.7	32.3	28.0	21.1	5.0	100.0 (161)	2.7
$\chi^2(df) / F$			38.271(8)***				11.9***(a)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9.9	35.6	24.8	23.8	5.9	100.0 (101)	2.8
대졸(3년제 이하)	7.8	22.3	30.2	25.1	14.5	100.0 (179)	3.2
대졸(4년제)	5.0	29.0	30.3	28.2	7.5	100.0 (600)	3.0
대학원 이상	3.8	21.2	32.6	29.5	12.9	100.0 (132)	3.3
$\chi^2(df) / F$			25.117(12)*				4.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1% (그런 편이다 43.7%, 항상 그렇다 17.4%)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26.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7%(전혀 그렇지 않다 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5%)로 나타났다(평균 3.6점 / 5점 만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환경을 위한 용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33〉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6.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텀블러나 장바구니 등)을 가지고 다닌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전체	2.2	10.5	26.3	43.7	17.4	100.0 (1,012)	3.6
성별							
남성	3.4	13.8	28.8	39.9	14.1	100.0 (441)	3.5
여성	1.2	7.9	24.3	46.6	20.0	100.0 (571)	3.8
$\chi^2(df) / t$			23.239(4)***				-4.7***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3.0	12.4	25.6	41.7	17.4	100.0 (403)	3.6
유아(3~5세)	1.6	9.2	26.8	45.0	17.4	100.0 (609)	3.7
$\chi^2(df) / t$			5.119(4)				-1.5
지역 구분							
대도시	2.8	10.6	26.1	40.3	20.3	100.0 (395)	3.6
중소도시	1.1	11.0	26.3	47.1	14.5	100.0 (456)	3.6
농어촌	3.7	8.7	26.7	42.2	18.6	100.0 (161)	3.6
$\chi^2(df) / F$			12.147(8)				0.0(a)
응답자 최종 학 력							
고졸 이하	3.0	11.9	30.7	34.7	19.8	100.0 (101)	3.6
대졸(3년제 이하)	2.2	12.3	29.6	36.3	19.6	100.0 (179)	3.6
대졸(4년제)	2.2	10.0	25.8	46.5	15.5	100.0 (600)	3.6
대학원 이상	1.5	9.1	20.5	47.7	21.2	100.0 (132)	3.8
$\chi^2(df) / F$			13.795(12)				1.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환경을 위해 청구서 및 영수증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받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3%(그런 편이다 49.7%, 항상 그렇다 15.6%)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25.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4%(전혀 그렇지 않다 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7.7%)로 나타났다(평균 3.7 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청구서 및 영수증을 전자 형식으로 제공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34〉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7.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전체	1.7	7.7	25.3	49.7	15.6	100.0 (1,012)	3.7
성별							
남성	1.8	9.8	28.1	46.9	13.4	100.0 (441)	3.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여성	1.6	6.1	23.1	51.8	17.3	100.0 (571)	3.8
$\chi^2(df) / t$			10.477(4)*				-3.0**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2.2	10.2	22.1	48.9	16.6	100.0 (403)	3.7
유아(3~5세)	1.3	6.1	27.4	50.2	14.9	100.0 (609)	3.7
$\chi^2(df) / t$			9.767(4)*				-0.7
지역 구분							
대도시	1.8	8.1	24.6	45.8	19.7	100.0 (395)	3.7
중소도시	1.5	6.8	25.2	53.3	13.2	100.0 (456)	3.7
농어촌	1.9	9.3	27.3	49.1	12.4	100.0 (161)	3.6
$\chi^2(df) / F$			11.092(8)				1.2
응답자 최종 학 력							
고졸 이하	2.0	8.9	32.7	34.7	21.8	100.0 (101)	3.7
대졸(3년제 이하)	1.7	7.3	24.0	51.4	15.6	100.0 (179)	3.7
대졸(4년제)	1.7	7.8	25.5	51.5	13.5	100.0 (600)	3.7
대학원 이상	1.5	6.8	20.5	50.8	20.5	100.0 (132)	3.8
$\chi^2(df) / F$			15.265(12)				1.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환경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4.0%(그런 편이다 45.4%, 항상 그렇다 38.6%)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4.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9%(전혀 그렇지 않다 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로 나타났다(평균 4.2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35〉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8. 산이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6	1.3	14.1	45.4	38.6	100.0 (1,012)	4.2
성별							
남성	0.9	1.8	18.6	46.5	32.2	100.0 (441)	4.1
여성	0.4	0.9	10.7	44.5	43.6	100.0 (571)	4.3
$\chi^2(df) / t$			22.629(4)***				-4.7***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0	1.7	13.6	43.7	40.0	100.0 (403)	4.2
유아(3~5세)	0.3	1.0	14.4	46.5	37.8	100.0 (609)	4.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평균
$\chi^2(df) / t$			3.699(4)				-0.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7	1.7	20.7	47.4	28.4	100.0 (116)	4.0
300만~400만 원 미만	0.5	1.8	13.2	42.9	41.6	100.0 (219)	4.2
400만~500만 원 미만	0.5	0.5	15.3	45.0	38.6	100.0 (202)	4.2
500만~600만 원 미만	1.2	1.2	12.9	47.9	36.8	100.0 (163)	4.2
600만~700만 원 미만	0.0	0.0	11.7	45.8	42.5	100.0 (120)	4.3
700만 원 이상	0.0	2.1	12.5	44.8	40.6	100.0 (192)	4.2
$\chi^2(df) / F$			19.678(20)				2.4*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다.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자녀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항목의 긍정 응답률이 66.6%로 가장 높으며,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7점으로 보통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다음으로 '나는 평소 자녀에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긍정 응답률 52.7%) 항목이 평균 3.4점, '나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와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예를 들어 일회용품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에너지 절약 등)'(긍정 응답률 47.6%) 항목이 평균 3.3점, '자녀는 기후변화(환경 파괴 등)와 관련한 얘기를 할 때 미래를 걱정하는 편이다'(긍정 응답률 45.0%) 항목이 평균 3.2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는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긍정 응답률 29.9%)라는 응답은 평균 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1-36〉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종합)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	평균
		1	2	3	4	5			
1. 나는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29.8	8.0	21.8	40.3	27.1	2.8	29.9	100.0 (1,012)	2.9
2. 나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와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예를 들어 일회용품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에너지 절약 등)	21.4	6.4	15.0	30.9	40.6	7.0	47.6	100.0 (1,012)	3.3
3. 나는 평소 자녀에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	15.7	4.5	11.2	31.6	44.2	8.5	52.7	100.0 (1,012)	3.4
4.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6.6	1.8	4.8	26.8	52.8	13.8	66.6	100.0 (1,012)	3.7
5. 자녀는 기후변화(환경 파괴 등)에 대해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다	21.2	6.9	14.3	33.8	37.1	7.9	45.0	100.0 (1,012)	3.2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라는 항목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29.9%(그런 편이다 27.1%, 매우 그렇다 2.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9.8%(전혀 그렇지 않다 8.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8%)로 나타났다(평균 2.9점/5점 만점).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원생 부모보다 유치원생 부모가 자녀와 평소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37〉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역량-1. 나는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8.0	21.8	40.3	27.1	2.8	100.0	(1,012)	2.9
응답자 연령								
20대	17.2	20.7	41.4	20.7	0.0	100.0	(29)	2.7
30대	8.6	22.9	42.0	24.5	1.9	100.0	(567)	2.9
40대 이상	6.5	20.4	38.0	31.0	4.1	100.0	(416)	3.1
$\chi^2(df) / F$			15.240(8)					5.5**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3.9	23.6	38.7	20.8	3.0	100.0	(403)	2.8
유아(3~5세)	4.1	20.7	41.4	31.2	2.6	100.0	(609)	3.1
$\chi^2(df) / t$			40.109(4)***					-5.1***
기관 구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유치원	4.4	20.3	41.2	31.8	2.4	100.0 (340)	3.1
어린이집	8.3	22.8	40.8	25.1	3.0	100.0 (569)	2.9
기타	18.4	21.4	35.0	22.3	2.9	100.0 (103)	2.7
$\chi^2(df) / t$			25.766(8)**				6.8**(a)
지역 구분							
대도시	7.6	23.0	38.7	27.8	2.8	100.0 (395)	3.0
중소도시	7.7	21.7	41.0	27.6	2.0	100.0 (456)	2.9
농어촌	9.9	19.3	42.2	23.6	5.0	100.0 (161)	2.9
$\chi^2(df) / F$			6.814(8)				0.0
응답자 최종 학 력							
고졸 이하	9.9	22.8	43.6	22.8	1.0	100.0 (101)	2.8
대졸(3년제 이하)	9.5	21.2	41.3	24.6	3.4	100.0 (179)	2.9
대졸(4년제)	7.8	23.0	40.3	26.7	2.2	100.0 (600)	2.9
대학원 이상	5.3	16.7	36.4	35.6	6.1	100.0 (132)	3.2
$\chi^2(df) / F$			17.076(12)				4.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와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그런 편이다 40.6%, 매우 그렇다 7.0%)로 가장 높고, 보통은 30.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1.4%(전혀 그렇지 않다 6.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0%)로 나타났다(평균 3.3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원생 부모보다 유치원생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후 문제를 의논하고 대응책을 실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1-38〉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역량-2. 나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와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예를 들어 일회용품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에너지 절약 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6.4	15.0	30.9	40.6	7.0	100.0 (1,012)	3.3
성별							
남성	8.4	17.5	32.0	35.6	6.6	100.0 (441)	3.1
여성	4.9	13.1	30.1	44.5	7.4	100.0 (571)	3.4
$\chi^2(df) / t$			13.133(4)*				-3.4**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1.9	18.4	31.5	32.0	6.2	100.0 (403)	3.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유아(3~5세)	2.8	12.8	30.5	46.3	7.6	100.0 (609)	3.4
$\chi^2(df) / t$			49.288(4)***				-6.1***
기관 구분							
유치원	2.4	12.4	29.4	47.9	7.9	100.0 (340)	3.5
어린이집	6.7	16.7	32.2	38.3	6.2	100.0 (569)	3.2
기타	18.4	14.6	29.1	29.1	8.7	100.0 (103)	3.0
$\chi^2(df) / t$			45.380(8)***				13.1***(a)
응답자 최종 학 력							
고졸 이하	7.9	15.8	39.6	33.7	3.0	100.0 (101)	3.1
대졸(3년제 이하)	5.6	14.5	31.3	39.1	9.5	100.0 (179)	3.3
대졸(4년제)	7.0	16.2	29.7	40.7	6.5	100.0 (600)	3.2
대학원 이상	3.8	9.8	29.5	47.7	9.1	100.0 (132)	3.5
$\chi^2(df) / F$			16.003(12)				3.6*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평소 자녀에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7%(그런 편이다 44.2%, 매우 그렇다 8.5%)로 가장 높고, 보통은 31.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7%(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2%)로 나타났다(평균 3.4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가,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린이집 원생 부모보다 유치원생 부모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1-39〉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역량-3. 나는 평소 자녀에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4.5	11.2	31.6	44.2	8.5	100.0 (1,012)	3.4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9.9	12.9	34.2	35.2	7.7	100.0 (403)	3.2
유아(3~5세)	1.0	10.0	29.9	50.1	9.0	100.0 (609)	3.6
$\chi^2(df) / t$			58.526(4)***				-6.1***
기관 구분							
유치원	0.9	9.1	28.8	51.8	9.4	100.0 (340)	3.6
어린이집	4.6	12.8	32.9	42.4	7.4	100.0 (569)	3.4
기타	16.5	8.7	34.0	29.1	11.7	100.0 (103)	3.1
$\chi^2(df) / t$			59.496(8)***				13.1***(a)
지역 구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대도시	5.1	11.4	29.1	44.3	10.1	100.0 (395)	3.4
중소도시	4.6	11.6	32.5	44.3	7.0	100.0 (456)	3.4
농어촌	3.1	9.3	35.4	43.5	8.7	100.0 (161)	3.5
$\chi^2(df) / F$			5.619(8)				0.6
응답자 최종 학 력							
고졸 이하	4.0	15.8	37.6	35.6	6.9	100.0 (101)	3.3
대졸(3년제 이하)	4.5	11.7	34.6	38.0	11.2	100.0 (179)	3.4
대졸(4년제)	5.2	11.2	30.8	46.0	6.8	100.0 (600)	3.4
대학원 이상	2.3	6.8	26.5	50.8	13.6	100.0 (132)	3.7
$\chi^2(df) / F$			22.043(12)*				4.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6.6%(그런 편이다 52.8%, 매우 그렇다 13.8%)로 가장 높고, 보통은 26.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6%(전혀 그렇지 않다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4.8%)로 나타났다(평균 3.7점/5점 만 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가구 소득과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40〉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역량-4.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1.8	4.8	26.8	52.8	13.8	100.0 (1,012)	3.7
성별							
남성	2.5	6.8	29.0	49.2	12.5	100.0 (441)	3.6
여성	1.2	3.3	25.0	55.5	14.9	100.0 (571)	3.8
$\chi^2(df) / t$			12.856(4)*				-3.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2.7	5.5	27.0	51.6	13.2	100.0 (403)	3.7
유아(3~5세)	1.1	4.4	26.6	53.5	14.3	100.0 (609)	3.8
$\chi^2(df) / t$			4.344(4)				-1.5
월평균 가구 소 득							
300만 원 미만	0.9	6.0	41.4	37.1	14.7	100.0 (116)	3.6
300만~400만 원 미만	3.7	4.6	31.5	47.0	13.2	100.0 (219)	3.6
400만~500만 원 미만	1.5	4.5	28.2	56.9	8.9	100.0 (202)	3.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500만~600만 원 미만	0.6	6.7	22.1	58.3	12.3	100.0 (163)	3.7
600만~700만 원 미만	2.5	2.5	20.0	57.5	17.5	100.0 (120)	3.9
700만 원 이상	1.0	4.7	19.3	56.8	18.2	100.0 (192)	3.9
$\chi^2(df) / F$			46.107(20)**				3.3**(a)
지역 구분							
대도시	1.8	4.8	26.3	53.2	13.9	100.0 (395)	3.7
중소도시	1.5	3.9	28.3	51.8	14.5	100.0 (456)	3.7
농어촌	2.5	7.5	23.6	54.7	11.8	100.0 (161)	3.7
$\chi^2(df) / F$			5.478(8)				0.6
응답자 최종 학 력							
고졸 이하	2.0	5.0	43.6	40.6	8.9	100.0 (101)	3.5
대졸(3년제 이하)	2.2	7.3	29.6	45.8	15.1	100.0 (179)	3.6
대졸(4년제)	1.8	4.5	24.7	55.7	13.3	100.0 (600)	3.7
대학원 이상	0.8	3.0	19.7	58.3	18.2	100.0 (132)	3.9
$\chi^2(df) / F$			28.952(12)**				5.4**(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기후변화에 대해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0%(그런 편이다 37.1%, 매우 그렇다 7.9%)로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1.2%(전혀 그렇지 않다 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3%)로 나타났다(평균 3.2점/5점 만점).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기후변화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41〉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역량-5. 자녀는 기후변화(환경 파괴 등)에 대해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6.9	14.3	33.8	37.1	7.9	100.0 (1,012)	3.2
성별							
남성	6.6	17.7	37.2	32.9	5.7	100.0 (441)	3.1
여성	7.2	11.7	31.2	40.3	9.6	100.0 (571)	3.3
$\chi^2(df) / t$			17.572(4)**				-3.1**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3.4	13.4	35.0	30.3	7.9	100.0 (403)	3.1
유아(3~5세)	2.6	14.9	33.0	41.5	7.9	100.0 (609)	3.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chi^2(df) / t$	49.685(4)***						-4.6***
기관 구분							
유치원	1.8	15.3	34.4	40.6	7.9	100.0 (340)	3.4
어린이집	7.4	14.8	33.6	36.6	7.7	100.0 (569)	3.2
기타	21.4	8.7	33.0	28.2	8.7	100.0 (103)	2.9
$\chi^2(df) / t$	50.391(8)***						7.5**(a)
응답자 최종 학 력							
고졸 이하	10.9	15.8	40.6	28.7	4.0	100.0 (101)	3.0
대졸(3년제 이하)	6.1	16.2	31.3	38.0	8.4	100.0 (179)	3.3
대졸(4년제)	7.3	14.3	33.5	38.0	6.8	100.0 (600)	3.2
대학원 이상	3.0	10.6	33.3	37.9	15.2	100.0 (132)	3.5
$\chi^2(df) / F$	22.895(12)*						5.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부모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유무와 부모가 활동할 때 자녀와 함께 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 중 ‘기후변화 관련 가족 간 의사소통’의 활동이 53.9%로 가장 많고,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유튜브, SNS 등)’가 51.2%로 높다. 반면 ‘기후변화 관련 봉사 활동’은 13.8%로 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활동 경험이 있는 부모 중 자녀와 함께 한 활동은 ‘기후변화 관련 체험 학습(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등)’이 90.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기후변화 관련 독서’로 84.0%이다. 반면 ‘기후변화 관련 봉사 활동’은 6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1-42〉 기후변화 대응 활동(종합)

구분	부모의 활동 유무		계	(부모의 활동 있을 때) 자녀와 함께한 활동 유무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기후변화 관련 체험 학습 (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등)	43.7	56.3	100.0 (1,012)	90.0	10.0	100.0 (442)
2. 기후변화 관련 봉사 활동	13.8	86.2	100.0 (1,012)	67.9	32.1	100.0 (140)
3. 기후변화 관련 가족 간 의사소통	53.9	46.1	100.0 (1,012)	82.2	17.8	100.0 (545)
4.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유튜브, SNS 등)	51.2	48.8	100.0 (1,012)	72.2	27.8	100.0 (518)
5. 기후변화 관련 독서	40.0	60.0	100.0 (1,012)	84.0	16.0	100.0 (405)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부모의 '기후변화 관련 체험 학습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3.7%, 없다는 응답은 56.3%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모,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생 부모가 활동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부모의 활동과 함께 자녀의 활동도 있는 경우는 90%를 차지하며, 유아의 부모,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할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자녀와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1-43〉 기후변화 대응 활동-1. 기후변화 관련 체험 학습(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등)

단위: %(명)

구분	부모의 활동 유무		계		(부모의 활동 있을 때) 자녀와 함께한 활동 유무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43.7	56.3	100.0	(1,012)	90.0	10.0	100.0	(442)
응답자 연령								
20대	51.7	48.3	100.0	(29)	86.7	13.3	100.0	(15)
30대	42.7	57.3	100.0	(567)	88.4	11.6	100.0	(242)
40대 이상	44.5	55.5	100.0	(416)	92.4	7.6	100.0	(185)
$\chi^2(df)$	1.099(2)				2.072(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36.5	63.5	100.0	(403)	79.6	20.4	100.0	(147)
유아(3~5세)	48.4	51.6	100.0	(609)	95.3	4.7	100.0	(295)
$\chi^2(df)$	14.110(1)***				26.850(1)***			
기관 구분								
유치원	49.1	50.9	100.0	(340)	96.4	3.6	100.0	(167)
어린이집	43.6	56.4	100.0	(569)	88.3	11.7	100.0	(248)
기타	26.2	73.8	100.0	(103)	66.7	33.3	100.0	(27)
$\chi^2(df)$	16.862(2)***				24.840(2)***			
지역 구분								
대도시	44.3	55.7	100.0	(395)	85.7	14.3	100.0	(175)
중소도시	41.0	59.0	100.0	(456)	93.6	6.4	100.0	(187)
농어촌	49.7	50.3	100.0	(161)	91.3	8.8	100.0	(80)
$\chi^2(df)$	3.749(2)				6.402(2)*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1.6	58.4	100.0	(101)	90.5	9.5	100.0	(42)
대졸(3년제 이하)	44.1	55.9	100.0	(179)	92.4	7.6	100.0	(79)
대졸(4년제)	41.5	58.5	100.0	(600)	89.6	10.4	100.0	(249)
대학원 이상	54.5	45.5	100.0	(132)	88.9	11.1	100.0	(72)
$\chi^2(df)$	7.689(3)				0.673(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기후변화 관련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8%, 없다는 응답은 86.2%로, 부모의 활동과 함께 자녀의 활동도 있는 경우는 67.9%, 없음은 32.1%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모,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와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44〉 기후변화 대응 활동-2. 기후변화 관련 봉사 활동

단위: %(명)

구분	부모의 활동 유무		계		(부모의 활동 있을 때) 자녀와 함께한 활동 유무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3.8	86.2	100.0	(1,012)	67.9	32.1	100.0	(140)
응답자 연령								
20대	20.7	79.3	100.0	(29)	33.3	66.7	100.0	(6)
30대	12.9	87.1	100.0	(567)	64.4	35.6	100.0	(73)
40대 이상	14.7	85.3	100.0	(416)	75.4	24.6	100.0	(61)
$\chi^2(df)$	1.821(2)				5.278(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2.9	87.1	100.0	(403)	53.8	46.2	100.0	(52)
유아(3~5세)	14.4	85.6	100.0	(609)	76.1	23.9	100.0	(88)
$\chi^2(df)$	0.487(1)				7.446(1)**			
지역 구분								
대도시	12.7	87.3	100.0	(395)	62.0	38.0	100.0	(50)
중소도시	14.3	85.7	100.0	(456)	72.3	27.7	100.0	(65)
농어촌	15.5	84.5	100.0	(161)	68.0	32.0	100.0	(25)
$\chi^2(df)$	0.913(2)				1.377(2)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7.9	92.1	100.0	(101)	62.5	37.5	100.0	(8)
대졸(3년제 이하)	14.0	86.0	100.0	(179)	64.0	36.0	100.0	(25)
대졸(4년제)	14.0	86.0	100.0	(600)	66.7	33.3	100.0	(84)
대학원 이상	17.4	82.6	100.0	(132)	78.3	21.7	100.0	(23)
$\chi^2(df)$	4.407(3)				1.472(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기후변화 관련 가족 간 의사소통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9%, 없다는 응답은 46.1%이다. 유아의 부모,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고학력 부모일수록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활동과 함께 자녀의 활동도 있는 경우는 82.2%, 없음은 17.8%이다. 유아의 부모,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생 부모일수록 자녀와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45〉 기후변화 대응 활동-3. 기후변화 관련 가족 간 의사소통

단위: %(명)

구분	부모의 활동 유무		계		(부모의 활동 있을 때) 자녀와 함께 한 활동 유무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3.9	46.1	100.0	(1,012)	82.2	17.8	100.0	(545)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46.9	53.1	100.0	(403)	67.7	32.3	100.0	(189)
유아(3~5세)	58.5	41.5	100.0	(609)	89.9	10.1	100.0	(356)
$\chi^2(df)$	13.037(1)***				41.448(1)***			
기관 구분								
유치원	57.6	42.4	100.0	(340)	91.8	8.2	100.0	(196)
어린이집	52.4	47.6	100.0	(569)	79.5	20.5	100.0	(298)
기타	49.5	50.5	100.0	(103)	60.8	39.2	100.0	(51)
$\chi^2(df)$	3.251(2)				29.880(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7.4	52.6	100.0	(116)	83.6	16.4	100.0	(55)
300만~400만 원 미만	50.2	49.8	100.0	(219)	80.9	19.1	100.0	(110)
400만~500만 원 미만	49.5	50.5	100.0	(202)	81.0	19.0	100.0	(100)
500만~600만 원 미만	60.1	39.9	100.0	(163)	85.7	14.3	100.0	(98)
600만~700만 원 미만	56.7	43.3	100.0	(120)	86.8	13.2	100.0	(68)
700만 원 이상	59.4	40.6	100.0	(192)	78.1	21.9	100.0	(114)
$\chi^2(df)$	9.946(5)				3.426(5)			
지역 구분								
대도시	53.7	46.3	100.0	(395)	79.7	20.3	100.0	(212)
중소도시	51.8	48.2	100.0	(456)	83.5	16.5	100.0	(236)
농어촌	60.2	39.8	100.0	(161)	84.5	15.5	100.0	(97)
$\chi^2(df)$	3.463(2)				1.517(2)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0.5	49.5	100.0	(101)	84.3	15.7	100.0	(51)
대졸(3년제 이하)	55.3	44.7	100.0	(179)	81.8	18.2	100.0	(99)
대졸(4년제)	51.0	49.0	100.0	(600)	82.0	18.0	100.0	(306)
대학원 이상	67.4	32.6	100.0	(132)	82.0	18.0	100.0	(89)
$\chi^2(df)$	12.359(3)**				0.174(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1.2%, 없다는 응답은 48.8%이다. 최종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부모의 활동과 함께 자녀의 활동도 있는 경우는 72.2%, 없음은 27.8%이다. 유아의 부모, 자녀

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생 부모일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자녀와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46〉 기후변화 대응 활동-4.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유튜브, SNS 등)

단위: %(명)

구분	부모의 활동 유무		계		(부모의 활동 있을 때) 자녀와 함께한 활동 유무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1.2	48.8	100.0	(1,012)	72.2	27.8	100.0	(518)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47.4	52.6	100.0	(403)	57.6	42.4	100.0	(191)
유아(3~5세)	53.7	46.3	100.0	(609)	80.7	19.3	100.0	(327)
$\chi^2(df)$	3.852(1)				32.173(1)***			
기관 구분								
유치원	53.2	46.8	100.0	(340)	81.8	18.2	100.0	(181)
어린이집	50.4	49.6	100.0	(569)	70.4	29.6	100.0	(287)
기타	48.5	51.5	100.0	(103)	48.0	52.0	100.0	(50)
$\chi^2(df)$	0.986(2)				23.316(2)***			
지역 구분								
대도시	51.9	48.1	100.0	(395)	70.7	29.3	100.0	(205)
중소도시	47.4	52.6	100.0	(456)	77.3	22.7	100.0	(216)
농어촌	60.2	39.8	100.0	(161)	63.9	36.1	100.0	(97)
$\chi^2(df)$	8.032(2)*				6.351(2)*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3.6	56.4	100.0	(101)	77.3	22.7	100.0	(44)
대졸(3년제 이하)	54.2	45.8	100.0	(179)	78.4	21.6	100.0	(97)
대졸(4년제)	49.5	50.5	100.0	(600)	69.7	30.3	100.0	(297)
대학원 이상	60.6	39.4	100.0	(132)	71.3	28.8	100.0	(80)
$\chi^2(df)$	8.365(3)*				3.355(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기후변화 관련 독서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0%, 없다는 응답은 60.0%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모,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생 부모일수록, 가구 소득이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부모의 활동과 함께 자녀의 활동도 있는 경우는 84.0%, 없음은 16.0%이다.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아의 부모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생 부모일수록 자녀와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47〉 기후변화 대응 활동-5. 기후변화 관련 독서

단위: %(명)

구분	부모의 활동 유무		계		(부모의 활동 있을 때) 자녀와 함께 한 활동 유무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40.0	60.0	100.0	(1,012)	84.0	16.0	100.0	(405)
성별								
남성	36.3	63.7	100.0	(441)	84.4	15.6	100.0	(160)
여성	42.9	57.1	100.0	(571)	83.7	16.3	100.0	(245)
$\chi^2(df)$	4.551(1)*				0.035(1)			
응답자 연령								
20대	31.0	69.0	100.0	(29)	55.6	44.4	100.0	(9)
30대	39.9	60.1	100.0	(567)	82.3	17.7	100.0	(226)
40대 이상	40.9	59.1	100.0	(416)	87.6	12.4	100.0	(170)
$\chi^2(df)$	1.105(2)				7.566(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35.2	64.8	100.0	(403)	72.5	27.5	100.0	(142)
유아(3~5세)	43.2	56.8	100.0	(609)	90.1	9.9	100.0	(263)
$\chi^2(df)$	6.385(1)*				21.149(1)***			
자녀 연령 2								
0세	33.0	67.0	100.0	(94)	74.2	25.8	100.0	(31)
1세	27.6	72.4	100.0	(145)	62.5	37.5	100.0	(40)
2세	43.3	56.7	100.0	(164)	77.5	22.5	100.0	(71)
3세	43.4	56.6	100.0	(189)	84.1	15.9	100.0	(82)
4세	37.9	62.1	100.0	(206)	91.0	9.0	100.0	(78)
5세	48.1	51.9	100.0	(214)	94.2	5.8	100.0	(103)
$\chi^2(df)$	19.168(5)**				28.959(5)***			
기관 구분								
유치원	47.9	52.1	100.0	(340)	92.0	8.0	100.0	(163)
어린이집	38.0	62.0	100.0	(569)	79.6	20.4	100.0	(216)
기타	25.2	74.8	100.0	(103)	69.2	30.8	100.0	(26)
$\chi^2(df)$	19.262(2)***				15.061(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5.3	64.7	100.0	(116)	78.0	22.0	100.0	(41)
300만~400만 원	37.4	62.6	100.0	(219)	81.7	18.3	100.0	(82)
400만~500만 원	33.7	66.3	100.0	(202)	86.8	13.2	100.0	(68)
500만~600만 원	47.2	52.8	100.0	(163)	87.0	13.0	100.0	(77)
600만~700만 원	39.2	60.8	100.0	(120)	91.5	8.5	100.0	(47)
700만 원 이상	46.9	53.1	100.0	(192)	80.0	20.0	100.0	(90)
$\chi^2(df)$	12.397(5)*				5.327(5)			
응답자 최종 학력								

구분	부모의 활동 유무		계		(부모의 활동 있을 때) 자녀와 함께 한 활동 유무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고졸 이하	28.7	71.3	100.0	(101)	82.8	17.2	100.0	(29)
대졸(3년제 이하)	37.4	62.6	100.0	(179)	86.6	13.4	100.0	(67)
대졸(4년제)	39.5	60.5	100.0	(600)	83.5	16.5	100.0	(237)
대학원 이상	54.5	45.5	100.0	(132)	83.3	16.7	100.0	(72)
$\chi^2(df)$	17.550(3)**				0.420(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가.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의견

국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0%(다소 그렇다 37.2%, 매우 그렇다 47.8%)로 가장 높으며, 보통은 12.1%, 그렇지 않다는 3.0%(전혀 그렇지 않다 0.2%, 별로 그렇지 않다 2.8%)로 나타났다(평균 4.3점/5점 만점).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부모가 국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20대보다 30대, 40대 이상의 부모가 더 많이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8〉 국가의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2	2.8	12.1	37.2	47.8	100.0 (1,012)	4.3
성별							
남성	0.5	4.3	15.6	35.8	43.8	100.0 (441)	4.2
여성	0.0	1.6	9.3	38.2	51.0	100.0 (571)	4.4
$\chi^2(df) / t$	20.730(4)***						-3.9***
응답자 연령							
20대	0.0	3.4	17.2	44.8	34.5	100.0 (29)	4.1
30대	0.4	3.0	12.2	37.9	46.6	100.0 (567)	4.3
40대 이상	0.0	2.4	11.5	35.6	50.5	100.0 (416)	4.3
$\chi^2(df) / F$	5.381(8)						1.7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5	3.5	12.2	37.5	46.4	100.0 (403)	4.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유아(3~5세)	0.0	2.3	12.0	36.9	48.8	100.0 (609)	4.3
$\chi^2(df) / t$			4.540(4)				-1.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3.4	15.5	41.4	39.7	100.0 (116)	4.2
300만~400만 원	0.0	4.1	12.8	38.8	44.3	100.0 (219)	4.2
400만~500만 원	0.5	4.0	12.9	37.6	45.0	100.0 (202)	4.2
500만~600만 원	0.6	0.6	12.3	36.2	50.3	100.0 (163)	4.3
600만~700만 원	0.0	0.0	8.3	32.5	59.2	100.0 (120)	4.5
700만 원 이상	0.0	3.1	10.4	35.9	50.5	100.0 (192)	4.3
$\chi^2(df) / F$			23.379(20)				3.1**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0	5.9	13.9	43.6	36.6	100.0 (101)	4.1
대졸(3년제 이하)	0.0	2.2	16.8	38.5	42.5	100.0 (179)	4.2
대졸(4년제)	0.3	2.3	10.7	36.2	50.5	100.0 (600)	4.3
대학원 이상	0.0	3.0	10.6	34.8	51.5	100.0 (132)	4.3
$\chi^2(df) / F$			16.977(12)				3.4*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82명에게 어떤 기후변화 교육의 유형이 필요한지 물었다.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이 8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놀이 활동’ 51.6%,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28.5%, ‘지식 전달 교육’ 24.1%, ‘영상 매체 활용(유투브 등)’이 10.1% 순이다. 영유아 부모는 매체를 활용한 교육보다는 체험을 통해 터득하는 교육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III-1-49〉 기후변화 교육 형태(복수 응답)

단위: %(명)

구분	지식 전달 교육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	놀이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영상 매체 활용(유투브 등)	계
전체	24.1	85.6	51.6	28.5	10.1	(982)
응답자 연령						
20대	17.9	82.1	50.0	35.7	14.3	(28)
30대	23.7	85.4	55.3	27.2	8.4	(548)
40대 이상	25.1	86.2	46.8	29.8	12.1	(406)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23.0	83.7	54.8	31.5	7.0	(387)

구분	지식 전달 교육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	놀이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영상 매체 활용(유튜브 등)	계
유아(3~5세)	24.9	86.9	49.6	26.6	12.1	(595)
기관 구분						
유치원	22.2	87.1	48.5	27.5	14.7	(334)
어린이집	25.2	85.7	53.0	28.1	8.0	(551)
기타	24.7	80.4	54.6	34.0	6.2	(97)
지역 구분						
대도시	23.8	85.9	53.7	28.5	8.1	(382)
중소도시	24.3	86.1	50.6	28.8	10.3	(445)
농어촌	24.5	83.9	49.7	27.7	14.2	(155)
응답자 최종 학 력						
고졸 이하	25.3	84.2	47.4	33.7	9.5	(95)
대졸(3년제 이하)	24.6	78.9	57.1	27.4	12.0	(175)
대졸(4년제)	23.5	87.8	51.0	27.9	9.8	(584)
대학원 이상	25.8	85.9	50.0	28.9	9.4	(128)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나. 기후변화 교육 경험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 909명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자녀가 기후변화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9.0%,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26.1%, 모른다는 응답은 25.0%이다. 영아 부모보다는 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원생 부모보다 유치원생 부모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50〉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기후변화, 환경보호 관련 교육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모른다	계	
전체	49.0	26.1	25.0	100.0	(909)
성별					
남성	39.1	30.6	30.3	100.0	(402)
여성	56.8	22.5	20.7	100.0	(507)
$\chi^2(df)$		28.430(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32.0	39.5	28.5	100.0	(319)
유아(3~5세)	58.1	18.8	23.1	100.0	(590)
$\chi^2(df)$		65.410(2)***			
기관 구분					
유치원	58.2	17.9	23.8	100.0	(340)
어린이집	43.4	30.9	25.7	100.0	(569)
$\chi^2(df)$		23.618(2)***			
지역 구분					
대도시	47.5	31.5	21.0	100.0	(343)
중소도시	50.5	22.6	26.9	100.0	(416)
농어촌	48.0	23.3	28.7	100.0	(150)
$\chi^2(df)$		10.217(4)*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 445명에게 경험한 프로그램의 유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체험 활동’이 60.2%로 가장 높고, 이어 ‘놀이 활동’(54.8%), ‘지식 전달 교육’(49.7%)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18.0%)은 비율이 가장 낮아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육 중 가정 연계 부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태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51〉 프로그램 유형(복수 응답)

단위: %(명)

구분	지식 전달 교육	체험 활동	놀이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영상 매체 활용(유튜브 등)	기타	계
전체	49.7	60.2	54.8	18.0	21.1	0.7	(445)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52.0	67.6	52.0	19.6	21.6	2.0	(102)
유아(3~5세)	49.0	58.0	55.7	17.5	21.0	0.3	(343)
기관 구분							
유치원	47.5	57.1	56.6	17.2	21.7	0.5	(198)
어린이집	51.4	62.8	53.4	18.6	20.6	0.8	(247)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8.8	68.6	47.1	17.6	27.5	0.0	(51)
300만~400만 원	56.3	49.0	55.2	14.6	18.8	0.0	(96)
400만~500만 원	53.5	60.5	47.7	16.3	18.6	3.5	(86)
500만~600만 원	47.3	68.9	51.4	23.0	21.6	0.0	(74)
600만~700만 원	38.3	61.7	61.7	21.7	20.0	0.0	(60)
700만 원 이상	42.3	59.0	65.4	16.7	23.1	0.0	(78)
지역 구분							
대도시	47.2	60.1	57.7	16.6	19.0	1.2	(163)
중소도시	51.0	61.4	52.4	17.1	23.8	0.5	(210)
농어촌	51.4	56.9	55.6	23.6	18.1	0.0	(72)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2.1	64.6	70.8	14.6	25.0	0.0	(48)
대졸(3년제 이하)	48.7	63.2	61.8	17.1	21.1	1.3	(76)
대졸(4년제)	50.4	59.0	52.0	17.6	19.9	0.8	(256)
대학원 이상	46.2	58.5	46.2	23.1	23.1	0.0	(6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후변화, 환경보호 관련 교육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53.5%(만족하였다 48.3%, 매우 만족하였다 5.2%)이고 보통은 42.5%,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8%)로 나타났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인 부모가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52〉 교육 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전체	0.2	3.8	42.5	48.3	5.2	100.0 (445)	3.5
성별							
남성	0.0	5.1	43.9	45.2	5.7	100.0 (157)	3.5
여성	0.3	3.1	41.7	50.0	4.9	100.0 (288)	3.6
$\chi^2(df) / t$		2.332(4)					-0.7
응답자 연령							
20대	0.0	0.0	62.5	37.5	0.0	100.0 (8)	3.4
30대	0.4	3.7	42.6	48.0	5.3	100.0 (244)	3.5
40대 이상	0.0	4.1	41.5	49.2	5.2	100.0 (193)	3.6
$\chi^2(df) / F$		2.657(8)					0.3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0	3.9	40.2	50.0	5.9	100.0 (102)	3.6
유아(3~5세)	0.3	3.8	43.1	47.8	5.0	100.0 (343)	3.5
$\chi^2(df) / t$		0.671(4)					0.6
기관 구분							
유치원	0.5	3.5	47.0	44.9	4.0	100.0 (198)	3.5
어린이집	0.0	4.0	38.9	51.0	6.1	100.0 (247)	3.6
$\chi^2(df) / t$		4.737(4)					2.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9.8	31.4	51.0	7.8	100.0 (51)	3.6
300만~400만 원 미만	0.0	2.1	42.7	49.0	6.3	100.0 (96)	3.6
400만~500만 원 미만	0.0	0.0	50.0	41.9	8.1	100.0 (86)	3.6
500만~600만 원 미만	0.0	2.7	45.9	51.4	0.0	100.0 (74)	3.5
600만~700만 원 미만	1.7	3.3	28.3	61.7	5.0	100.0 (60)	3.7
700만 원 이상	0.0	7.7	48.7	39.7	3.8	100.0 (78)	3.4
$\chi^2(df) / F$		35.809(20)*					1.4
지역 구분							
대도시	0.0	4.9	45.4	46.0	3.7	100.0 (163)	3.5
중소도시	0.0	3.8	43.8	46.7	5.7	100.0 (210)	3.5
농어촌	1.4	1.4	31.9	58.3	6.9	100.0 (72)	3.7
$\chi^2(df) / F$		12.147(8)					2.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전반적인 교육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 1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지나치게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므로’, ‘기후변화(또는 환경보호)와 관련이 없어 보여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8%로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어서’, ‘재미와 흥미가 없어 보여서’라는 응답은 각각 22.2%이다.

〈표 III-1-53〉 프로그램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지나치게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므로	기후변화(또는 환경보호)와 관련이 없어 보여서	영유아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어서	재미와 흥미가 없어 보여서	계	
전체	27.8	27.8	22.2	22.2	100.0	(18)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0.0	25.0	50.0	25.0	100.0	(4)
유아(3~5세)	35.7	28.6	14.3	21.4	100.0	(14)
$\chi^2(df)$		3.246(3)				
기관 구분						
유치원	12.5	50.0	25.0	12.5	100.0	(8)
어린이집	40.0	10.0	20.0	30.0	100.0	(10)
$\chi^2(df)$		4.433(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0.0	40.0	40.0	0.0	100.0	(5)
300만~400만 원 미만	0.0	0.0	0.0	100.0	100.0	(2)
500만~600만 원 미만	50.0	50.0	0.0	0.0	100.0	(2)
600만~700만 원 미만	0.0	33.3	33.3	33.3	100.0	(3)
700만 원 이상	50.0	16.7	16.7	16.7	100.0	(6)
$\chi^2(df)$		13.500(12)				
지역 구분						
대도시	37.5	37.5	12.5	12.5	100.0	(8)
중소도시	25.0	12.5	37.5	25.0	100.0	(8)
농어촌	0.0	50.0	0.0	50.0	100.0	(2)
$\chi^2(df)$		4.838(6)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기후변화나 환경보호 관련 자료, 안내문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자료, 안내문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8.2%, 없다는 응답은 51.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어머니 응답자와 유아 부모, 자녀 연령이 많은 부모일수록, 유치원생 부모일수록 안내문을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1-54〉 유치원·어린이집으로부터 기후변화·환경보호 관련 자료, 안내문을 제공받은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48.2	51.8	100.0 (932)
성별			
남성	38.3	61.7	100.0 (413)
여성	56.1	43.9	100.0 (519)
$\chi^2(df)$	29.228(1)***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35.9	64.1	100.0 (326)
유아(3~5세)	54.8	45.2	100.0 (606)
$\chi^2(df)$	30.314(1)***		
기관 구분			
유치원	55.6	44.4	100.0 (340)
어린이집	43.6	56.4	100.0 (569)
기타	52.2	47.8	100.0 (23)
$\chi^2(df)$	12.432(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3.7	46.3	100.0 (95)
300만~400만 원	49.3	50.7	100.0 (203)
400만~500만 원	45.7	54.3	100.0 (188)
500만~600만 원	50.0	50.0	100.0 (154)
600만~700만 원	53.6	46.4	100.0 (110)
700만 원 이상	41.8	58.2	100.0 (182)
$\chi^2(df)$	6.217(5)		
지역 구분			
대도시	45.2	54.8	100.0 (354)
중소도시	49.6	50.4	100.0 (427)
농어촌	51.0	49.0	100.0 (151)
$\chi^2(df)$	2.109(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관련 안내문, 자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부모 449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함께 읽어 보거나 안내에 따라 활동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함께 읽어 보고 설명에 따라 행동’한 부모의 비율이 57.5%로 가장 높고, ‘자녀에게 읽어 주기만 한’ 부모는 22.9%, ‘본인(부모)만 읽고 자녀에게 알려 주지 않은’ 부모는 17.8%, ‘읽어 보지 않은’ 부모는 1.8%이다. 어머니 응답자와, 부모의 연령이 30대 이상으로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생 부모일수록 ‘함께 읽어 보고 설명에 따라 행동하였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55〉 함께 활동한 경험

단위: %(명)

구분	함께 읽어 보고 설명에 따라 행동하였음	자녀에게 읽어 주기만 하였음	본인(부모)만 읽고 자녀에게 알려 주지 않았음	읽어 보지 않았음	계
전체	57.5	22.9	17.8	1.8	100.0 (449)
성별					
남성	58.9	29.7	8.2	3.2	100.0 (158)
여성	56.7	19.2	23.0	1.0	100.0 (291)
$\chi^2(df)$		20.206(3)***			
응답자 연령					
20대	14.3	35.7	50.0	0.0	100.0 (14)
30대	57.3	20.8	20.4	1.6	100.0 (255)
40대 이상	61.1	25.0	11.7	2.2	100.0 (180)
$\chi^2(df)$		20.226(6)**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46.2	21.4	30.8	1.7	100.0 (117)
유아(3~5세)	61.4	23.5	13.3	1.8	100.0 (332)
$\chi^2(df)$		18.593(3)***			
기관 구분					
유치원	65.6	20.6	12.2	1.6	100.0 (189)
어린이집	51.2	23.8	23.0	2.0	100.0 (248)
기타	58.3	41.7	0.0	0.0	100.0 (12)
$\chi^2(df)$		15.790(6)*			
지역 구분					
대도시	55.6	24.4	17.5	2.5	100.0 (160)
중소도시	57.5	22.6	18.4	1.4	100.0 (212)
농어촌	61.0	20.8	16.9	1.3	100.0 (77)
$\chi^2(df)$		1.385(6)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유치원·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기후변화(또는 환경보호)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는 응답은 20.4%, 없다는 응답은 18.9%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높다. 영아 부모이거나,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일수록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56〉 기후변화(또는 자연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계	
전체	20.4	18.9	60.8	100.0	(1,01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5.4	19.6	65.0	100.0	(403)
유아(3~5세)	23.6	18.4	58.0	100.0	(609)
$\chi^2(df)$	10.301(2)**				
기관 구분					
유치원	24.1	18.5	57.4	100.0	(340)
어린이집	19.5	20.2	60.3	100.0	(569)
기타	12.6	12.6	74.8	100.0	(103)
$\chi^2(df)$	12.277(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1.6	17.2	61.2	100.0	(116)
300만~400만 원 미만	20.1	21.5	58.4	100.0	(219)
400만~500만 원 미만	16.8	17.8	65.3	100.0	(202)
500만~600만 원 미만	22.1	20.2	57.7	100.0	(163)
600만~700만 원 미만	28.3	15.0	56.7	100.0	(120)
700만 원 이상	17.2	19.3	63.5	100.0	(192)
$\chi^2(df)$	10.179(10)				
지역 구분					
대도시	18.0	21.0	61.0	100.0	(395)
중소도시	23.5	16.2	60.3	100.0	(456)
농어촌	17.4	21.1	61.5	100.0	(161)
$\chi^2(df)$	7.073(4)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거주 지역에 기후변화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지역환경교육센터’가 42.2%로 가장 많고, ‘(문화)복지센터’가 41.7%, ‘기후변화홍보관(센터 등)’ 14.6%, ‘기타’ 6.3% 순이다.

〈표 III-1-57〉 기후변화(또는 환경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단위: %(명)

구분	(문화)복지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홍보관(센터 등)	환경교육 단체	기타	계
전체	41.7	42.2	41.3	14.6	6.3	(206)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45.2	37.1	38.7	14.5	6.5	(62)

구분	(문화)복지센터	지역환경 교육센터	기후변화홍보관(센 터 등)	환경교육 단체	기타	계
유아(3~5세)	40.3	44.4	42.4	14.6	6.3	(144)
기관 구분						
유치원	37.8	42.7	48.8	14.6	2.4	(82)
어린이집	46.8	39.6	36.0	13.5	9.9	(111)
기타	23.1	61.5	38.5	23.1	0.0	(13)
월평균 가구 소 득						
300만 원 미만	36.0	44.0	44.0	8.0	4.0	(25)
300만~400만 원 미만	47.7	43.2	40.9	11.4	2.3	(44)
400만~500만 원 미만	50.0	38.2	41.2	11.8	5.9	(34)
500만~600만 원 미만	33.3	44.4	47.2	19.4	8.3	(36)
600만~700만 원 미만	38.2	38.2	44.1	11.8	8.8	(34)
700만 원 이상	42.4	45.5	30.3	24.2	9.1	(33)
지역 구분						
대도시	32.4	46.5	42.3	11.3	7.0	(71)
중소도시	50.5	38.3	40.2	15.9	5.6	(107)
농어촌	32.1	46.4	42.9	17.9	7.1	(28)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다. 기후변화 정책 관련 의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2001)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을 ‘적응’과 ‘완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두 축인 ‘적응’과 ‘완화’ 중 정부가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물었다.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58.2%,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41.8%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개발이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1-58〉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

단위: %(명)

구분	적응	완화	계	
전체	41.8	58.2	100.0	(1,012)
응답자 연령				
20대	51.7	48.3	100.0	(29)
30대	39.2	60.8	100.0	(567)
40대 이상	44.7	55.3	100.0	(416)

구분	적응	완화	계	
$\chi^2(df)$	4.256(2)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44.2	55.8	100.0	(403)
유아(3~5세)	40.2	59.8	100.0	(609)
$\chi^2(df)$	1.547(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2.6	47.4	100.0	(116)
300만~400만 원 미만	40.2	59.8	100.0	(219)
400만~500만 원 미만	43.6	56.4	100.0	(202)
500만~600만 원 미만	39.9	60.1	100.0	(163)
600만~700만 원 미만	39.2	60.8	100.0	(120)
700만 원 이상	38.5	61.5	100.0	(192)
$\chi^2(df)$	7.469(5)			
지역 구분				
대도시	43.5	56.5	100.0	(395)
중소도시	41.7	58.3	100.0	(456)
농어촌	37.9	62.1	100.0	(161)
$\chi^2(df)$	1.510(2)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8.5	51.5	100.0	(101)
대졸(3년제 이하)	53.1	46.9	100.0	(179)
대졸(4년제)	38.3	61.7	100.0	(600)
대학원 이상	37.1	62.9	100.0	(132)
$\chi^2(df)$	15.374(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정책 개발 중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2.2%로 가장 높다.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국민의 노력이 적을 것 같아서’는 22.2%,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16.5%,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는 12.8%, 기타는 1.7%이다.

〈표 III-1-59〉 적응-응답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국민의 노력이 적을 것 같아서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	완화정책과 관련된 기술(예, 탄소 저감 기술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기타	계
전체	32.2	12.8	22.2	16.5	14.7	1.7	100.0 (423)
응답자 연령							
20대	40.0	26.7	26.7	0.0	6.7	0.0	100.0 (15)
30대	34.7	11.3	22.5	15.8	13.5	2.3	100.0 (222)
40대 이상	28.5	13.4	21.5	18.8	16.7	1.1	100.0 (186)
$\chi^2(df)$			10.031(10)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28.1	13.5	23.0	18.0	15.2	2.2	100.0 (178)
유아(3~5세)	35.1	12.2	21.6	15.5	14.3	1.2	100.0 (245)
$\chi^2(df)$			2.877(5)				
지역 구분							
대도시	32.0	12.8	25.0	18.0	11.6	0.6	100.0 (172)
중소도시	31.1	12.6	20.5	15.8	17.4	2.6	100.0 (190)
농어촌	36.1	13.1	19.7	14.8	14.8	1.6	100.0 (61)
$\chi^2(df)$			6.128(10)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4.7	10.2	22.4	14.3	18.4	0.0	100.0 (49)
대졸(3년제 이하)	32.6	16.8	20.0	17.9	11.6	1.1	100.0 (95)
대졸(4년제)	28.7	12.2	24.3	16.1	16.5	2.2	100.0 (230)
대학원 이상	44.9	10.2	16.3	18.4	8.2	2.0	100.0 (49)
$\chi^2(df)$			11.536(1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정책 개발 중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는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4.5%로 가장 높다.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 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는 16.5%,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는 11.7%,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는 7.1%, 기타는 0.2%로 나타났다.

〈표 III-1-60〉 완화-응답한 이유

단위: %(명)

구분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 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기타	계
전체	64.5	7.1	11.7	16.5	0.2	100.0 (589)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64.9	6.7	12.4	16.0	0.0	100.0 (225)
유아(3~5세)	64.3	7.4	11.3	16.8	0.3	100.0 (364)
$\chi^2(df)$			0.950(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0.0	12.7	10.9	16.4	0.0	100.0 (55)
300만~400만 원 미만	62.6	6.9	10.7	19.8	0.0	100.0 (131)
400만~500만 원 미만	66.7	8.8	11.4	13.2	0.0	100.0 (114)
500만~600만 원 미만	64.3	4.1	12.2	18.4	1.0	100.0 (98)
600만~700만 원 미만	65.8	5.5	11.0	17.8	0.0	100.0 (73)
700만 원 이상	66.1	6.8	13.6	13.6	0.0	100.0 (118)
$\chi^2(df)$			12.969(20)			
지역 구분						
대도시	65.0	8.1	10.8	15.7	0.4	100.0 (223)
중소도시	66.5	6.8	10.2	16.5	0.0	100.0 (266)
농어촌	58.0	6.0	18.0	18.0	0.0	100.0 (100)
$\chi^2(df)$			7.308(8)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1.5	11.5	9.6	17.3	0.0	100.0 (52)
대졸(3년제 이하)	57.1	7.1	8.3	27.4	0.0	100.0 (84)
대졸(4년제)	67.6	6.5	11.1	14.6	0.3	100.0 (370)
대학원 이상	60.2	7.2	19.3	13.3	0.0	100.0 (83)
$\chi^2(df)$			16.374(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아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 부모 중 83.3%는 바람직하다고, 16.7%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표 III-1-61〉 아동 대상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요	계	
전체	83.3	16.7	100.0	(1,01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3.6	16.4	100.0	(116)
300만~400만 원	86.3	13.7	100.0	(219)
400만~500만 원	82.2	17.8	100.0	(202)
500만~600만 원	79.1	20.9	100.0	(163)
600만~700만 원	80.8	19.2	100.0	(120)
700만 원 이상	85.9	14.1	100.0	(192)
$\chi^2(df)$	5.121(5)			
지역 구분				
대도시	84.3	15.7	100.0	(395)
중소도시	83.1	16.9	100.0	(456)
농어촌	81.4	18.6	100.0	(161)
$\chi^2(df)$	0.730(2)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81.2	18.8	100.0	(101)
대졸(3년제 이하)	80.4	19.6	100.0	(179)
대졸(4년제)	84.5	15.5	100.0	(600)
대학원 이상	83.3	16.7	100.0	(132)
$\chi^2(df)$	1.992(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아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부모 843명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적절한 적응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 시설 교체)’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아동 대상 기후변화 교육’ 56.7%,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 38.9%, ‘부모 대상 기후변화 교육’ 34.2% 순이다. ‘주거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주거 지원 강화’는 8.7%로 가장 적다.

〈표 III-1-62〉 아동 대상 적절한 적응정책(복수 응답)

단위: %(명)

구분	아동 대상 기후변화 교육	부모 대상 기후변화 교육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	주거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주거 지원 강화	계
전체	56.7	34.2	61.6	38.9	8.7	(843)
응답자 연령						
20대	45.8	41.7	66.7	20.8	25.0	(24)

구분	아동 대상 기후변화 교육	부모 대상 기후변화 교육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	주거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주거 지원 강화	계
30대	54.5	34.9	59.7	42.5	8.5	(459)
40대 이상	60.3	32.8	63.6	35.6	7.8	(360)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54.6	38.0	60.2	38.9	8.3	(337)
유아(3~5세)	58.1	31.6	62.5	38.9	8.9	(50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8.5	44.3	55.7	38.1	13.4	(97)
300만~400만 원 미만	54.5	30.7	61.9	42.9	10.1	(189)
400만~500만 원 미만	57.8	39.2	60.8	35.5	6.6	(166)
500만~600만 원 미만	62.0	27.1	64.3	39.5	7.0	(129)
600만~700만 원 미만	64.9	30.9	60.8	38.1	5.2	(97)
700만 원 이상	53.9	34.5	63.6	38.2	9.7	(165)
지역 구분						
대도시	57.1	33.9	61.9	39.0	8.1	(333)
중소도시	55.7	35.4	62.3	37.2	9.5	(379)
농어촌	58.8	31.3	58.8	43.5	7.6	(131)
응답자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5.1	32.9	59.8	41.5	20.7	(82)
대졸(3년제 이하)	54.2	40.3	60.4	38.2	6.9	(144)
대졸(4년제)	60.2	33.7	60.7	38.3	7.1	(507)
대학원 이상	52.7	29.1	68.2	40.9	9.1	(11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기업, 시민단체(환경단체), 일반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주체별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긍정 응답(매우 잘하고 있음+잘하고 있음)이 가장 높은 주체는 시민단체(31.3%)이고, 부정 응답(매우 못 하고 있음+못 하고 있음)이 높은 주체는 중앙정부(51.3%)와 지방자치단체(45.2%), 기업(43.7%)으로 나타났다. 각 주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는 시민단체가 평균 3.1점으로 가장 높고, 일반 국민이 평균 2.7점, 시도 교육청과 기업이 각각 평균 2.6점,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2.5점이며 중앙정부는 평균 2.4점으로 가장 낮다.

부모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기후변화의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표 III-1-63〉 각 주체의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 평가(종합)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매우 못 하고 있음	못 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긍정 응답	계	평균
1. 중앙정부	51.3	19.7	31.6	41.8	6.4	0.5	6.9	100.0 (1,012)	2.4
2.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45.2	12.7	32.5	46.9	7.4	0.4	7.8	100.0 (1,012)	2.5
3. 시도 교육청	40.2	10.6	29.6	50.2	9.3	0.3	9.6	100.0 (1,012)	2.6
4. 기업	43.7	14.6	29.1	42.3	12.8	1.2	14.0	100.0 (1,012)	2.6
5. 시민단체(환경단체)	22.7	7.3	15.4	45.9	26.5	4.8	31.3	100.0 (1,012)	3.1
6. 일반 국민	37.4	8.1	29.3	52.3	8.7	1.6	10.3	100.0 (1,012)	2.7

영유아기 기후 환경 교육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24.1%, ‘중앙부처’ 17.8%, ‘시민단체(환경단체)’ 5.2%, ‘가정’ 4.9%, ‘기타’ 0.2% 순이다.

어머니 응답자는 53.9%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꼽았으나 아버지 응답자는 어린이집 39.7%,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28.8%, 중앙부처 23.4% 순으로 꼽아 어머니의 응답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4〉 영유아기 기후 환경 교육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

단위: %(명)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시민단체 (환경단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기타	계
전체	17.8	24.1	5.2	47.7	4.9	0.2	100.0 (1,012)
성별							
남성	23.4	28.8	3.6	39.7	4.3	0.2	100.0 (441)
여성	13.5	20.5	6.5	53.9	5.4	0.2	100.0 (571)
$\chi^2(df)$			35.882(5)***				35.882(5)***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18.9	24.6	5.7	44.9	5.5	0.5	100.0 (403)
유아(3~5세)	17.1	23.8	4.9	49.6	4.6	0.0	100.0 (609)
$\chi^2(df)$			5.270(5)				5.270(5)
기관 구분							
유치원	15.3	25.0	5.3	49.4	5.0	0.0	100.0 (340)
어린이집	17.6	23.2	4.9	49.9	4.0	0.4	100.0 (569)
기타	27.2	26.2	6.8	30.1	9.7	0.0	100.0 (103)
$\chi^2(df)$			22.110(10)*				22.110(10)*
지역 구분							
대도시	18.5	24.6	5.3	47.3	4.3	0.0	100.0 (395)
중소도시	16.2	25.7	5.0	46.9	5.7	0.4	100.0 (456)
농어촌	20.5	18.6	5.6	50.9	4.3	0.0	100.0 (161)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시민단체 (환경단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기타	계
$\chi^2(df)$			7.790(10)				7.790(1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중앙부처 중 영유아기 기후 환경 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으로는 ‘환경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63.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교육부’ 23.9%, ‘보건복지부’ 11.7%, ‘기타’ 0.6% 순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20대보다 30대, 40대 이상,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가 환경부가 교육 주체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20대 부모와 영아 부모는 다른 집단보다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I-1-65〉 중앙부처 중 영유아기 기후 환경 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

단위: %(명)

구분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타	계
전체	63.9	23.9	11.7	0.6	100.0 (180)
응답자 연령					
20대	50.0	25.0	25.0	0.0	100.0 (4)
30대	64.4	23.0	11.5	1.1	100.0 (87)
40대 이상	64.0	24.7	11.2	0.0	100.0 (89)
$\chi^2(df)$		1.876(6)			
자녀 연령대					
영아(0~2세)	56.6	26.3	15.8	1.3	100.0 (76)
유아(3~5세)	69.2	22.1	8.7	0.0	100.0 (104)
$\chi^2(df)$		4.709(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3.2	21.1	15.8	0.0	100.0 (19)
300만~400만 원	56.3	34.4	9.4	0.0	100.0 (32)
400만~500만 원	61.0	22.0	14.6	2.4	100.0 (41)
500만~600만 원	70.8	20.8	8.3	0.0	100.0 (24)
600만~700만 원	70.8	16.7	12.5	0.0	100.0 (24)
700만 원 이상	65.0	25.0	10.0	0.0	100.0 (40)
$\chi^2(df)$		7.417(15)			
지역 구분					
대도시	67.1	21.9	11.0	0.0	100.0 (73)
중소도시	62.2	23.0	14.9	0.0	100.0 (74)
농어촌	60.6	30.3	6.1	3.0	100.0 (33)
$\chi^2(df)$		6.946(6)			
응답자 최종 학력					

구분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타	계
고졸 이하	53.8	46.2	0.0	0.0	100.0 (13)
대졸(3년제 이하)	57.6	27.3	15.2	0.0	100.0 (33)
대졸(4년제)	65.5	21.8	11.8	0.9	100.0 (110)
대학원 이상	70.8	16.7	12.5	0.0	100.0 (24)
$\chi^2(df)$	6.725(9)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5. 소결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012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조사에 참여한 부모 중 약 75%가 우리나라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고, 약 60%가 기후변화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가 각각 80% 이상으로 나타나 기후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부모는 약 49%로 나타나 해결 방법 인식 수준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또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약 60%,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약 20%로 긍정적인 전망이 더 높지만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은 편이다.

둘째, 90% 이상의 부모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녀 세대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건강, 고용 및 경제활동, 주거,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중에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부모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래세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험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기후변화로 직간접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부모는 61.7%로 파악되었다. 그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더위, 한파, 가뭄, 화재, 홍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다는 부모는 31.6%, 안전하지 않다는 부모는 23.4%여서 주택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부모가 전체의 20% 이상으로 상당한 편이다. 주택 상태의 문제점으로는 습기, 채광, 누수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영유아 부모의 기후변화 감수성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에 높은 수준의 긍정 응답률을 나타냈다. 환경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지 살펴본 결과 ‘산이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방에서 나

갈 때 전기 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항목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항목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 활동 중 ‘기후변화 관련 가족 간 의사소통’과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유튜브, SNS 등)’ 활동 참여도는 높으나 ‘기후변화 관련 봉사 활동’ 참여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 가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활동 참여도가 대체로 높고, 가정 외 장소에서의 활동 참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 활동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체험 학습(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등)’과 ‘기후변화 관련 독서’가 많고 ‘기후변화 관련 봉사 활동’의 참여도는 역시 적은 수준이다.

여섯째, 국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기후변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부모가 약 85%에 이르러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에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교육의 유형은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 놀이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유튜브 등 영상 매체 활용은 가장 적어 기후변화 교육은 일상생활 속 체험과 놀이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곱째,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가 기후변화 또는 환경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9.0%, 없다는 응답은 26.0%, 모른다는 응답은 25.0%로 나타나 자녀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한 부모가 절반 이상이다. 자녀가 기후변화 또는 환경보호 교육을 받은 경우 체험 활동, 놀이 활동, 지식 전달 교육이 가장 많고,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이 가장 적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육 중 가정 연계 부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태임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인 ‘적응’과 ‘완화’ 중 정부가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으로 부모의 약 58%는 ‘완화’를, 약 42%는 ‘적응’이라고 답하였고, 아동 대상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추진에는 부모의 약 83%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 아동 대상 기후변화 교육, 아동 건강관리 지원 강화, 부모 대상 기후변화 교육 정책이 적절한 적응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아동과 부모 대상 기후변화 교육 요구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 영유아기 기후 환경 교육 주체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중앙부처 중 영유아기 기후 환경 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부처로 환경부를 선택한 부모가 가장 많다.

제2절

교사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1. 기후변화 인식

설문 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92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였다. 기후변화 문제 관심도, 기후변화의 원인, 문제 해결 방법,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중요도 등을 질문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심 있다는 응답이 82.2% (관심 있는 편 50.1%, 매우 관심 있음 32.1%, 평균 4.1점/5점 만점)로 80% 이상의 교사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관심도가 평균 4.2점으로 가장 높다. 교사 경력별로는 15년 이상 경력 교사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5~9년 이하, 4년 이하, 10~14년 이하의 순이다.

〈표 III-2-1〉 기후변화 문제 관심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는 편	보통	관심 있는 편	매우 관심 있음	계(수)	평균
전체	0.4	0.9	16.5	50.1	32.1	100.0 (922)	4.1
기관 구분							
유치원	0.5	0.5	14.7	51.5	32.8	100.0 (421)	4.2
어린이집	0.4	1.2	18.0	48.9	31.5	100.0 (501)	4.1
$\chi^2(df) / t$			3.290(4)				1.2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4	0.4	11.1	52.6	35.6	100.0 (270)	4.2
사립 유치원	0.7	0.7	21.2	49.7	27.8	100.0 (151)	4.0
국공립 어린이집	1.0	1.0	23.0	45.0	30.0	100.0 (100)	4.0
그 외 어린이집	0.2	1.2	16.7	49.9	31.9	100.0 (401)	4.1
$\chi^2(df) / F$			15.006(12)				3.2*
지역 구분							
대도시	0.3	1.2	18.1	50.7	29.7	100.0 (337)	4.1
중소도시	0.6	0.6	15.4	52.5	30.8	100.0 (318)	4.1
농어촌	0.4	0.7	15.7	46.4	36.7	100.0 (267)	4.2
$\chi^2(df) / F$			5.599(8)				1.4

구분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는 편	보통	관심 있는 편	매우 관심 있음	계(수)	평균
교사 경력							
4년 이하	0.5	1.1	19.7	59.0	19.7	100.0 (183)	4.0
5~9년 이하	0.0	1.2	18.7	53.2	27.0	100.0 (252)	4.1
10~14년 이하	1.0	0.5	20.5	46.2	31.9	100.0 (210)	4.1
15년 이상	0.4	0.7	9.4	44.4	45.1	100.0 (277)	4.3
$\chi^2(df) / F$			46.986(12)***				11.6*** (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기후변화의 원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아는 편 53.8%, 매우 잘 앎 7.3%, 평균 3.6점/5점 만점), 보통은 34.6%이다. 5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서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평균 3.5점)보다 유치원 교사(평균 3.8점)가, 기관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가 기후변화 원인을 더 잘 인지하였다.

〈표 III-2-2〉 기후변화 원인 인지(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모르는 편	보통	아는 편	매우 잘 앎	계(수)	평균
전체	0.1	4.2	34.6	53.8	7.3	100.0 (922)	3.6
기관 구분							
유치원	0.2	1.9	28.3	61.0	8.6	100.0 (421)	3.8
어린이집	0.0	6.2	39.9	47.7	6.2	100.0 (501)	3.5
$\chi^2(df) / t$			29.438(4)***				4.9***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4	1.9	25.9	61.9	10.0	100.0 (270)	3.8
사립 유치원	0.0	2.0	32.5	59.6	6.0	100.0 (151)	3.7
국공립 어린이집	0.0	3.0	47.0	43.0	7.0	100.0 (100)	3.5
그 외 어린이집	0.0	7.0	38.2	48.9	6.0	100.0 (401)	3.5
$\chi^2(df) / F$			39.563(12)***				8.7*** (a)
지역 구분							
대도시	0.0	4.7	35.3	54.9	5.0	100.0 (337)	3.6
중소도시	0.0	4.1	34.3	51.6	10.1	100.0 (318)	3.7
농어촌	0.4	3.7	34.1	55.1	6.7	100.0 (267)	3.6
$\chi^2(df) / F$			9.170(8)				1.0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4.9	34.4	51.9	8.7	100.0 (183)	3.6
5~9년 이하	0.0	4.0	36.9	54.4	4.8	100.0 (252)	3.6
10~14년 이하	0.0	5.7	34.3	51.9	8.1	100.0 (210)	3.6
15년 이상	0.4	2.9	32.9	56.0	7.9	100.0 (277)	3.7
$\chi^2(df) / F$			9.099(12)				0.7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방법 인식과 관련해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3.5%(아는 편 47.6%, 매우 잘 알 5.9%, 평균 3.5점/5점 만점)로 절반이 조금 넘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9.2%이다. 모른다는 응답도 7.4%(모르는 편 7.2%, 전혀 모름 0.2%)여서 상당수 교사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문제 해결 방법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공립 유치원 교사는 해결 방법을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 경력 별로는 15년 이상 경력 교사의 관심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4년 이하, 5~9년 이하, 10~14년 이하 순이다.

〈표 III-2-3〉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 인식(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모르는 편	보통	아는 편	매우 잘 알	계	평균
전체	0.2	7.2	39.2	47.6	5.9	100.0 (922)	3.5
기관 구분							
유치원	0.0	5.0	32.3	55.3	7.4	100.0 (421)	3.7
어린이집	0.4	9.0	44.9	41.1	4.6	100.0 (501)	3.4
$\chi^2(df) / t$			28.790(4)***				5.2***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0	4.1	29.3	58.1	8.5	100.0 (270)	3.7
사립 유치원	0.0	6.6	37.7	50.3	5.3	100.0 (151)	3.5
국공립 어린이집	0.0	8.0	51.0	34.0	7.0	100.0 (100)	3.4
그 외 어린이집	0.5	9.2	43.4	42.9	4.0	100.0 (401)	3.4
$\chi^2(df) / F$			39.246(12)***				10.9***(a)
지역 구분							
대도시	0.6	8.6	39.2	47.8	3.9	100.0 (337)	3.5
중소도시	0.0	5.7	40.3	46.2	7.9	100.0 (318)	3.6
농어촌	0.0	7.1	37.8	49.1	6.0	100.0 (267)	3.5
$\chi^2(df) / F$			10.412(8)				1.9
교사 경력							
4년 이하	0.5	5.5	42.1	45.9	6.0	100.0 (183)	3.5
5~9년 이하	0.0	9.5	39.3	46.8	4.4	100.0 (252)	3.5
10~14년 이하	0.5	8.1	41.9	45.2	4.3	100.0 (210)	3.4
15년 이상	0.0	5.4	35.0	51.3	8.3	100.0 (277)	3.6
$\chi^2(df) / F$			14.717(12)				3.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교사에게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92.4%(심각한 편 50.2%, 매우 심각 42.2%. 평균 4.3점/5점 만점)로 나타나 대다수

교사가 심각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미미한 차이기는 하나 어린이집 교사(평균 4.3점)보다 유치원 교사(평균 4.4점)가,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평균 4.4점)가 기후변화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경력별로는 경력 15년 이상(평균 4.5점)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2-4〉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 심각 정도(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매우 심각	계	평균
전체	0.0	0.2	7.4	50.2	42.2	100.0 (922)	4.3
기관 구분							
유치원	0.0	0.0	6.9	45.8	47.3	100.0 (421)	4.4
어린이집	0.0	0.4	7.8	53.9	37.9	100.0 (501)	4.3
$\chi^2(df) / t$			9.615(3)*				2.7**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0	0.0	5.6	44.8	49.6	100.0 (270)	4.4
사립 유치원	0.0	0.0	9.3	47.7	43.0	100.0 (151)	4.3
국공립 어린이집	0.0	2.0	13.0	51.0	34.0	100.0 (100)	4.2
그 외 어린이집	0.0	0.0	6.5	54.6	38.9	100.0 (401)	4.3
$\chi^2(df) / F$			32.613(9)***				5.0**
지역 구분							
대도시	0.0	0.3	8.3	49.0	42.4	100.0 (337)	4.3
중소도시	0.0	0.3	7.2	50.3	42.1	100.0 (318)	4.3
농어촌	0.0	0.0	6.4	51.7	41.9	100.0 (267)	4.4
$\chi^2(df) / F$			1.822(6)				0.1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0.5	9.3	51.9	38.3	100.0 (183)	4.3
5~9년 이하	0.0	0.0	9.5	48.8	41.7	100.0 (252)	4.3
10~14년 이하	0.0	0.5	7.6	55.7	36.2	100.0 (210)	4.3
15년 이상	0.0	0.0	4.0	46.2	49.8	100.0 (277)	4.5
$\chi^2(df) / F$			18.227(9)*				4.8**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기후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교사 중 92.8%(중요한 편 45.7%, 매우 중요 47.1%, 평균 4.4점/5점 만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공립 유치원 교사(평균 4.5점)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고, 교사 경력 이 길수록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2-5〉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도(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보통	중요한 편	매우 중요	계	평균
전체	0.0	0.4	6.8	45.7	47.1	100.0 (922)	4.4
기관 구분							
유치원	0.0	1.0	5.7	48.0	45.4	100.0 (421)	4.4
어린이집	0.0	0.0	7.8	43.7	48.5	100.0 (501)	4.4
$\chi^2(df) / t$			7.604(3)				-0.7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0	0.7	3.3	45.9	50.0	100.0 (270)	4.5
사립 유치원	0.0	1.3	9.9	51.7	37.1	100.0 (151)	4.2
국공립 어린이집	0.0	0.0	8.0	46.0	46.0	100.0 (100)	4.4
그 외 어린이집	0.0	0.0	7.7	43.1	49.1	100.0 (401)	4.4
$\chi^2(df) / F$			18.984(9)*				3.7*
지역 구분							
대도시	0.0	0.3	8.3	44.5	46.9	100.0 (337)	4.4
중소도시	0.0	0.9	6.6	45.9	46.5	100.0 (318)	4.4
농어촌	0.0	0.0	5.2	46.8	47.9	100.0 (267)	4.4
$\chi^2(df) / F$			5.538(6)				0.5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1.6	9.8	53.6	35.0	100.0 (183)	4.2
5~9년 이하	0.0	0.4	7.5	47.2	44.8	100.0 (252)	4.4
10~14년 이하	0.0	0.0	6.7	47.1	46.2	100.0 (210)	4.4
15년 이상	0.0	0.0	4.3	37.9	57.8	100.0 (277)	4.5
$\chi^2(df) / F$			32.490(9)***				9.6***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온실가스 증가 등 공기 질 악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지형 변화’ 15.9%, ‘개화 시기 변화나 재배 곡물·과일 변화’ 13.1%, ‘신종 감염병 증가’ 13.0%, ‘동식물 멸종 등 생물 다양성 감소’ 9.2% 순이다.

기관 설립 유형별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공통으로 ‘온실가스 증가 등 공기 질 악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응답에서는 ‘신종 감염병 증가’가 약 10%로 가장 낮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그 외 어린이집 교사의 응답에서는 ‘동식물 멸종 등 생물 다양성 감소’가 각각 7.0%, 6.5%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2-6〉 기후변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종합)

단위: %(명)

구분	온실가스 증가 등 공기 질 악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지형 변화	개화 시기 변화나 재배 곡물·과일 변화	동식물 멸종 등 생물 다양성 감소	신종 감염병 증가	기타	계
전체	48.4	15.9	13.1	9.2	13.0	0.3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45.6	18.3	13.5	12.4	10.0	0.2	100.0 (421)
어린이집	50.7	14.0	12.8	6.6	15.6	0.4	100.0 (501)
$\chi^2(df)$			17.931(5)**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46.3	15.6	14.8	13.0	10.0	0.4	100.0 (270)
사립 유치원	44.4	23.2	11.3	11.3	9.9	0.0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55.0	14.0	8.0	7.0	16.0	0.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49.6	14.0	14.0	6.5	15.5	0.5	100.0 (401)
$\chi^2(df)$			26.483(15)*				
지역 구분							
대도시	53.4	15.4	12.2	7.4	11.6	0.0	100.0 (337)
중소도시	47.8	15.1	14.5	9.4	12.9	0.3	100.0 (318)
농어촌	42.7	17.6	12.7	11.2	15.0	0.7	100.0 (267)
$\chi^2(df)$			11.218(10)				
교사 경력							
4년 이하	44.3	19.7	13.1	10.4	10.9	1.6	100.0 (183)
5~9년 이하	47.6	13.9	16.7	8.7	13.1	0.0	100.0 (252)
10~14년 이하	51.4	16.2	11.0	7.6	13.8	0.0	100.0 (210)
15년 이상	49.5	15.2	11.6	10.1	13.7	0.0	100.0 (277)
$\chi^2(df)$			21.294(1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교사에게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세대가 얼마나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6.8%(다소 피해 볼 것 18.3%, 매우 큰 피해 볼 것 7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8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에 그쳐 교사들은 미래세대가 보게 될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자녀 세대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0%(다소 피해 볼 것 25.0%, 매우 큰 피해 볼 것 74.0%)로 다른 설립 유형의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 경력별로 살펴보면 경력이 길수록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이 많다.

〈표 III-2-7〉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 피해 정도(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피해 보지 않을 것	거의 피해 보지 않을 것	보통	다소 피해 볼 것	매우 큰 피해 볼 것	계	평균
전체	0.0	0.1	3.0	18.3	78.5	100.0 (922)	4.8
기관 구분							
유치원	0.0	0.0	3.6	17.1	79.3	100.0 (421)	4.8
어린이집	0.0	0.2	2.6	19.4	77.8	100.0 (501)	4.7
$\chi^2(df) / t$			2.248(3)				0.3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0	0.0	1.1	17.0	81.9	100.0 (270)	4.8
사립 유치원	0.0	0.0	7.9	17.2	74.8	100.0 (151)	4.7
국공립 어린이집	0.0	0.0	1.0	25.0	74.0	100.0 (100)	4.7
그 외 어린이집	0.0	0.2	3.0	18.0	78.8	100.0 (401)	4.8
$\chi^2(df) / F$			21.666(9)*				2.5(a)
지역 구분							
대도시	0.0	0.0	4.5	17.2	78.3	100.0 (337)	4.7
중소도시	0.0	0.0	2.8	17.9	79.2	100.0 (318)	4.8
농어촌	0.0	0.4	1.5	20.2	77.9	100.0 (267)	4.8
$\chi^2(df) / F$			7.616(6)				0.2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0.0	6.0	25.1	68.9	100.0 (183)	4.6
5~9년 이하	0.0	0.0	5.2	18.7	76.2	100.0 (252)	4.7
10~14년 이하	0.0	0.0	1.4	17.1	81.4	100.0 (210)	4.8
15년 이상	0.0	0.4	0.4	14.4	84.8	100.0 (277)	4.8
$\chi^2(df) / F$			30.788(9)***				7.7*** (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이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세대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9.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주거’ 4.0%, ‘고용 및 경제활동’ 3.7%, ‘교육’ 1.6%, ‘문화 활동’ 0.5% 순이다. 공립 유치원 교사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주거’를, 사립 유치원 교사와 그 외 어린이집 교사는 ‘고용 및 경제활동’을 ‘건강’ 다음으로 피해를 볼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2-8〉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 영역(종합)

단위: %(명)

구분	건강	교육	고용 및 경제 활동	주거	문화 활동	기타	계
전체	89.6	1.6	3.7	4.0	0.5	0.5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89.1	1.9	4.0	4.5	0.0	0.5	100.0 (421)

구분	건강	교육	고용 및 경제 활동	주거	문화 활동	기타	계	
어린이집	90.0	1.4	3.4	3.6	1.0	0.6	100.0	(501)
$\chi^2(df)$			5.386(5)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93.0	0.7	2.2	3.7	0.0	0.4	100.0	(270)
사립 유치원	82.1	4.0	7.3	6.0	0.0	0.7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94.0	1.0	1.0	4.0	0.0	0.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89.0	1.5	4.0	3.5	1.2	0.7	100.0	(401)
$\chi^2(df)$			26.444(15)*					
지역 구분								
대도시	88.1	2.7	4.2	4.2	0.6	0.3	100.0	(337)
중소도시	90.3	0.6	3.8	4.7	0.3	0.3	100.0	(318)
농어촌	90.6	1.5	3.0	3.0	0.7	1.1	100.0	(267)
$\chi^2(df)$			8.881(10)					
교사 경력								
4년 이하	83.6	2.2	7.1	6.6	0.0	0.5	100.0	(183)
5~9년 이하	88.9	2.4	3.6	4.0	0.8	0.4	100.0	(252)
10~14년 이하	91.9	0.5	2.9	4.3	0.5	0.0	100.0	(210)
15년 이상	92.4	1.4	2.2	2.2	0.7	1.1	100.0	(277)
$\chi^2(df)$			21.594(1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교사에게 기후변화 문제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2.0%(약간 해결할 수 있을 것 45.8%,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36.2%)로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1점이다. 교사의 경력 이 길수록 해결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2-9〉 노력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대(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별로 해결하지 못할 것	보통	약간 해결할 수 있을 것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계	평균
전체	0.3	6.0	11.7	45.8	36.2	100.0 (922)	4.1
기관 구분							
유치원	0.5	6.2	11.9	44.7	36.8	100.0 (421)	4.1
어린이집	0.2	5.8	11.6	46.7	35.7	100.0 (501)	4.1
$\chi^2(df) / t$			0.894(4)				-0.1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7	5.6	8.5	46.3	38.9	100.0 (270)	4.2
사립 유치원	0.0	7.3	17.9	41.7	33.1	100.0 (151)	4.0

구분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별로 해결하지 못할 것	보통	약간 해결할 수 있을 것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계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0.0	9.0	12.0	50.0	29.0	100.0 (100)	4.0
그 외 어린이집	0.2	5.0	11.5	45.9	37.4	100.0 (401)	4.2
$\chi^2(df) / F$			15.783(12)				2.1
지역 구분							
대도시	0.3	5.6	13.4	46.9	33.8	100.0 (337)	4.1
중소도시	0.3	5.7	11.0	45.0	38.1	100.0 (318)	4.1
농어촌	0.4	6.7	10.5	45.3	37.1	100.0 (267)	4.1
$\chi^2(df) / F$			2.690(8)				0.5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7.7	14.2	50.3	27.9	100.0 (183)	4.0
5~9년 이하	0.0	6.7	15.9	46.0	31.3	100.0 (252)	4.0
10~14년 이하	1.0	6.7	10.5	39.0	42.9	100.0 (210)	4.2
15년 이상	0.4	3.6	7.2	47.7	41.2	100.0 (277)	4.3
$\chi^2(df) / F$			30.276(12)**				5.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2. 기후변화 감수성, 실천 역량 및 지식

가. 기후변화 감수성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감수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11개 문항 모두에서 긍정 응답이 과반을 차지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75.7%(그런 편이다 54.8%, 매우 그렇다 20.9%),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를 알고 있다’ 문항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5.1%(그런 편이다 50.5%, 매우 그렇다 14.6%)로 나타났다.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문항에는 71.1%(그런 편이다 54.2%, 매우 그렇다 16.9%)가,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문항에는 89.1%(그런 편이다 48.3%, 매우 그렇다 40.8%)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스럽다’ 문항에는 89.8%(그런 편이다 51.0%, 매우 그렇다 38.8%)가,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문항에는 91.7%(그런 편이다 43.1%, 매우 그렇다 4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문항에는 79.7%(그런 편이다 52.7%, 매우 그렇다 27.0%)가,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문항에는 90.4%(그런 편이다 51.8%, 매우 그렇다 3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항에는 93.2%(그런 편이다 34.7%, 58.5%)가,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에는 91.8%(그런 편이다 43.8%, 매우 그렇다 48.0%)가, ‘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문항에는 90.8%(그런 편이다 47.7%, 매우 그렇다 43.1%)가 그렇다고 답했다.

〈표 III-2-10〉 기후변화 감수성(종합)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	평균
		1	2	3	4	5			
1.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2	0.2	1.8	22.2	54.8	20.9	75.7	100.0 (922)	3.9
2.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를 알고 있다	5.3	0.5	4.8	29.5	50.5	14.6	65.1	100.0 (922)	3.7
3.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4	0.4	4.0	24.4	54.2	16.9	71.1	100.0 (922)	3.8
4.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1.9	0.4	1.5	9.0	48.3	40.8	89.1	100.0 (922)	4.3
5.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스럽다	1.2	0.2	1.0	9.0	51.0	38.8	89.8	100.0 (922)	4.3
6.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0.5	0.2	0.3	7.8	43.1	48.6	91.7	100.0 (922)	4.4
7.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3.7	0.7	3.0	16.6	52.7	27.0	79.7	100.0 (922)	4.0
8.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1.2	0.0	1.2	8.4	51.8	38.6	90.4	100.0 (922)	4.3
9.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0.2	0.0	0.2	6.6	34.7	58.5	93.2	100.0 (922)	4.5
10.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0.7	0.0	0.7	7.5	43.8	48.0	91.8	100.0 (922)	4.4
11. 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0.4	0.0	0.4	8.8	47.7	43.1	90.8	100.0 (922)	4.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나.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비용을 아끼거나 개인의 선호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거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12개 문항 각각에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 온도(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에는 75.5%(그런 편이다 43.5%, 매우 그렇다 32.0%)가, ‘방에서 나갈 때 전기 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에는 84.6%(그런 편이다 37.9%, 매우 그렇다 46.7%)가 그렇다고 답했다. ‘과대 포장인 제품들은 사지 않는다’에는 55.3%(그런 편이다 38.9%, 매우 그렇다 16.4%)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텀블러나 장바구니 등)을 가지고 다닌다’에는 72.3%(그런 편이다 36.2%, 매우 그렇다 36.1%)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받는다’에는 69.7%(그런 편이다 41.3%, 28.4%)가, ‘산이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에는 93.4%(그런 편이다 34.6%, 항상 그렇다 58.8%)가, ‘고기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와 고기를 균형 있게 섭취한다’에는 52.4%(그런 편이다 35.9%, 항상 그렇다 16.5%)가,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쓴다’에는 68.1%(그런 편이다 45.4%, 항상 그렇다 22.7%)가, ‘분리수거가 되는 품목을 잘 알고 철저하게 분리수거한다’에는 80.8%(그런 편이다 44.5%, 항상 그렇다 36.3%)가 긍정 응답을 하였다.

반면 ‘물건을 살 때 친환경 마크(저탄소 제품, 친환경 인증 등)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다’에는 47.1%(그런 편이다 34.6%, 항상 그렇다 12.5%)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에는 32.8%(그런 편이다 17.8%, 항상 그렇다 15.0%)가, ‘가능한 한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먹지 않는다’에는 47.1%(그런 편이다 29.1%, 항상 그렇다 18.0%)가 그렇다고 답하여 긍정 응답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 III-2-11〉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종합)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	평균
		1	2		4	5			
1.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 온도(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7.2	0.3	6.9	17.2	43.5	32.0	75.5	100.0 (922)	4.0
2. 방에서 나갈 때 전기 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	4.6	0.2	4.4	10.7	37.9	46.7	84.6	100.0 (922)	4.3
3. 물건을 살 때 친환경 마크(저탄소 제품, 친환경 인증 등)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다	15.3	1.7	13.6	37.6	34.6	12.5	47.1	100.0 (922)	3.4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	평균
		1	2	3	4	5			
친환경 인증 등)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다									
4. 과대 포장인 제품은 사지 않는다	12.7	1.2	11.5	32.0	38.9	16.4	55.3	100.0 (922)	3.6
5.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39.5	9.7	29.8	27.8	17.8	15.0	32.8	100.0 (922)	3.0
6.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텀블러나 장바구니 등)을 가지고 다닌다	7.7	1.1	6.6	20.0	36.2	36.1	72.3	100.0 (922)	4.0
7. 형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9.3	1.6	7.7	20.9	41.3	28.4	69.7	100.0 (922)	3.9
8. 산이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0.5	0.1	0.4	6.1	34.6	58.8	93.4	100.0 (922)	4.5
9. 고기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와 고기를 균형 있게 섭취한다	13.5	1.5	12.0	34.1	35.9	16.5	52.4	100.0 (922)	3.5
10.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쓴다	4.3	0.1	4.2	27.5	45.4	22.7	68.1	100.0 (922)	3.9
11. 분리수거가 되는 품목을 잘 알고 철저히 분리수거한다	1.8	0.1	1.7	17.4	44.5	36.3	80.8	100.0 (922)	4.2
12. 가능한 한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먹지 않는다	21.5	3.6	17.9	31.5	29.1	18.0	47.1	100.0 (922)	3.4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3.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경험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한 연수 경험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후변화 교육 관심도, 경험, 연수 방식, 유형, 관심 주제 등을 질문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교육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관심이 있다는 긍정 응답이 85.8%(그렇다 53.6%, 매우 그렇다 32.2%), 보통이 13.4%,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0.8%(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0.8%)로 나타났다. 전체 교사의 85% 이상이 기후변화 교육에 관심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평균 4.1점)보다 유치원 교사(평균 4.3점)가, 기관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평균 4.4점)가, 교사 경력별로는 15년 이상 교사(평균 4.3점)가 기후변화 교육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2-12〉 기후변화 교육 관심 정도(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0	0.8	13.4	53.6	32.2	100.0 (922)	4.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기관 구분							
유치원	0.0	1.0	8.6	51.3	39.2	100.0 (421)	4.3
어린이집	0.0	0.6	17.6	55.5	26.3	100.0 (501)	4.1
$\chi^2(df) / t$			26.657(3)***				4.8***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0	0.4	5.6	51.5	42.6	100.0 (270)	4.4
사립 유치원	0.0	2.0	13.9	51.0	33.1	100.0 (151)	4.2
국공립 어린이집	0.0	0.0	20.0	56.0	24.0	100.0 (100)	4.0
그 외 어린이집	0.0	0.7	17.0	55.4	26.9	100.0 (401)	4.1
$\chi^2(df) / F$			39.079(9)***				11.1***
지역 구분							
대도시	0.0	1.2	15.7	52.5	30.6	100.0 (337)	4.1
중소도시	0.0	0.9	11.0	56.9	31.1	100.0 (318)	4.2
농어촌	0.0	0.0	13.5	50.9	35.6	100.0 (267)	4.2
$\chi^2(df) / F$			8.113(6)				1.6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1.1	13.1	58.5	27.3	100.0 (183)	4.1
5~9년 이하	0.0	0.8	16.3	57.5	25.4	100.0 (252)	4.1
10~14년 이하	0.0	1.4	18.1	49.0	31.4	100.0 (210)	4.1
15년 이상	0.0	0.0	7.6	50.2	42.2	100.0 (277)	4.3
$\chi^2(df) / F$			32.216(9)***				9.1***(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전체 교사의 72.2%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는 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3.2%로 높으며, 그 외 어린이집 교사도 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4.8%로 공립·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경력별로는 경력이 낮을수록 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III-2-13〉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경험(종합)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27.8	72.2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40.9	59.1	100.0 (421)
어린이집	16.8	83.2	100.0 (501)
$\chi^2(df) / t$		66.185(1)***	
기관 설립 유형			

구분	있다	없다	계	
공립 유치원	39.6	60.4	100.0	(270)
사립 유치원	43.0	57.0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23.0	77.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15.2	84.8	100.0	(401)
$\chi^2(df) / F$	69.169(3)***			
지역 구분				
대도시	27.6	72.4	100.0	(337)
중소도시	26.1	73.9	100.0	(318)
농어촌	30.0	70.0	100.0	(267)
$\chi^2(df) / F$	1.087(2)			
교사 경력				
4년 이하	13.7	86.3	100.0	(183)
5~9년 이하	26.6	73.4	100.0	(252)
10~14년 이하	27.6	72.4	100.0	(210)
15년 이상	38.3	61.7	100.0	(277)
$\chi^2(df) / F$	33.559(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적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받은 연수 기관은 ‘교육연수원’이 61.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시도 교육청(본청)’ 18.6%, ‘지역 교육지원청’ 16.9%, ‘유아교육진흥원’ 13.4%, ‘기타’ 12.8%, ‘학회’ 7.0%의 순이다.

〈표 III-2-14〉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기관(유치원 교사만 응답)

단위: %(명)

구분	시도 교육청(본청)	지역 교육 지원청	유아교육 진흥원	교육연수원	학회	기타	계
전체	18.6	16.9	13.4	61.6	7.0	12.8	(172)
유치원 설립 유형							
공립 병설	22.2	17.2	10.1	66.7	5.1	12.1	(99)
공립 단설	25.0	0.0	12.5	75.0	12.5	12.5	(8)
사립 사인	10.9	19.6	17.4	56.5	8.7	13.0	(46)
사립 법인	15.8	15.8	21.1	42.1	10.5	15.8	(19)
유치원 공·사립							
공립	22.4	15.9	10.3	67.3	5.6	12.1	(107)
사립	12.3	18.5	18.5	52.3	9.2	13.8	(65)
유치원 규모							
50인 이하	21.0	16.0	11.0	66.0	4.0	13.0	(100)
51~100인 이하	19.4	25.0	19.4	55.6	11.1	8.3	(36)
101인 이상	11.1	11.1	13.9	55.6	11.1	16.7	(36)
지역 구분							
대도시	17.7	17.7	27.4	56.5	11.3	9.7	(62)

구분	시도 교육청(본청)	지역 교육 지원청	유아교육 진흥원	교육연수원	학회	기타	계
중소도시	21.6	21.6	9.8	56.9	5.9	15.7	(51)
농어촌	16.9	11.9	1.7	71.2	3.4	13.6	(59)
교사 경력							
4년 이하	5.0	25.0	10.0	65.0	5.0	15.0	(20)
5~9년 이하	23.4	21.3	17.0	53.2	4.3	6.4	(47)
10~14년 이하	30.3	12.1	9.1	66.7	9.1	15.2	(33)
15년 이상	13.9	13.9	13.9	63.9	8.3	15.3	(7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교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수했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기타’ 27.4%, ‘한국보육진흥원’ 19.0%, ‘학회’ 11.9%, ‘보육교사교육원’ 10.7%의 순이다.

〈표 III-2-15〉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교육 관련 보수교육 기관(어린이집 교사만 응답)

단위: %(명)

구분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역·기초지자체)	한국보육 진흥원	학회	보육교사교육원	기타	계
전체	57.1	19.0	11.9	10.7	27.4	(84)
어린이집 설립 유형						
국공립	56.5	26.1	13.0	13.0	21.7	(23)
민간	55.6	11.1	11.1	5.6	27.8	(18)
가정	64.7	35.3	17.6	23.5	17.6	(17)
그 외	53.8	7.7	7.7	3.8	38.5	(26)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국공립	56.5	26.1	13.0	13.0	21.7	(23)
그 외	57.4	16.4	11.5	9.8	29.5	(61)
어린이집 규모						
20인 이하	61.5	26.9	15.4	19.2	19.2	(26)
21인~40인 이하	63.6	18.2	18.2	13.6	22.7	(22)
41인~80인 이하	48.0	16.0	4.0	4.0	40.0	(25)
81인 이상	54.5	9.1	9.1	0.0	27.3	(11)
지역 구분						
대도시	48.4	9.7	6.5	9.7	38.7	(31)
중소도시	59.4	31.3	18.8	12.5	21.9	(32)
농어촌	66.7	14.3	9.5	9.5	19.0	(21)
교사 경력						
4년 이하	60.0	20.0	0.0	20.0	20.0	(5)
5~9년 이하	55.0	15.0	10.0	20.0	20.0	(20)
10~14년 이하	72.0	12.0	8.0	8.0	20.0	(25)
15년 이상	47.1	26.5	17.6	5.9	38.2	(34)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연수 방식을 질문한 결과 ‘온라인으로 이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7%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집합 교육’ 17.6%, ‘집합+온라인 병행’이 14.5%의 순이다.

〈표 III-2-16〉 기후변화 연수 방식(복수 선택)(종합)

단위: %(명)

구분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온라인 병행	계
전체	17.6	77.7	14.5	(256)
기관 구분				
유치원	16.3	80.8	12.2	(172)
어린이집	20.2	71.4	19.0	(8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15.0	81.3	13.1	(107)
사립 유치원	18.5	80.0	10.8	(65)
국공립 어린이집	17.4	87.0	4.3	(23)
그 외 어린이집	21.3	65.6	24.6	(61)
지역 구분				
대도시	17.2	79.6	15.1	(93)
중소도시	21.7	75.9	14.5	(83)
농어촌	13.8	77.5	13.8	(80)
교사 경력				
4년 이하	28.0	88.0	4.0	(25)
5~9년 이하	14.9	77.6	13.4	(67)
10~14년 이하	10.3	77.6	19.0	(58)
15년 이상	20.8	75.5	15.1	(106)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기후변화 교육 연수 유형으로는 ‘직무 연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67.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기타’ 19.9%, ‘자격 연수 시 과목으로 포함되어 이수’ 19.5%의 순이다.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그 외 어린이집은 ‘기타’ 유형의 이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20%가 넘는 반면, 공립 유치원은 ‘기타’ 유형의 이수가 7.5%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낮다.

〈표 III-2-17〉 기후변화 연수 유형(복수 선택)(종합)

단위: %(명)

구분	자격 연수 시 과목으로 포함되어 이수	직무 연수	기타	계
전체	19.5	67.6	19.9	(256)
기관 구분				
유치원	16.3	80.2	12.2	(172)
어린이집	26.2	41.7	35.7	(8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16.8	84.1	7.5	(107)

구분	자격 연수 시 과목으로 포함되어 이수	직무 연수	기타	계
사립 유치원	15.4	73.8	20.0	(65)
국공립 어린이집	26.1	26.1	52.2	(23)
그 외 어린이집	26.2	47.5	29.5	(61)
지역 구분				
대도시	24.7	63.4	21.5	(93)
중소도시	21.7	65.1	19.3	(83)
농어촌	11.3	75.0	18.8	(80)
교사 경력				
4년 이하	16.0	80.0	12.0	(25)
5~9년 이하	22.4	67.2	17.9	(67)
10~14년 이하	22.4	67.2	15.5	(58)
15년 이상	17.0	65.1	25.5	(106)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지난 5년간 교육받은 횟수는 1회가 59.8%, 2회가 23.4%, 3회가 7.4%, 5회 이상이 7.0%, 4회 이상이 2.3%로 평균 1.9회이다.

〈표 III-2-18〉 기후변화 연수 횟수(종합)

단위: %(명), 회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평균
전체	59.8	23.4	7.4	2.3	7.0	100.0 (256)	1.9
기관 구분							
유치원	61.6	22.1	7.0	2.9	6.4	100.0 (172)	1.8
어린이집	56.0	26.2	8.3	1.2	8.3	100.0 (84)	2.3
$\chi^2(df) / t$			1.859(4)			-1.2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62.6	23.4	7.5	1.9	4.7	100.0 (107)	1.6
사립 유치원	60.0	20.0	6.2	4.6	9.2	100.0 (65)	2.0
국공립 어린이집	60.9	26.1	8.7	0.0	4.3	100.0 (23)	1.6
그 외 어린이집	54.1	26.2	8.2	1.6	9.8	100.0 (61)	2.5
$\chi^2(df) / F$			5.733(12)			1.8(a)	
지역 구분							
대도시	53.8	24.7	7.5	5.4	8.6	100.0 (93)	2.3
중소도시	63.9	21.7	6.0	1.2	7.2	100.0 (83)	1.8
농어촌	62.5	23.8	8.8	0.0	5.0	100.0 (80)	1.7
$\chi^2(df) / F$			8.265(8)			1.8(a)	
교사 경력							
4년 이하	68.0	24.0	0.0	0.0	8.0	100.0 (25)	2.0
5~9년 이하	64.2	19.4	7.5	3.0	6.0	100.0 (67)	2.1
10~14년 이하	55.2	27.6	5.2	3.4	8.6	100.0 (58)	2.0
15년 이상	57.5	23.6	10.4	1.9	6.6	100.0 (106)	1.8
$\chi^2(df) / F$			6.665(12)			0.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기후변화 교육의 전체 연수 시간은 ‘7시간 이상’이 35.5%로 가장 많고 ‘1~2시간’ 34.8%, ‘3~4시간’ 21.5%, ‘5~6시간’ 8.2% 순이며 평균치는 8.5시간이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연수 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 평균 5.0시간인 어린이집 교사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그 외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순으로 평균 기후변화 연수 시간이 많다.

〈표 III-2-19〉 기후변화 연수 시간(종합)

단위: %(명), 시간

구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34.8	21.5	8.2	35.5	100.0 (256)	8.5
기관 구분						
유치원	26.2	21.5	6.4	45.9	100.0 (172)	10.2
어린이집	52.4	21.4	11.9	14.3	100.0 (84)	5.0
$\chi^2(df) / t$		29.146(3)***				4.3***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23.4	14.0	7.5	55.1	100.0 (107)	12.7
사립 유치원	30.8	33.8	4.6	30.8	100.0 (65)	6.2
국공립 어린이집	60.9	17.4	17.4	4.3	100.0 (23)	3.0
그 외 어린이집	49.2	23.0	9.8	18.0	100.0 (61)	5.7
$\chi^2(df) / F$		47.282(9)***				10.4***(a)
지역 구분						
대도시	32.3	25.8	6.5	35.5	100.0 (93)	8.3
중소도시	41.0	16.9	10.8	31.3	100.0 (83)	9.0
농어촌	31.3	21.3	7.5	40.0	100.0 (80)	8.2
$\chi^2(df) / F$		4.968(6)				0.1
교사 경력						
4년 이하	36.0	24.0	0.0	40.0	100.0 (25)	5.8
5~9년 이하	32.8	25.4	6.0	35.8	100.0 (67)	8.6
10~14년 이하	44.8	19.0	5.2	31.0	100.0 (58)	7.6
15년 이상	30.2	19.8	13.2	36.8	100.0 (106)	9.6
$\chi^2(df) / F$		10.128(9)				1.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최근 5년간 받은 기후변화 연수의 주제는 ‘기후변화의 문제점과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중요성’이 77.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44.1%, ‘기후변화 교육 이론’ 17.2%, ‘기후변화 교육 평가’ 5.1%, ‘기타’ 1.6% 순이다.

〈표 III-2-20〉 기후변화 연수 주제·내용(복수 선택)(종합)

단위: %(명)

구분	기후변화의 문제점과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중요성	기후변화 교육 이론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기후변화 교육 평가	기타	계
전체	77.3	17.2	44.1	5.1	1.6	(256)
기관 구분						
유치원	75.6	16.3	45.3	2.9	1.7	(172)
어린이집	81.0	19.0	41.7	9.5	1.2	(8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79.4	14.0	51.4	4.7	1.9	(107)
사립 유치원	69.2	20.0	35.4	0.0	1.5	(65)
국공립 어린이집	82.6	21.7	43.5	17.4	4.3	(23)
그 외 어린이집	80.3	18.0	41.0	6.6	0.0	(61)
지역 구분						
대도시	73.1	17.2	45.2	3.2	2.2	(93)
중소도시	81.9	19.3	47.0	8.4	1.2	(83)
농어촌	77.5	15.0	40.0	3.8	1.3	(80)
교사 경력						
4년 이하	72.0	32.0	24.0	4.0	0.0	(25)
5~9년 이하	80.6	19.4	55.2	4.5	3.0	(67)
10~14년 이하	77.6	13.8	43.1	5.2	1.7	(58)
15년 이상	76.4	14.2	42.5	5.7	0.9	(106)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 관련 주제를 스스로 알아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은 48.9%, 없다는 응답은 51.1%로 스스로 알아본 적이 없는 교사가 알아본 교사보다 약간 많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는 주제를 스스로 알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58.9%로 어린이집 교사(40.5%)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립 유치원 교사의 64.1%가 주제를 스스로 알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대도시(44.5%)와 중소도시(46.2%)보다 농어촌의 교사(55.6%)가 스스로 주제를 알아본 경험이 더 많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1〉 기후변화 교육 관련 주제를 스스로 알아본 경험(종합)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48.9	51.1	100.0 (922)

구분	있다	없다	계	
기관 구분				
유치원	58.9	41.1	100.0	(421)
어린이집	40.5	59.5	100.0	(501)
$\chi^2(df)$	30.956(1)***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64.1	35.9	100.0	(270)
사립 유치원	49.7	50.3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48.0	52.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38.7	61.3	100.0	(401)
$\chi^2(df)$	41.796(3)***			
지역 구분				
대도시	44.5	55.5	100.0	(337)
중소도시	46.2	53.8	100.0	(318)
농어촌	57.7	42.3	100.0	(267)
$\chi^2(df)$	11.741(2)**			
교사 경력				
4년 이하	44.3	55.7	100.0	(183)
5~9년 이하	47.6	52.4	100.0	(252)
10~14년 이하	45.7	54.3	100.0	(210)
15년 이상	55.6	44.4	100.0	(277)
$\chi^2(df)$	7.563(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기후변화 교육 관련 주제를 스스로 알아본 적이 있는 교사들이 주제를 알아본 경로는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유튜브 시청 등)’이 46.1%로 절반에 가까우며 ‘웹(온라인) 자료(인터넷 검색)’가 39.2%로 뒤를 이었다. 이로써 대다수 교사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하여 자료를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체험관 견학’(6.2%)과 ‘도서 탐독’(6.0%) 같은 직접 방문 및 실물 자료를 통한 경로는 상대적으로 적다.

〈표 III-2-22〉 기후변화 교육 관련 주제 채널 경로(종합)

단위: %(명)

구분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유튜브 시청 등)	도서 탐독	체험관 견학	웹(온라인) 자료(인터넷 검색)	기타	계
전체	46.1	6.0	6.2	39.2	2.4	100.0 (451)
기관 구분						
유치원	40.3	7.3	7.3	43.1	2.0	100.0 (248)
어린이집	53.2	4.4	4.9	34.5	3.0	100.0 (203)
$\chi^2(df)$	9.019(4)					

구분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유튜브 시청 등)	도서 탐독	체험관 견학	웹(온라인) 자료(인터넷 검색)	기타	계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41.0	8.1	8.1	41.0	1.7	100.0	(173)
사립 유치원	38.7	5.3	5.3	48.0	2.7	100.0	(75)
국공립 어린이집	54.2	2.1	4.2	31.3	8.3	100.0	(48)
그 외 어린이집	52.9	5.2	5.2	35.5	1.3	100.0	(155)
$\chi^2(df)$			19.494(12)				
지역 구분							
대도시	45.3	6.0	4.0	42.7	2.0	100.0	(150)
중소도시	46.3	4.8	8.2	36.7	4.1	100.0	(147)
농어촌	46.8	7.1	6.5	38.3	1.3	100.0	(154)
$\chi^2(df)$			6.133(8)				
교사 경력							
4년 이하	48.1	3.7	7.4	40.7	0.0	100.0	(81)
5~9년 이하	44.2	5.0	5.0	44.2	1.7	100.0	(120)
10~14년 이하	49.0	6.3	4.2	37.5	3.1	100.0	(96)
15년 이상	44.8	7.8	7.8	35.7	3.9	100.0	(154)
$\chi^2(df)$			9.029(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4. 유치원·어린이집의 기후변화 교육 실태

가. 유치원·어린이집 기후변화 교육 경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지, 그 경험이 많은지를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6%(약간 있다 49.8%, 매우 많다 9.8%), 없다는 응답은 40.5%(전혀 없다 6.4%, 거의 없다 34.1%)로 나타나 경험이 있는 교사가 없는 교사보다 조금 더 많다.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6점이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평균 2.4점)보다 유치원 교사(평균 2.9점)가, 기관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평균 3.0점)가, 경력별로는 15년 이상인 교사(평균 2.8점)가 경험이 많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2-23〉 기후변화 교육 실시 경험(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계	평균
전체	6.4	34.1	49.8	9.8	100.0 (922)	2.6
기관 구분						
유치원	2.6	22.6	60.1	14.7	100.0 (421)	2.9
어린이집	9.6	43.7	41.1	5.6	100.0 (501)	2.4
$\chi^2(df) / t$		83.516(3)***				9.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1.1	19.6	61.9	17.4	100.0 (270)	3.0
사립 유치원	5.3	27.8	57.0	9.9	100.0 (151)	2.7
국공립 어린이집	4.0	44.0	47.0	5.0	100.0 (100)	2.5
그 외 어린이집	11.0	43.6	39.7	5.7	100.0 (401)	2.4
$\chi^2(df) / F$		101.079(9)**				34.2*** (a)
지역 구분						
대도시	8.0	38.6	46.6	6.8	100.0 (337)	2.5
중소도시	5.3	33.0	50.3	11.3	100.0 (318)	2.7
농어촌	5.6	29.6	53.2	11.6	100.0 (267)	2.7
$\chi^2(df) / F$		11.896(6)				5.6**
교사 경력						
4년 이하	7.7	39.9	44.8	7.7	100.0 (183)	2.5
5~9년 이하	4.0	38.9	49.6	7.5	100.0 (252)	2.6
10~14년 이하	9.5	36.2	43.3	11.0	100.0 (210)	2.6
15년 이상	5.4	24.2	58.1	12.3	100.0 (277)	2.8
$\chi^2(df) / F$		28.900(9)**				5.4** (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영유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 549명을 대상으로 교육의 중심이 되는 요소를 알아보았다. ‘기후변화 영향’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기후변화 원인’ 28.8%, ‘기후변화 완화(감축)’ 18.9%, ‘기후변화 현상과 원리’ 8.7%, ‘기후변화 적응’ 4.2%의 순이다.

〈표 III-2-24〉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시 교육 내용(종합)

단위: %(명)

구분	기후변화 현상과 원리	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감축)	계
전체	8.7	28.8	39.3	4.2	18.9	100.0 (549)
기관 구분						
유치원	8.6	28.3	37.5	3.5	22.2	100.0 (315)
어린이집	9.0	29.5	41.9	5.1	14.5	100.0 (234)
$\chi^2(df)$		5.814(4)				

구분	기후변화 현상과 원인	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감축)	계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7.5	23.4	40.7	3.7	24.8	100.0 (214)
사립 유치원	10.9	38.6	30.7	3.0	16.8	100.0 (101)
국공립 어린이집	5.8	34.6	40.4	5.8	13.5	100.0 (52)
그 외 어린이집	9.9	28.0	42.3	4.9	14.8	100.0 (182)
$\chi^2(df)$			17.921(12)			
지역 구분						
대도시	7.8	35.6	33.9	2.8	20.0	100.0 (180)
중소도시	7.1	29.6	41.3	4.1	17.9	100.0 (196)
농어촌	11.6	20.8	42.8	5.8	19.1	100.0 (173)
$\chi^2(df)$			13.283(8)			
교사 경력						
4년 이하	5.2	26.0	46.9	4.2	17.7	100.0 (96)
5~9년 이하	7.6	31.3	39.6	2.8	18.8	100.0 (144)
10~14년 이하	6.1	28.9	43.9	5.3	15.8	100.0 (114)
15년 이상	12.8	28.2	32.8	4.6	21.5	100.0 (195)
$\chi^2(df)$			13.284(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기후변화 교육 방법으로는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행사 운영(지구촌 전등 끄기 기념일 등), 캠페인 등’이 39.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놀이 활동’ 31.9%, ‘다큐멘터리 시청’ 15.5%, ‘과학관, 센터 등 기관 방문’ 11.7%, ‘기타’ 1.8% 순이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행사 운영(지구촌 전등 끄기 기념일 등), 캠페인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어린이집은 ‘놀이 활동’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기관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은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행사 운영(지구촌 전등 끄기 기념일 등), 캠페인 등’이라고, 국공립 어린이집, 그 외 어린이집은 ‘놀이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대도시, 중소도시에서는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행사 운영(지구촌 전등 끄기 기념일 등), 캠페인 등’이라는 응답이, 농어촌에서는 ‘놀이 활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표 III-2-25〉 기후변화 교육 실시 방법(종합)

단위: %(명)

구분	다큐멘터리 시청	과학관, 센터 등 기관 방문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행사 운영(지구촌 전등 끄기 기념일 등), 캠페인 등	놀이 활동	기타	계
전체	15.5	11.7	39.2	31.9	1.8	100.0 (549)
기관 구분						

구분	다큐멘터리 시청	과학관, 센터 등 기관 방문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행사 운영(지구촌 전등 끄기 기념일 등), 캠페인 등	놀이 활동	기타	계
유치원	16.8	11.1	43.2	26.7	2.2	100.0 (315)
어린이집	13.7	12.4	33.8	38.9	1.3	100.0 (234)
$\chi^2(df)$			11.032(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18.2	7.5	41.6	31.3	1.4	100.0 (214)
사립 유치원	13.9	18.8	46.5	16.8	4.0	100.0 (101)
국공립 어린이 집	13.5	7.7	34.6	42.3	1.9	100.0 (52)
그 외 어린이집	13.7	13.7	33.5	37.9	1.1	100.0 (182)
$\chi^2(df)$			28.522(12)**			
지역 구분						
대도시	16.1	12.8	36.7	32.2	2.2	100.0 (180)
중소도시	11.2	13.3	47.4	26.5	1.5	100.0 (196)
농어촌	19.7	8.7	32.4	37.6	1.7	100.0 (173)
$\chi^2(df)$			15.780(8)*			
교사 경력						
4년 이하	17.7	15.6	43.8	20.8	2.1	100.0 (96)
5~9년 이하	16.0	11.8	33.3	36.8	2.1	100.0 (144)
10~14년 이하	12.3	10.5	42.1	35.1	0.0	100.0 (114)
15년 이상	15.9	10.3	39.5	31.8	2.6	100.0 (195)
$\chi^2(df)$			12.778(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나.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 필요성

기후변화 교육 실시 경험과는 별개로 영유아 대상의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전체 교사의 90.9%(그렇다 47.7%, 매우 그렇다 43.2%)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보통은 7.5%, 그렇지 않다는 1.6%(전혀 그렇지 않다 0.1%, 그렇지 않다 1.5%)이다. 기후변화 교육 필요성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3점이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평균 4.2점)보다 유치원 교사(평균 4.4점)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기관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평균 4.5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유형의 교사들보다 비교적 높다.

〈표 III-2-26〉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 필요성(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0.1	1.5	7.5	47.7	43.2	100.0 (922)	4.3
기관 구분							
유치원	0.0	1.2	5.2	42.0	51.5	100.0 (421)	4.4
어린이집	0.2	1.8	9.4	52.5	36.1	100.0 (501)	4.2
$\chi^2(df) / t$			24.509(4)***				4.8***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0	0.7	2.6	41.9	54.8	100.0 (270)	4.5
사립 유치원	0.0	2.0	9.9	42.4	45.7	100.0 (151)	4.3
국공립 어린이집	0.0	1.0	6.0	58.0	35.0	100.0 (100)	4.3
그 외 어린이집	0.2	2.0	10.2	51.1	36.4	100.0 (401)	4.2
$\chi^2(df) / F$			38.064(12)***				10.3***
지역 구분							
대도시	0.0	1.8	10.1	46.0	42.1	100.0 (337)	4.3
중소도시	0.0	1.9	6.6	49.4	42.1	100.0 (318)	4.3
농어촌	0.4	0.7	5.2	47.9	45.7	100.0 (267)	4.4
$\chi^2(df) / F$			10.057(8)				1.4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2.2	6.6	54.1	37.2	100.0 (183)	4.3
5~9년 이하	0.0	0.8	9.1	50.0	40.1	100.0 (252)	4.3
10~14년 이하	0.0	1.9	9.5	46.2	42.4	100.0 (210)	4.3
15년 이상	0.4	1.4	5.1	42.6	50.5	100.0 (277)	4.4
$\chi^2(df) / F$			17.492(12)				2.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향후 기후변화 교육 방안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영유아 대상의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 90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현재와 미래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23.7%,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12.2%,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7.5%, ‘기타’ 0.3% 순이다.

응답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는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현재와 미래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순으로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현재와 미래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관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교사는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현재와 미래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 외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현재와 미래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27〉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종합)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현재와 미래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기타	계
전체	12.2	56.2	7.5	23.7	0.3	100.0 (907)
기관 구분						
유치원	18.0	52.4	5.8	23.8	0.0	100.0 (416)
어린이집	7.3	59.5	9.0	23.6	0.6	100.0 (491)
$\chi^2(df)$		28.661(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20.9	51.9	5.2	22.0	0.0	100.0 (268)
사립 유치원	12.8	53.4	6.8	27.0	0.0	100.0 (148)
국공립 어린이집	8.1	57.6	9.1	24.2	1.0	100.0 (99)
그 외 어린이집	7.1	59.9	8.9	23.5	0.5	100.0 (392)
$\chi^2(df)$		35.823(12)***				
지역 구분						
대도시	11.2	55.3	7.6	25.7	0.3	100.0 (331)
중소도시	12.8	55.8	9.3	21.8	0.3	100.0 (312)
농어촌	12.9	58.0	5.3	23.5	0.4	100.0 (264)
$\chi^2(df)$		4.782(8)				
교사 경력						
4년 이하	11.7	57.5	10.1	20.1	0.6	100.0 (179)
5~9년 이하	14.4	52.4	8.4	24.4	0.4	100.0 (250)
10~14년 이하	10.2	59.7	3.9	25.7	0.5	100.0 (206)

구분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현재와 미래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기타	계
15년 이상	12.1	56.3	7.7	23.9	0.0	100.0 (272)
$\chi^2(df)$			11.041(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영유아 대상의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후변화 교육 형태의 1, 2 순위를 묻은 결과 1순위로는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 63.9%, ‘놀이 활동’ 16.6%,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12.3%, ‘지식 전달 교육’ 4.1% 순으로 꼽았다. 응답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와 경력이 10~14년 이하 및 15년 이상인 교사가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응답으로는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이 44.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놀이 활동’ 23.1%,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 20.0%, ‘영상 매체 활용(유튜브 등)’ 7.5%, ‘지식 전달 교육’ 4.4% 순이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이라는 응답이 80.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50.4%, ‘놀이 활동’ 36.3%, ‘영상 매체 활용(유튜브 등)’ 9.4%, ‘지식 전달 교육’ 7.8% 순이다.

〈표 III-2-28〉 기후변화 교육 형태(1순위, 2순위)(종합)

단위: %(명)

구분	지식 전달 교육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	놀이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영상 매체 활용(유튜브 등)	기타	계
1순위	4.1	63.9	16.6	12.3	3.0	0.0	100.0 (907)
기관 구분							
유치원	4.1	64.2	15.1	13.5	3.1	0.0	100.0 (416)
어린이집	4.1	63.7	17.9	11.4	2.9	0.0	100.0 (491)
$\chi^2(df)$			1.879(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1.1	67.9	17.2	10.4	3.4	0.0	100.0 (268)
사립 유치원	9.5	57.4	11.5	18.9	2.7	0.0	100.0 (148)
국공립 어린이집	4.0	61.6	18.2	12.1	4.0	0.0	100.0 (99)
그 외 어린이집	4.1	64.3	17.9	11.2	2.6	0.0	100.0 (392)
$\chi^2(df)$			28.031(12)**				
지역 구분							
대도시	6.3	62.8	13.9	13.9	3.0	0.0	100.0 (331)

구분	지식 전달 교육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	놀이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영상 매체 활용(유튜브 등)	기타	계
중소도시	2.9	63.1	18.3	12.8	2.9	0.0	100.0 (312)
농어촌	2.7	66.3	18.2	9.8	3.0	0.0	100.0 (264)
$\chi^2(df)$			11.314(8)				
교사 경력							
4년 이하	3.4	61.5	23.5	7.8	3.9	0.0	100.0 (179)
5~9년 이하	5.2	57.2	17.6	18.0	2.0	0.0	100.0 (250)
10~14년 이하	2.9	68.4	12.1	12.1	4.4	0.0	100.0 (206)
15년 이상	4.4	68.4	14.7	10.3	2.2	0.0	100.0 (272)
$\chi^2(df)$			27.056(12)**				
2순위	4.4	20.0	23.1	44.9	7.5	0.0	100.0 (769)
1+2순위	7.8	80.9	36.3	50.4	9.4	0.0	- (907)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영유아 대상의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15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내용이 영유아 발달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 46.7%,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 26.7%, '가정에서의 교육이 영유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13.3%, '기후변화 교육보다는 다른 교육 내용에 더 충실해야 하기 때문'과 '기타' 6.7% 순으로 답했다.

〈표 III-2-29〉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종합)

단위: %(명)

구분	내용이 영유아 발달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	가정에서의 교육이 영유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기후변화 교육보다는 다른 교육 내용에 더 충실해야 하기 때문	기타	계
전체	46.7	26.7	13.3	6.7	6.7	100.0 (15)
기관 구분						
유치원	20.0	40.0	20.0	20.0	0.0	100.0 (5)
어린이집	60.0	20.0	10.0	0.0	10.0	100.0 (10)
$\chi^2(df)$			4.393(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0	0.0	50.0	50.0	0.0	100.0 (2)
사립 유치원	33.3	66.7	0.0	0.0	0.0	100.0 (3)
국공립 어린이집	100.0	0.0	0.0	0.0	0.0	100.0 (1)
그 외 어린이집	55.6	22.2	11.1	0.0	11.1	100.0 (9)
$\chi^2(df)$			14.226(12)			
지역 구분						

구분	내용이 영유아 발달 수준에 맞지 않을 때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	가정에서의 교육이 영유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기후변화 교육보다는 다른 교육 내용에 더 충실해야 하기 때문	기타	계
대도시	66.7	33.3	0.0	0.0	0.0	100.0 (6)
중소도시	0.0	33.3	33.3	16.7	16.7	100.0 (6)
농어촌	100.0	0.0	0.0	0.0	0.0	100.0 (3)
$\chi^2(df)$			12.143(8)			
교사 경력						
4년 이하	50.0	25.0	25.0	0.0	0.0	100.0 (4)
5~9년 이하	50.0	50.0	0.0	0.0	0.0	100.0 (2)
10~14년 이하	25.0	50.0	0.0	0.0	25.0	100.0 (4)
15년 이상	60.0	0.0	20.0	20.0	0.0	100.0 (5)
$\chi^2(df)$			9.295(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

교사의 기후변화 관련 실천 역량을 살펴보았다. 5문항 모두 긍정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소 영유아들과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는 58.7%(그런 편이다 45.0%, 항상 그렇다 13.7%),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들과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예를 들어 일회용품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에너지 절약 등)’는 65.7%(그런 편이다 47.3%, 항상 그렇다 18.4%), ‘평소 영유아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환경이나 활동을 제공한다’는 59.6%(그런 편이다 47.3%, 항상 그렇다 12.3%), ‘영유아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는 78.9%(그런 편이다 53.7%, 항상 그렇다 25.2%), ‘영유아들이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59.0%(그런 편이다 44.0%, 항상 그렇다 15.0%)로 나타났다.

〈표 III-2-30〉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종합)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	평균
		1	2		4	5			
1. 나는 평소 영유아들과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11.5	1.3	10.2	29.8	45.0	13.7	58.7	100.0 (1,000)	3.6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	평균
		1	2	3	4	5			
2. 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들과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예를 들어 일화용품 안 쓰기, 대중 교통 이용이나 걷기, 에너지 절약 등)	8.7	0.8	7.9	25.6	47.3	18.4	65.7	100.0 (1,000)	3.7
3. 나는 평소 영유아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환경이나 활동을 제공한다	7.5	0.7	6.8	33.0	47.3	12.3	59.6	100.0 (1,000)	3.6
4. 영유아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2.3	0.1	2.2	18.9	53.7	25.2	78.9	100.0 (1,000)	4.0
5. 영유아들이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8.1	1.2	6.9	32.9	44.0	15.0	59.0	100.0 (1,000)	3.6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5. 교육과정과의 연계

개정 누리과정과 기후변화 교육의 연계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전체 교사의 84.9%(그렇다 54.9%, 매우 그렇다 30.0%)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은 13.6%, 가능하지 않다는 1.5%(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1.5%)이다. 연계 가능성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1점으로 나타났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력 15년 이상(평균 4.3점)인 교사는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 교육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가장 높다.

〈표 III-2-31〉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 교육 가능성(종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0.0	1.5	13.6	54.9	30.0	100.0 (922)	4.1
기관 구분							
유치원	0.0	1.7	12.8	52.3	33.3	100.0 (421)	4.2
어린이집	0.0	1.4	14.2	57.1	27.3	100.0 (501)	4.1
$\chi^2(df) / t$			4.042(3)				1.5
기관 설립 유형	0.0						
공립 유치원	0.0	1.9	10.7	51.5	35.9	100.0 (270)	4.2
사립 유치원	0.0	1.3	16.6	53.6	28.5	100.0 (151)	4.1
국공립 어린이집	0.0	2.0	16.0	62.0	20.0	100.0 (100)	4.0
그 외 어린이집	0.0	1.2	13.7	55.9	29.2	100.0 (401)	4.1
$\chi^2(df) / F$			4.042(3)				2.7(a)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지역 구분							
대도시	0.0	1.5	14.5	54.9	29.1	100.0 (337)	4.1
중소도시	0.0	0.9	13.5	55.0	30.5	100.0 (318)	4.2
농어촌	0.0	2.2	12.4	54.7	30.7	100.0 (267)	4.1
$\chi^2(df) / F$			2.321(6)				0.2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2.2	16.9	57.9	23.0	100.0 (183)	4.0
5~9년 이하	0.0	1.2	14.7	56.0	28.2	100.0 (252)	4.1
10~14년 이하	0.0	1.0	14.8	59.0	25.2	100.0 (210)	4.1
15년 이상	0.0	1.8	9.4	48.7	40.1	100.0 (277)	4.3
$\chi^2(df) / F$			24.043(9)**				5.9**(a)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기후변화 교육과 연계성이 높은 개정 누리과정 영역으로는 51.7%가 ‘자연탐구’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은 ‘모든 영역과 유사한 비중으로 연계성이 높음’ 30.6%, ‘신체운동건강’ 6.4%, ‘사회관계’ 6.2% ‘의사소통’ 3.7%, ‘예술경험’ 1.4% 순이다.

응답 유형별로는 사립 유치원 교사가 ‘신체운동건강’과 ‘사회관계’의 연계성에 대해 다른 유형의 교사들보다 높고, 농어촌 교사들은 ‘자연탐구’와 ‘모든 영역과 유사한 비중으로 연계성이 높음’에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경력이 4년 이하인 경우 다른 경력의 교사들보다 ‘사회관계’의 연계성을 높게 응답하였다.

〈표 III-2-32〉 기후변화 교육과 연계성 높은 개정 누리과정 영역(종합)

단위: %(명)

구분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모든 영역과 유사한 비중으로 연계성이 높음	계
전체	6.4	3.7	6.2	1.4	51.7	30.6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5.5	3.3	8.1	1.0	52.5	29.7	100.0 (421)
어린이집	7.2	4.0	4.6	1.8	51.1	31.3	100.0 (501)
$\chi^2(df)$			7.282(5)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2.6	1.5	6.7	1.1	55.6	32.6	100.0 (270)
사립 유치원	10.6	6.6	10.6	0.7	47.0	24.5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6.0	4.0	2.0	1.0	54.0	33.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7.5	4.0	5.2	2.0	50.4	30.9	100.0 (401)
$\chi^2(df)$			32.418(15)**				
지역 구분							

구분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모든 영역과 유사한 비중으로 연계성이 높음	계
대도시	8.9	5.0	6.5	0.6	51.6	27.3	100.0 (337)
중소도시	5.3	2.5	7.5	2.5	51.6	30.5	100.0 (318)
농어촌	4.5	3.4	4.1	1.1	52.1	34.8	100.0 (267)
$\chi^2(df)$	18.442(10)*						
교사 경력							
4년 이하	4.4	3.3	10.9	3.3	54.1	24.0	100.0 (183)
5~9년 이하	6.0	6.3	5.2	1.2	53.2	28.2	100.0 (252)
10~14년 이하	6.7	2.9	2.9	1.0	51.9	34.8	100.0 (210)
15년 이상	7.9	2.2	6.5	0.7	48.7	33.9	100.0 (277)
$\chi^2(df)$	32.155(1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교사들에게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적절한 방향 세 가지와 그 우선순위를 물었다.

1순위로는 교사의 29.6%가 ‘체험 활동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을 꼽아 그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은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26.8%, ‘유-초-중-고교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의 연계’ 21.4%, ‘놀이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18.0%, ‘개정 누리과정과 기후변화 교육의 연계’ 2.9%, ‘기후변화 이론에 대한 지식 전달 교육’ 1.3% 순이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체험 활동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을 꼽은 비율은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으며, ‘유-초-중-고교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의 연계’, ‘놀이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을 꼽은 비율은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높다.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적절한 방향 2순위에서도 교사의 29.8%가 ‘체험 활동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을 꼽아 그 비율이 가장 높다. 그다음은 ‘놀이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27.4%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26.2%, ‘유-초-중-고교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의 연계’ 7.7%, ‘개정 누리과정과 기후변화 교육의 연계’ 6.0%, ‘기후변화 이론에 대한 지식 전달 교육’ 2.8% 순이다.

3순위에서는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4%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체험 활동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20.0%, ‘유-초-중-고교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의 연계’ 19.3%, ‘놀이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15.8%, ‘개정 누리과정과 기후변화 교육의 연계’ 11.3%, ‘기후변화 이론에 대한 지식 전달 교육’ 7.3% 순이다.

〈표 III-2-33〉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적절한 방향(1, 2, 3순위)(종합)

단위: %(명)

구분	유·초·중·고 교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의 연계	체험 활동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놀이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개정 누리과정과 기후변화 교육의 연계	기후변화 이론에 대한 지식 전달 교육	계
1순위	21.4	29.6	18.0	26.8	2.9	1.3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16.9	32.1	16.9	30.6	2.9	0.7	100.0 (421)
어린이집	25.1	27.5	19.0	23.6	3.0	1.8	100.0 (501)
$\chi^2(df)$			15.859(5)**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14.1	33.0	16.3	32.2	3.7	0.7	100.0 (270)
사립 유치원	21.9	30.5	17.9	27.8	1.3	0.7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23.0	25.0	21.0	27.0	3.0	1.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25.7	28.2	18.5	22.7	3.0	2.0	100.0 (401)
$\chi^2(df)$			23.516(15)				
지역 구분							
대도시	23.4	28.8	18.1	26.1	2.1	1.5	100.0 (337)
중소도시	21.4	32.7	16.4	25.2	3.5	0.9	100.0 (318)
농어촌	18.7	27.0	19.9	29.6	3.4	1.5	100.0 (267)
$\chi^2(df)$			7.227(10)				
교사 경력							
4년 이하	19.1	32.8	15.3	29.5	2.2	1.1	100.0 (183)
5~9년 이하	23.0	29.8	16.3	28.6	1.6	0.8	100.0 (252)
10~14년 이하	19.0	29.5	21.0	27.6	2.4	0.5	100.0 (210)
15년 이상	23.1	27.4	19.1	22.7	5.1	2.5	100.0 (277)
$\chi^2(df)$			18.901(15)				
2순위	7.7	29.8	27.4	26.2	6.0	2.8	100.0 (922)
3순위	19.3	20.0	15.8	26.4	11.3	7.3	100.0 (92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영유아 대상의 기후변화 교육의 가장 적절한 교육 목표로는 가장 많은 32.4%의 교사가 ‘기후 변화 대응 방법을 익히고 기후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라는 의견을 냈다. 그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27.5%, ‘기후변화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형성’ 23.4%, ‘기후변화의 현상, 원인, 대응 이해’ 16.6% 순이다. 응답자 집단별로는 유치원 교사는 ‘기후변화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형성’을, 어린이집 교사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익히고 기후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익히고 기후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다른 기관 설립 유형과는 달리 공립 유치원 교사는 ‘기후변화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형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표 III-2-34〉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가장 적절한 교육 목표(종합)

단위: %(명)

구분	기후변화의 현상, 원인, 대응 이해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익히고 기후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	기후변화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형성	기후변화 대응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계	
전체	16.6	32.4	23.4	27.5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14.0	29.7	30.2	26.1	100.0	(421)
어린이집	18.8	34.7	17.8	28.7	100.0	(501)
$\chi^2(df)$			20.486(3)***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9.3	30.0	35.6	25.2	100.0	(270)
사립 유치원	22.5	29.1	20.5	27.8	100.0	(151)
국공립 어린이 집	19.0	35.0	14.0	32.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18.7	34.7	18.7	27.9	100.0	(401)
$\chi^2(df)$			41.584(9)***			
지역 구분						
대도시	18.7	32.6	20.8	27.9	100.0	(337)
중소도시	17.3	30.5	23.9	28.3	100.0	(318)
농어촌	13.1	34.5	26.2	26.2	100.0	(267)
$\chi^2(df)$			5.836(6)			
교사 경력						
4년 이하	15.8	30.6	24.0	29.5	100.0	(183)
5~9년 이하	13.5	34.1	27.4	25.0	100.0	(252)
10~14년 이하	18.1	33.3	22.4	26.2	100.0	(210)
15년 이상	18.8	31.4	20.2	29.6	100.0	(277)
$\chi^2(df)$			7.597(9)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교사들에게 영유아 대상의 기후변화 교육의 가장 적절한 교육 방법 세 가지와 그 우선순위를 물었다.

1순위로 꼽힌 적절한 교육 방법 중에서는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가 32.2%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실시’ 22.5%, ‘하루 일과 중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상시 실시’ 21.9%, ‘프로젝트 등의 특정 활동 주제로 집중 실시’ 11.0%, ‘외부 강사와 협력하여 특별활동으로 실시’ 6.8%, ‘자유 놀이 시간을 활용한 교육 활동으로 실시’ 5.6% 순이다.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는 다른 경력의 교사들보다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실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2순위에서는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26.2%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하루 일과 중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상시 실시’ 22.7%, ‘프로젝트 등

의 특정 활동 주제로 집중 실시' 16.8%, '자유 놀이 시간을 활용한 교육 활동으로 실시' 14.9%, '외부 강사와 협력하여 특별활동으로 실시' 12.9%,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실시' 6.5% 순이다.

3순위에서는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22.1%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하루 일과 중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상시 실시' 20.4%, '자유 놀이 시간을 활용한 교육 활동으로 실시' 19.0%, '프로젝트 등의 특정 활동 주제로 집중 실시' 13.9%, '외부 강사와 협력하여 특별활동으로 실시' 13.6%,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실시' 11.1% 순이다.

〈표 III-2-35〉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가장 적절한 교육 방법(종합)

단위: %(명)

구분	연간 교육계획으로 수립하여 실시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	프로젝트 등의 특정 활동 주제로 집중 실시	외부 강사와 협력하여 특별활동으로 실시	하루 일과 중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상시 실시	자유 놀이 시간을 활용한 교육 활동으로 실시	계
1순위	22.5	32.2	11.0	6.8	21.9	5.6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22.8	29.0	11.4	6.2	25.4	5.2	100.0 (421)
어린이집	22.2	34.9	10.6	7.4	19.0	6.0	100.0 (501)
$\chi^2(df)$			7.774(5)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22.2	28.9	8.5	6.7	28.1	5.6	100.0 (270)
사립 유치원	23.8	29.1	16.6	5.3	20.5	4.6	100.0 (151)
국공립 어린이 집	16.0	36.0	11.0	8.0	26.0	3.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23.7	34.7	10.5	7.2	17.2	6.7	100.0 (401)
$\chi^2(df)$			23.621(15)				
지역 구분							
대도시	24.6	31.5	10.1	7.4	21.4	5.0	100.0 (337)
중소도시	21.4	35.8	12.6	5.3	19.5	5.3	100.0 (318)
농어촌	21.0	28.8	10.1	7.9	25.5	6.7	100.0 (267)
$\chi^2(df)$			9.494(10)				
교사 경력							
4년 이하	10.9	37.7	13.7	6.0	27.9	3.8	100.0 (183)
5~9년 이하	21.0	32.5	11.5	9.9	18.7	6.3	100.0 (252)
10~14년 이하	23.8	32.9	9.5	7.1	19.0	7.6	100.0 (210)
15년 이상	30.3	27.8	9.7	4.3	23.1	4.7	100.0 (277)
$\chi^2(df)$			38.957(15)**				
2순위	6.5	26.2	16.8	12.9	22.7	14.9	100.0 (922)
3순위	11.1	22.1	13.9	13.6	20.4	19.0	100.0 (92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을 평가할 때 평가 내용으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이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25.1%, ‘환경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24.4%, ‘탄소중립의 지속적 실천’ 20.9% 순이다.

교사 특성별로는 유치원 교사는 ‘환경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다. 어린이집 교사는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 외 어린이집 교사는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립 유치원 교사는 ‘환경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를, 사립 유치원 교사는 ‘탄소중립의 지속적 실천’을 가장 많이 꼽았다.

〈표 III-2-36〉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의 평가 내용 중요도(종합)

단위: %(명)

구분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탄소중립의 지속적 실천	환경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계	
전체	25.1	20.9	24.4	29.6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17.8	25.7	30.2	26.4	100.0	(421)
어린이집	31.1	17.0	19.6	32.3	100.0	(501)
$\chi^2(df)$		37.752(3)***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13.3	23.7	35.9	27.0	100.0	(270)
사립 유치원	25.8	29.1	19.9	25.2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25.0	24.0	21.0	30.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32.7	15.2	19.2	32.9	100.0	(401)
$\chi^2(df)$		60.668(9)***				
지역 구분						
대도시	30.3	17.8	23.7	28.2	100.0	(337)
중소도시	24.5	23.3	23.9	28.3	100.0	(318)
농어촌	19.1	22.1	25.8	33.0	100.0	(267)
$\chi^2(df)$		11.791(6)				
교사 경력						
4년 이하	23.0	16.4	26.8	33.9	100.0	(183)
5~9년 이하	24.6	19.8	27.8	27.8	100.0	(252)
10~14년 이하	31.9	20.0	21.9	26.2	100.0	(210)
15년 이상	21.7	25.6	21.7	31.0	100.0	(277)
$\chi^2(df)$		15.928(9)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6. 기후변화 교육 관련 지원 및 정책 요구

가. 기후변화 교육 지원 요구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세 가지와 그 우선순위를 물었다.

1순위에서는 ‘교사 자신의 지식 및 기술 부족’이 29.7%로 비율이 가장 높다. 그다음은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 부여 문제’ 24.1%,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20.2% 순이다.

교사 특성별로는 ‘교사 자신의 지식 및 기술 부족’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는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을 꼽은 비율이 높으며,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 부여 문제’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 부여 문제’라는 응답이 다른 기관 유형 교사보다 많다.

어려움 2순위에서는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 부여 문제’ 19.2%, ‘교수 학습 자료 및 자원 부족’ 19.1%, ‘교사 자신의 지식 및 기술 부족’ 13.4%의 순이다.

3순위에서는 ‘교수 학습 자료 및 자원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1%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 부여 문제’ 17.9%,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16.3%, ‘연수 안내에 대한 정보 부족(연수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없거나 찾기 어려워서)’ 13.6% 순이다.

〈표 III-2-37〉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때 겪는 어려움(1~3순위)(종합)

단위: %(명)

구분	불안감 및 공포 조성 문제	교사 자신의 지식 및 기술 부족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 부여 문제	워크숍 또는 폭넓은 연수 기회 부족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연수 안내에 대한 정보 부족(연수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없거나 찾기 어려워서)	교수 학습 자료 및 자원 부족	기타	계
1순위	4.8	29.7	24.1	5.5	20.2	4.2	11.1	0.4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5.2	27.3	20.0	7.1	23.8	3.8	12.1	0.7	100.0 (421)
어린이집	4.4	31.7	27.5	4.2	17.2	4.6	10.2	0.2	100.0 (501)
$\chi^2(df)$				18.296(7)*					

기관 설립 유형

구분	불안감 및 공포 조성 문제	교사 자신의 지식 및 기술 부족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 부여 문제	워크숍 또는 폭넓은 연수 기회 부족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연수 안내에 대한 정보 부족(연수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없거나 찾기 어려워서)	교수 학습 자료 및 자원 부족	기타	계
공립 유치원	4.1	27.4	18.9	8.5	22.6	3.7	13.7	1.1	100.0 (270)
사립 유치원	7.3	27.2	21.9	4.6	25.8	4.0	9.3	0.0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2.0	29.0	35.0	4.0	17.0	2.0	10.0	1.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5.0	32.4	25.7	4.2	17.2	5.2	10.2	0.0	100.0 (401)
$\chi^2(df)$				36.914(21)*					
지역 구분									
대도시	5.9	26.1	22.6	4.7	24.3	5.9	10.1	0.3	100.0 (337)
중소도시	4.1	32.1	26.4	6.3	15.7	3.8	11.3	0.3	100.0 (318)
농어촌	4.1	31.5	23.2	5.6	20.2	2.6	12.0	0.7	100.0 (267)
$\chi^2(df)$				17.174(14)					
교사 경력									
4년 이하	2.7	31.1	26.8	6.6	21.3	3.8	6.6	1.1	100.0 (183)
5~9년 이하	6.7	24.6	27.4	4.0	23.0	4.0	9.9	0.4	100.0 (252)
10~14년 이하	3.3	32.4	21.9	4.8	19.5	4.8	13.3	0.0	100.0 (210)
15년 이상	5.4	31.4	20.9	6.9	17.3	4.3	13.4	0.4	100.0 (277)
$\chi^2(df)$				25.003(21)					
2순위	1.8	13.4	19.2	10.4	21.7	14.2	19.1	0.1	100.0 (922)
3순위	3.7	11.0	17.9	8.6	16.3	13.6	28.1	1.0	100.0 (92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의 운영’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 방법’ 28.3%, ‘다양한 체험터 발굴 및 공유’ 27.1% 순이다. 집단 특성별로는 경력 5~9년 이하인 교사는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의 운영’을,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 방법’과 ‘관련 교육 자료(교구)의 보완’을 다른 경력 교사들보다 많이 꼽았다.

〈표 III-2-38〉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종합)

단위: %(명)

구분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의 운영	다양한 체험터 발굴 및 공유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 방법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	관련 교육 자료(교구) 의 보완	계
전체	31.6	27.1	28.3	2.2	10.8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33.0	25.2	29.9	2.6	9.3	100.0 (421)
어린이집	30.3	28.7	26.9	1.8	12.2	100.0 (501)

구분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의 운영	다양한 체험터 발굴 및 공유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 방법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	관련 교육 자료(교구)의 보완	계
$\chi^2(df)$			4.802(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35.2	22.6	30.7	2.6	8.9	100.0 (270)
사립 유치원	29.1	29.8	28.5	2.6	9.9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30.0	31.0	28.0	2.0	9.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30.4	28.2	26.7	1.7	13.0	100.0 (401)
$\chi^2(df)$			9.528(12)			
지역 구분						
대도시	32.0	27.3	25.5	1.8	13.4	100.0 (337)
중소도시	28.3	28.0	31.8	3.1	8.8	100.0 (318)
농어촌	34.8	25.8	27.7	1.5	10.1	100.0 (267)
$\chi^2(df)$			10.042(8)			
교사 경력						
4년 이하	30.6	25.1	30.1	4.4	9.8	100.0 (183)
5~9년 이하	36.1	27.4	23.8	2.8	9.9	100.0 (252)
10~14년 이하	29.0	34.8	26.7	0.0	9.5	100.0 (210)
15년 이상	30.0	22.4	32.5	1.8	13.4	100.0 (277)
$\chi^2(df)$			24.916(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이어서 효과적인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영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및 연수 제공’ 20.3%, ‘지역사회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15.0%,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후변화 교육 연수 자료 개발·보급’ 14.4%, ‘체계적인 이론의 제시와 명료화’ 2.1% 순이다. 경력 5~9년 이하인 교사는 ‘영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경력 4년 이하인 교사는 ‘지역사회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는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후변화 교육 연수 자료 개발·보급’을 다른 경력의 교사들보다 많이 꼽았다.

〈표 III-2-39〉 효과적인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종합)

단위: %(명)

구분	영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교사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및 연수 제공	지역사회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후변화 교육 연수 자료 개발·보급	체계적인 이론의 제시와 명료화	계	
전체	48.3	20.3	15.0	14.4	2.1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44.9	21.9	14.5	17.3	1.4	100.0	(421)
어린이집	51.1	19.0	15.4	12.0	2.6	100.0	(501)
$\chi^2(df)$			8.967(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46.3	22.2	13.7	16.7	1.1	100.0	(270)
사립 유치원	42.4	21.2	15.9	18.5	2.0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63.0	11.0	10.0	14.0	2.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48.1	20.9	16.7	11.5	2.7	100.0	(401)
$\chi^2(df)$			20.779(12)				
지역 구분							
대도시	48.7	20.5	14.8	13.6	2.4	100.0	(337)
중소도시	48.7	21.1	16.0	13.5	0.6	100.0	(318)
농어촌	47.2	19.1	13.9	16.5	3.4	100.0	(267)
$\chi^2(df)$			7.493(8)				
교사 경력							
4년 이하	44.8	15.8	24.0	12.6	2.7	100.0	(183)
5~9년 이하	57.5	19.4	10.7	12.3	0.0	100.0	(252)
10~14년 이하	47.6	17.6	17.6	14.8	2.4	100.0	(210)
15년 이상	42.6	26.0	10.8	17.3	3.2	100.0	(277)
$\chi^2(df)$			41.583(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교사는 89.6%, 없다는 교사는 10.4%로 나타났다. 90%에 가까운 교사는 연수를 받기를 희망하였지만 반대로 10%의 교사는 연수를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보다는 유치원 교사가, 다른 설립 유형의 교사들보다 공립 유치원 교사가,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가 연수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또 교사 경력이 길수록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III-2-40〉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를 받을 의향(종합)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전체	89.6	10.4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93.6	6.4	100.0	(421)
어린이집	86.2	13.8	100.0	(501)
$\chi^2(df)$	13.282(1)***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95.6	4.4	100.0	(270)
사립 유치원	90.1	9.9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91.0	9.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85.0	15.0	100.0	(401)
$\chi^2(df)$	19.461(3)***			
지역 구분				
대도시	87.5	12.5	100.0	(337)
중소도시	89.6	10.4	100.0	(318)
농어촌	92.1	7.9	100.0	(267)
$\chi^2(df)$	3.377(2)			
교사 경력				
4년 이하	83.1	16.9	100.0	(183)
5~9년 이하	88.5	11.5	100.0	(252)
10~14년 이하	90.0	10.0	100.0	(210)
15년 이상	94.6	5.4	100.0	(277)
$\chi^2(df)$	16.137(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를 받을 의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연수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성공적인 실천 사례 및 현장 적용 연수’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 견학’ 19.1%,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관련 교재·교구의 제작 및 활용 방법에 관한 워크숍’ 17.6%,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기초 이론’ 15.5% 순이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는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성공적인 실천 사례 및 현장 적용 연수’라고, 어린이집 교사는 그 외의 문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기초 이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I-2-41〉 희망하는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연수 내용(종합)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기초 이론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관련 교재·교구의 제작 및 활용 방법에 관한 워크숍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성공적인 실천 사례 및 현장 적용 연수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 견학	계
전체	15.5	17.6	47.8	19.1	100.0 (826)
기관 구분					
유치원	10.4	14.5	56.1	19.0	100.0 (394)
어린이집	20.1	20.4	40.3	19.2	100.0 (432)
$\chi^2(df)$		27.466(3)***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7.4	13.2	59.7	19.8	100.0 (258)
사립 유치원	16.2	16.9	49.3	17.6	100.0 (136)
국공립 어린이집	9.9	19.8	51.6	18.7	100.0 (91)
그 외 어린이집	22.9	20.5	37.2	19.4	100.0 (341)
$\chi^2(df)$		45.840(9)***			
지역 구분					
대도시	19.3	18.3	43.4	19.0	100.0 (295)
중소도시	13.0	19.3	51.9	15.8	100.0 (285)
농어촌	13.8	14.6	48.4	23.2	100.0 (246)
$\chi^2(df)$		12.176(6)			
교사 경력					
4년 이하	19.1	15.8	44.1	21.1	100.0 (152)
5~9년 이하	10.8	21.1	48.0	20.2	100.0 (223)
10~14년 이하	13.2	15.3	49.7	21.7	100.0 (189)
15년 이상	19.1	17.2	48.5	15.3	100.0 (262)
$\chi^2(df)$		13.410(9)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선호하는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연수 방식으로는 ‘온라인 연수’가 40.2%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체험관 등 관련 기관 방문 연수’ 33.5%, ‘워크숍 형식의 연수’ 15.3%,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 단체 연수’ 10.9% 순이다.

응답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보다 ‘워크숍 형식의 연수’를, 어린이집 교사는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 단체 연수’ 및 ‘체험관 등 관련 기관 방문 연수’를 선호하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는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 단체 연수’에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력별로는 10~14년 이하의 교사는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 단체 연수’와 ‘워크숍 형식의 연수’에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다. 15년 이상 교사는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 단체 연수’에는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워크숍 형식의 연수’는 다른 경력의 교사들보다 많이 꼽았다.

〈표 III-2-42〉 선호하는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연수 방식(종합)

단위: %(명)

구분	개별 유치원·어린이 집에서 교사 단체 연수	온라인 연수	워크숍 형식의 연수	체험관 등 관련 기관 방문 연수	기타	계
전체	10.9	40.2	15.3	33.5	0.1	100.0 (826)
기관 구분						
유치원	8.9	40.9	19.8	30.5	0.0	100.0 (394)
어린이집	12.7	39.6	11.1	36.3	0.2	100.0 (432)
$\chi^2(df)$			16.117(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5.8	37.6	22.5	34.1	0.0	100.0 (258)
사립 유치원	14.7	47.1	14.7	23.5	0.0	100.0 (136)
국공립 어린이집	18.7	36.3	11.0	34.1	0.0	100.0 (91)
그 외 어린이집	11.1	40.5	11.1	37.0	0.3	100.0 (341)
$\chi^2(df)$			35.815(12)***			
지역 구분						
대도시	14.2	43.1	13.6	29.2	0.0	100.0 (295)
중소도시	9.1	35.8	17.5	37.5	0.0	100.0 (285)
농어촌	8.9	41.9	14.6	34.1	0.4	100.0 (246)
$\chi^2(df)$			13.890(8)			
교사 경력						
4년 이하	15.1	45.4	13.2	26.3	0.0	100.0 (152)
5~9년 이하	12.1	35.9	17.9	33.6	0.4	100.0 (223)
10~14년 이하	8.5	42.9	9.5	39.2	0.0	100.0 (189)
15년 이상	9.2	38.9	18.3	33.6	0.0	100.0 (262)
$\chi^2(df)$			21.068(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연수를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 9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연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활용할 기존 자료가 충분하므로’ 11.5%, ‘연수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7.3%, ‘연수 방식이 적합하지 않아서’ 6.3%, ‘주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및 ‘기타’가 각각 2.1% 순이다.

〈표 III-2-43〉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의향이 없는 이유(종합)

단위: %(명)

구분	연수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활용할 기존 자료가 충분하므로	연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연수 방식이 적합하지 않아서	주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기타	계
전체	7.3	11.5	70.8	6.3	2.1	2.1	100.0 (96)
기관 구분							
유치원	11.1	14.8	63.0	7.4	0.0	3.7	100.0 (27)

구분	연수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활용할 기존 자료가 충분하므로	연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연수 방식이 적합하지 않아서	주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기타	계
어린이집	5.8	10.1	73.9	5.8	2.9	1.4	100.0 (69)
$\chi^2(df)$			2.786(5)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0.0	16.7	58.3	16.7	0.0	8.3	100.0 (12)
사립 유치원	20.0	13.3	66.7	0.0	0.0	0.0	100.0 (15)
국공립 어린이 집	11.1	22.2	66.7	0.0	0.0	0.0	100.0 (9)
그 외 어린이집	5.0	8.3	75.0	6.7	3.3	1.7	100.0 (60)
$\chi^2(df)$			14.632(15)				
지역 구분							
대도시	16.7	9.5	69.0	2.4	2.4	0.0	100.0 (42)
중소도시	0.0	9.1	75.8	12.1	0.0	3.0	100.0 (33)
농어촌	0.0	19.0	66.7	4.8	4.8	4.8	100.0 (21)
$\chi^2(df)$			16.607(10)				
교사 경력							
4년 이하	3.2	9.7	77.4	9.7	0.0	0.0	100.0 (31)
5~9년 이하	10.3	10.3	69.0	6.9	3.4	0.0	100.0 (29)
10~14년 이하	9.5	9.5	81.0	0.0	0.0	0.0	100.0 (21)
15년 이상	6.7	20.0	46.7	6.7	6.7	13.3	100.0 (15)
$\chi^2(df)$			19.684(1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나. 기후변화 정책 관련 의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2001)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을 ‘적응’과 ‘완화’로 정의하였다. 기후변화의 두 축인 ‘적응’과 ‘완화’ 중 정부가 정책을 개발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물었다.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54.8%,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45.2%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개발이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보다 ‘완화’를 꼽은 비율이 높으며 그 외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설립 기관 유형의 교사들과는 달리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III-2-44〉 정책을 개발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종합)

단위: %(명)

구분	적응	완화	계
전체	45.2	54.8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40.4	59.6	100.0 (421)

구분	적응	완화	계
어린이집	49.3	50.7	100.0 (501)
$\chi^2(df)$	7.350(1)**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38.1	61.9	100.0 (270)
사립 유치원	44.4	55.6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43.0	57.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50.9	49.1	100.0 (401)
$\chi^2(df)$	10.866(3)*		
지역 구분			
대도시	47.5	52.5	100.0 (337)
중소도시	44.0	56.0	100.0 (318)
농어촌	43.8	56.2	100.0 (267)
$\chi^2(df)$	1.088(2)		
교사 경력			
4년 이하	47.0	53.0	100.0 (183)
5~9년 이하	44.8	55.2	100.0 (252)
10~14년 이하	44.8	55.2	100.0 (210)
15년 이상	44.8	55.2	100.0 (277)
$\chi^2(df)$	0.288(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정책을 개발할 때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 22.5%, ‘완화정책과 관련된 기술(예, 탄소저감 기술 등)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20.6%,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이 경제적 비용의 소모가 적을 것 같아서’ 13.4%,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노력이 완화보다 적을 것 같아서’ 8.2%, ‘기타’ 2.4% 순이다.

〈표 III-2-45〉 적응이라고 응답한 이유(종합)

단위: %(명)

구분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이 경제적 비용의 소모가 적을 것 같아서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노력이 완화보다 적을 것 같아서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	완화정책과 관련된 기술(예, 탄소저감 기술 등)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기타	계
전체	32.9	13.4	8.2	22.5	20.6	2.4	100.0 (417)
기관 구분							
유치원	37.1	14.1	8.8	17.1	18.8	4.1	100.0 (170)
어린이집	30.0	13.0	7.7	26.3	21.9	1.2	100.0 (247)

구분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완화정책보 다 적응정책이 경제적 비용의 소모가 적을 것 같아서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노력이 완화보다 적을 것 같아서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	완화정책과 관련된 기술(예, 탄소저감 기술 등)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기타	계
$\chi^2(df)$			9.622(5)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35.9	10.7	9.7	18.4	18.4	6.8	100.0 (103)
사립 유치원	38.8	19.4	7.5	14.9	19.4	0.0	100.0 (67)
국공립 어린이 집	30.2	4.7	9.3	30.2	23.3	2.3	100.0 (43)
그 외 어린이집	29.9	14.7	7.4	25.5	21.6	1.0	100.0 (204)
$\chi^2(df)$			23.847(15)				
지역 구분							
대도시	35.6	11.3	8.1	21.9	20.0	3.1	100.0 (160)
중소도시	31.4	15.0	7.1	24.3	20.7	1.4	100.0 (140)
농어촌	30.8	14.5	9.4	21.4	21.4	2.6	100.0 (117)
$\chi^2(df)$			3.212(10)				
교사 경력							
4년 이하	30.2	10.5	8.1	24.4	23.3	3.5	100.0 (86)
5~9년 이하	42.5	13.3	6.2	18.6	16.8	2.7	100.0 (113)
10~14년 이하	33.0	13.8	11.7	21.3	19.1	1.1	100.0 (94)
15년 이상	25.8	15.3	7.3	25.8	23.4	2.4	100.0 (124)
$\chi^2(df)$			12.623(1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완화’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 해결이라고 생각해서’가 68.1%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20.8%,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6.5%,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4.0%, ‘기타’ 0.6% 순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는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 해결이라고 생각해서’ 및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및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표 III-2-46〉완화라고 응답한 이유(종합)

단위: %(명)

구분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 해결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기타	계
전체	68.1	4.0	6.5	20.8	0.6	100.0 (505)
기관 구분						
유치원	72.1	1.6	7.6	18.3	0.4	100.0 (251)
어린이집	64.2	6.3	5.5	23.2	0.8	100.0 (254)
$\chi^2(df)$			10.825(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75.4	1.8	5.4	16.8	0.6	100.0 (167)
사립 유치원	65.5	1.2	11.9	21.4	0.0	100.0 (84)
국공립 어린이집	64.9	5.3	8.8	19.3	1.8	100.0 (57)
그 외 어린이집	64.0	6.6	4.6	24.4	0.5	100.0 (197)
$\chi^2(df)$			19.348(12)			
지역 구분						
대도시	67.8	6.2	7.3	17.5	1.1	100.0 (177)
중소도시	64.0	3.9	8.4	23.6	0.0	100.0 (178)
농어촌	73.3	1.3	3.3	21.3	0.7	100.0 (150)
$\chi^2(df)$			12.961(8)			
교사 경력						
4년 이하	61.9	4.1	13.4	19.6	1.0	100.0 (97)
5~9년 이하	77.7	2.2	3.6	16.5	0.0	100.0 (139)
10~14년 이하	66.4	6.0	6.0	21.6	0.0	100.0 (116)
15년 이상	64.7	3.9	5.2	24.8	1.3	100.0 (153)
$\chi^2(df)$			20.076(12)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영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 교사 중 87.9%는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12.1%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교사의 경력에 길수록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미만이다.

〈표 III-2-47〉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과 관련한 의견(종합)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요	계
전체	87.9	12.1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86.9	13.1	100.0 (421)

구분	예	아니요	계	
어린이집	88.6	11.4	100.0	(501)
$\chi^2(df)$	0.610(1)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86.3	13.7	100.0	(270)
사립 유치원	88.1	11.9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87.0	13.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89.0	11.0	100.0	(401)
$\chi^2(df)$	1.207(3)			
지역 구분				
대도시	87.5	12.5	100.0	(337)
중소도시	86.8	13.2	100.0	(318)
농어촌	89.5	10.5	100.0	(267)
$\chi^2(df)$	1.056(2)			
교사 경력				
4년 이하	81.4	18.6	100.0	(183)
5~9년 이하	85.3	14.7	100.0	(252)
10~14년 이하	89.0	11.0	100.0	(210)
15년 이상	93.5	6.5	100.0	(277)
$\chi^2(df)$	17.176(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교사 810명에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진할 적절한 적응정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1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대상 관련 교육’이 37.0%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 시설 교체, 실내 놀이터 확충)’ 30.6%, ‘부모 대상 관련 교육’ 24.3%,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7.8%, ‘주거 취약 계층 영유아 대상 주거 지원 강화’ 0.2% 순이다.

2순위는 ‘부모 대상 관련 교육’이 34.2%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영유아 대상 관련 교육’ 23.6%,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 시설 교체, 실내 놀이터 확충)’ 21.0%,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18.1%, ‘주거 취약 계층 영유아 대상 주거 지원 강화’ 3.1% 순이다.

1, 2순위 합산 결과는 ‘영유아 대상 관련 교육’이 60.6%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부모 대상 관련 교육’ 58.5%,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 51.6%,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25.9%, ‘주거 취약 계층 영유아 대상 주거 지원 강화’ 3.3% 순이다.

〈표 III-2-48〉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적응정책(1, 2순위)(종합)

단위: %(명)

구분	영유아 대상 관련 교육	부모 대상 관련 교육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 시설 교체, 실내 놀이터 확충)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주거 취약 계층 영유아 대상 주거 지원 강화	계
1순위	37.0	24.3	30.6	7.8	0.2	100.0 (810)
기관 구분						
유치원	40.2	25.4	27.6	6.8	0.0	100.0 (366)
어린이집	34.5	23.4	33.1	8.6	0.5	100.0 (444)
$\chi^2(df)$			6.498(4)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42.1	24.5	26.2	7.3	0.0	100.0 (233)
사립 유치원	36.8	27.1	30.1	6.0	0.0	100.0 (133)
국공립 어린이집	32.2	24.1	34.5	8.0	1.1	100.0 (87)
그 외 어린이집	35.0	23.2	32.8	8.7	0.3	100.0 (357)
$\chi^2(df)$			10.373(12)			
지역 구분						
대도시	35.6	24.4	32.9	7.1	0.0	100.0 (295)
중소도시	37.0	23.6	29.3	9.8	0.4	100.0 (276)
농어촌	38.9	25.1	29.3	6.3	0.4	100.0 (239)
$\chi^2(df)$			4.745(8)			
교사 경력						
4년 이하	34.9	21.5	33.6	9.4	0.7	100.0 (149)
5~9년 이하	40.0	25.6	26.5	7.9	0.0	100.0 (215)
10~14년 이하	35.3	21.4	34.8	8.6	0.0	100.0 (187)
15년 이상	37.1	27.0	29.3	6.2	0.4	100.0 (259)
$\chi^2(df)$			9.499(12)			
2순위	23.6	34.2	21.0	18.1	3.1	100.0 (810)
1+2순위	60.6	58.5	51.6	25.9	3.3	(810)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기업, 시민단체(환경단체), 일반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주체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봤다. 그 결과 6개 주체 모두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50% 안팎이다.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 응답의 비율이 더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0%(매우 못하고 있음 9.0%, 못하고 있음 22.0%)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8%(매우 못하고 있음 6.7%, 못하고 있음 21.1%), ‘시도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1%(매우 못하고 있음 6.0%, 못하고 있음 20.1%), ‘기업’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2%(매우 못하고 있음 11.2%, 못하고 있음 22.0%), ‘시민단체(환경단체)’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9.5%(잘하고 있음 33.2%, 매우 잘하고 있음 6.3%), ‘일반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5%(매우 못하고 있음 5.9%,

못하고 있음 28.6%)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일반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가 기후변화의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표 III-2-49〉 각 주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평가(종합)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매우 못하고 있음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긍정 응답	계	평균
1. 중앙정부	31.0	9.0	22.0	55.2	11.9	1.8	13.7	100.0 (922)	2.8
2.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구)	27.8	6.7	21.1	57.4	12.7	2.1	14.8	100.0 (922)	2.8
3. 시도 교육청	26.1	6.0	20.1	58.5	13.4	2.1	15.5	100.0 (922)	2.9
4. 기업	33.2	11.2	22.0	51.8	13.2	1.7	14.9	100.0 (922)	2.7
5. 시민단체(환경 단체)	11.4	2.2	9.2	49.1	33.2	6.3	39.5	100.0 (922)	3.3
6. 일반 국민	34.5	5.9	28.6	55.3	9.0	1.2	10.2	100.0 (922)	2.7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 환경 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중앙부처’ 23.5%, ‘유치원과 어린이집’ 22.8%, ‘시민단체(환경단체)’ 9.8%, ‘기타’ 0.3% 순이다.

‘시민단체(환경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력이 긴 교사일수록 낮다. 경력 4년 이하의 교사들은 ‘중앙부처’를 다른 경력의 교사들에 비해 적게 꼽았으며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꼽았다.

〈표 III-2-50〉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 환경 교육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종합)

단위: %(명)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시민 단체(환경 단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기타	계
전체	23.5	27.8	9.8	22.8	15.8	0.3	100.0 (922)
기관 구분							
유치원	21.1	29.0	9.0	24.9	15.4	0.5	100.0 (421)
어린이집	25.5	26.7	10.4	21.0	16.2	0.2	100.0 (501)
$\chi^2(df)$			4.932(5)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23.0	29.6	8.1	21.1	17.8	0.4	100.0 (270)
사립 유치원	17.9	27.8	10.6	31.8	11.3	0.7	100.0 (151)
국공립 어린이집	31.0	24.0	7.0	22.0	16.0	0.0	100.0 (100)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시민 단체(환경 단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기타	계
그 외 어린이집	24.2	27.4	11.2	20.7	16.2	0.2	100.0 (401)
$\chi^2(df)$							17.997(15)
지역 구분							
대도시	24.3	24.0	9.5	25.5	15.7	0.9	100.0 (337)
중소도시	23.3	29.6	10.1	20.4	16.7	0.0	100.0 (318)
농어촌	22.8	30.3	9.7	22.1	15.0	0.0	100.0 (267)
$\chi^2(df)$							10.303(10)
교사 경력							
4년 이하	18.6	25.7	14.8	22.4	18.6	0.0	100.0 (183)
5~9년 이하	23.8	27.8	9.9	19.4	19.0	0.0	100.0 (252)
10~14년 이하	25.7	33.3	8.1	17.1	15.7	0.0	100.0 (210)
15년 이상	24.9	24.9	7.6	30.3	11.2	1.1	100.0 (277)
$\chi^2(df)$							37.001(1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1$.

중앙부처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 환경 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지를 묻는 질문에는 ‘환경부’라고 한 응답이 84.8%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교육부’ 12.9%, ‘보건복지부’ 1.8%, ‘기타’ 0.5% 순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보건복지부’를 많이 꼽은 반면 ‘교육부’는 적게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1〉 중앙부처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 환경 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종합)

단위: %(명)

구분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타	계
전체	84.8	12.9	1.8	0.5	100.0 (217)
기관 구분					
유치원	82.0	16.9	1.1	0.0	100.0 (89)
어린이집	86.7	10.2	2.3	0.8	100.0 (128)
$\chi^2(df)$					3.081(3)
기관 설립 유형					
공립 유치원	83.9	14.5	1.6	0.0	100.0 (62)
사립 유치원	77.8	22.2	0.0	0.0	100.0 (27)
국공립 어린이집	80.6	9.7	9.7	0.0	100.0 (31)
그 외 어린이집	88.7	10.3	0.0	1.0	100.0 (97)
$\chi^2(df)$					16.957(9)*
지역 구분					
대도시	84.1	13.4	2.4	0.0	100.0 (82)
중소도시	85.1	13.5	0.0	1.4	100.0 (74)
농어촌	85.2	11.5	3.3	0.0	100.0 (61)
$\chi^2(df)$					4.277(6)
교사 경력					

구분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타	계
4년 이하	97.1	2.9	0.0	0.0	100.0 (34)
5~9년 이하	81.7	16.7	1.7	0.0	100.0 (60)
10~14년 이하	83.3	16.7	0.0	0.0	100.0 (54)
15년 이상	82.6	11.6	4.3	1.4	100.0 (69)
$\chi^2(df)$	10.808(9)				

자료: 이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임.

* $p < .05$.

7.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이상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후변화 관련 인식과 기후변화 감수성, 지식과 실천 역량, 지원 요구 등의 주요 결과를 영유아 부모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표 III-2-52>와 같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사와 부모의 전반적인 인식과 요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대상별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보이는 관심과 기후 문제 해결 방법을 인지하는 정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보다 높으며, 부모와 교사 90% 이상의 절대다수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미래세대인 영유아 자녀가 피해를 볼 것이며,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부모 4.4점, 교사 4.8점/5점 만점)으로 예상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영유아 자녀의 '건강'이다.

기후변화 감수성, 지식, 실천 역량과 관련해서 교사와 부모는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은 교사와 부모 모두가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부모(85.0%)와 교사(90.9%)는 모두 영유아기부터 기후 환경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형태로는 일상 속 체험 활동과 놀이 활동,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표 III-2-52>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요구 비교

영역	번호	세부 문항	부모	교사
기후변화 인식	1	기후변화 문제 관심도	74.7%(평균 3.9점/5점 만점)	82.2%(평균 3.9점/5점 만점)
	2	기후변화의 원인 인지	59.1%(평균 3.6점)	61.1%(평균 3.6점)
	3	기후 문제 해결 방법 인지	49.1% *부모의 9.3%는 모른다고 응답	53.5% *교사의 7.4%는 모른다고 응답
	4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후 문제 해결 기대	긍정 61.8% , 부정 19.7%	긍정 82.0% , 부정 6.3%
	5	기후 문제의 심각성	81.7%(심각한 편 60.4%, 매우	92.4% (심각 50.2%, 매우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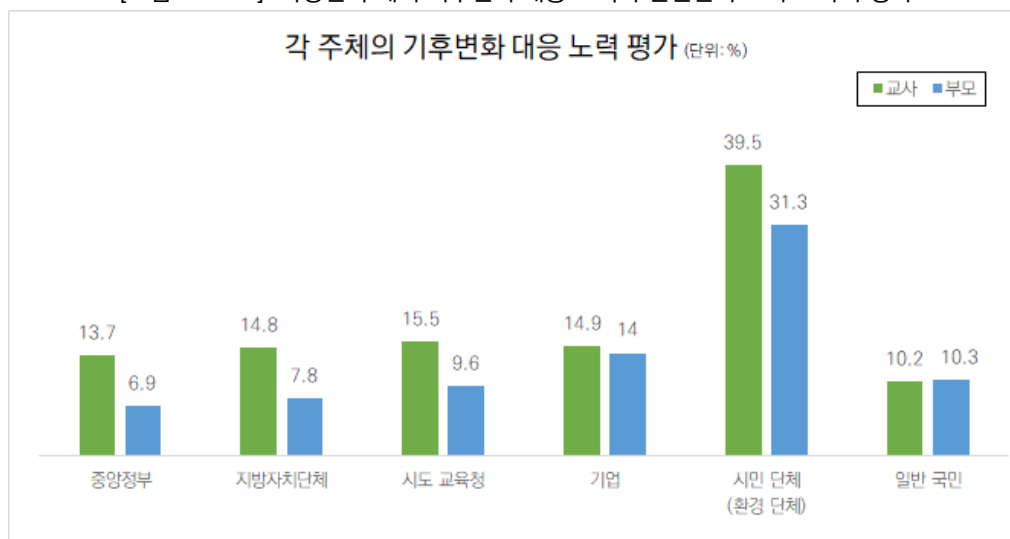
			심각 21.3%, 평균 4.0점)	42.2%, 평균 4.3점).
	6	기후변화의 중요성	81.8%(중요한 편 51.3%, 매우 중요 30.5%, 평균 4.2점)	92.8%(중요한 편 45.7%, 매우 중요 47.1%, 평균 4.4점)
	7	기후변화로 인한 자녀 및 미래세대의 피해 정도	93.5%(평균 4.4점)	96.8%(평균 4.8점)
	8	자녀 세대가 기후변화로 향후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될 영역	건강(83.4%) >고용 및 경제활동(7.0%)>주거(5.7%)>교육(2.3%)	건강(89.6%) >주거(4.0%)>고용 및 경제활동(3.7%)>교육(1.6%)
기후변화 감수성, 지식, 실천 역량	9	기후변화 감수성	(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평균 4.3점)	(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평균 4.5점)
			(최저)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평균 3.5점),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를 알고 있다(평균 3.5점)	(최저)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를 알고 있다(평균 3.7점)
	10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최고) 산이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84.0%, 평균 4.2점)	(최고) 산이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93.4%, 평균 4.5점)
			(최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36.7%, 평균 3.1점)	(최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32.8%, 평균 3.0점)
	11	자녀와 함께하는 실천	(최고)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66.6%, 평균 3.7점)	(최고) 영유아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78.9%, 평균 4.0점)
			(최저) 나는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29.9%, 평균 2.9점)	(최저) 나는 평소 영유아들과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58.7%, 평균 3.0점)
기후변화 교육 및 관련 정보	12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 환경교육의 필요성	85.0% (필요 37.2%, 매우 필요 47.8%, 평균 4.3점)	90.9% (필요 47.7%, 매우 필요 43.2%, 평균 4.3점)
	13	필요한 기후 환경 교육 형태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85.6%)>놀이 활동(51.6%)>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28.5%)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63.9%)>놀이 활동(16.6%)>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12.3%)
	14	기후 환경 교육을 받은 경험	있다 49.0%, 없다 26.0%, 모름 25.0%	연수 경험 있다 27.8%, <u>없다 72.2%</u>
정책 방향과 지원 요구	15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 적응과 완화	완화(58.2%)>적응(41.8%) 적응 중점 이유: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32.2%)>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국민의 노력이 적을 것 같아서(22.2%)	완화(54.8%)>적응(45.2%) 적응 중점 이유: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32.9%)>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국민의 노력이 적을 것 같아서(22.5%)
			완화 중점 이유: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64.5%)	완화 중점 이유: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68.1%)
	16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기후 적응정책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 시설 교체)(61.6%)>아동 대상 기후변화 교육(56.7%)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 시설 교체)(30.6%)>아동 건강 관리 지원 강화(38.9%)
	17	주체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	시민단체(평균 3.1점)>일반 국민(2.7점)>시도 교육청과 기업(각각 2.6점)>지방자치단체(2.5점)>중앙	시민단체(평균 3.3점)>시도 교육청(2.9점)>중앙정부와 지자체(각각 2.8점)>일반 국민과 기업(각각 2.7점)

		정부(2.4점)	
18	가장 적합한 영유아 기후 환경 교육 주체	유치원과 어린이집(47.7%)>지자체와 시도 교육청(24.1%)>중앙부처(17.8%)>시민단체(환경단체)(5.2%)>가정(4.9%)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27.8%)>중앙부처(23.5%)>유치원과 어린이집(22.8%)>가정(15.8%)>시민단체(환경단체)(9.8%)
19	가장 적합한 기후 환경 교육 담당 부처	환경부(63.9%)>교육부(23.9%)>보건복지부(11.7%)	환경부(84.8%)>교육부(12.9%)>보건복지부(1.8%)

주: 연구진 작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교사와 부모는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시민단체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그림 III-2-1 참조). 부모는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장 적다고 인식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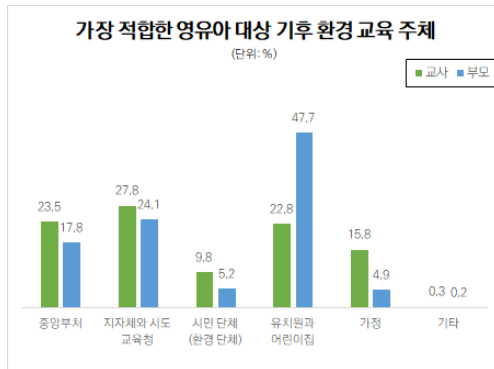
[그림 III-2-1] 다양한 주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관련한 부모와 교사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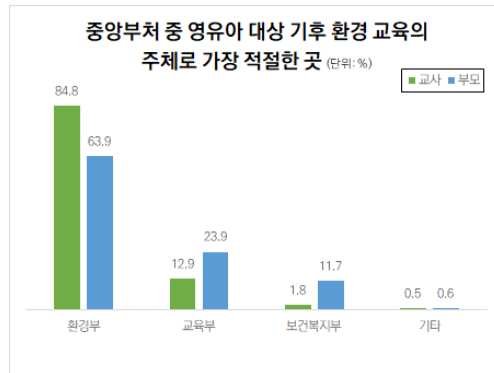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 환경 교육에 가장 적합한 주체로 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사는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을 꼽아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III-2-2 참조). 한편 기후 환경 교육 담당 부처로는 부모와 교사 모두 압도적으로 환경부(부모 63.9%, 교사 84.9%)가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I-2-3 참조).

[그림 III-2-2] 가장 적합한 영유아대상 기후 환경 교육
주체



[그림 III-2-3] 가장 적합한 기후 환경 교육 담당 부처



자료: 이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제3절

지자체 실무자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

1)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는 전임 시장의 공약인 ‘생태 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5개 어린이집을 선발하여 생태 친화를 실천하도록 3, 4년간 집중 투자하였으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생태 친화 교육과 부모 연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현 시장은 서울시 보육의 대표 브랜드로 모아어린이집을 내세우고 있으며, 모아어린이집에서 생태 친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3~5개 모아어린이집 원장, 대표 교사 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태 관련 비전과 실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해당 계획이 수립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 컨설턴트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모아어린이집 활동 예산은 500만 원이며 본예산은 구청을 통해 시비로 지급하는데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을, 원장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모아어린이집은 총 200여 곳이며, 공동체는 60여 개임). 또 교사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교사가 생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원장 중심으로 세미나와 토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예산 8000만~9000만 원). 요컨대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서 교원 공동체는 물론,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기관장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2)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다소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동남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보육 관련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인근 대학과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탄소중립 환경운동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연합회와 지역사회 연계, 관련 공모전, 캠페인, 시범 어린이집 운영을 준비 중이며 5개 지역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교육 포털을 통해 환경학교를 선정하고 있으며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선정하고 있으며, 교사 학습 공동체, 탄소학교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유치원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프로그램 자료를 제작하는 데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연계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3)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강원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유일하게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환경 교육, 기후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춘천시의 기후가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하여도 일교차가 크고 날씨 변화가 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상황이므로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 양육 지원으로 구분된다. 어린이집 지원은 찾아가는 숲 체험 활동, 보육 교직원 숲 체험, 인형극 공연, 탄소중립 실천 교육, 대체 교사 숲 교육 및 자원 재순환 관련 그림책 동화 구연으로 이뤄져 있다.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은 부모와 함께하는 숲 체험, 놀잇감 대여 사업, 플로깅, 환경의 날 행사를 운영 중이다.

〈표 III-3-1〉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대상	예산(연)
어린이집 지원	찾아가는 숲 체험 활동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으로 유아 숲 지도사가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4~5월, 9~10월)	봄, 가을 각 20개 기관	910만 원
	보육 교직원 숲 체험	보육 교직원 대상 원에서 할 수 있는 숲 프로그램 교육(4월, 9월)	-	50만 원
	인형극 공연	어린이날에 환경오염을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와 융합하여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뮤지컬 공연 실시	400명	아동 1인당 5000원
	탄소중립 실천 교육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와 협업하여 만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관련 내용으로 이론 교육과 자연물을 활용한 장난감 만들기 진행	20명 내외 3회 진행	비예산
	대체 교사 숲 교육 및 자원 재순환 관련 그림책 동화 구연	생애 주기별 탄소중립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영유아 시기부터 구연동화 및 놀이, 체험을 실시	-	-
가정 양육 지원	부모와 함께하는 숲 체험	부모 1명, 유아 1명으로 구성되어 불가를 토요일(격주)에 운영하고 유아 숲 지도사가 진행	20명	어린이집 숲 체험 활동 예산과 통합되어 있음
	놀잇감 대여 사업 (놀잇감 병원)	가정의 경제 부담 완화 및 자원 순환 기능	신청자	100만 원 장난감 수리 기사 별도 채용

구분	프로그램	내용	대상	예산(연)
	플로깅, 환경의 날 행사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업하여 진행, 재사용 및 쓰레기 줄이기 활동		50만 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숲 체험 활동은 지역 내 공원 같은 작은 숲을 찾아가는 활동이고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매우 높은 활동이다. 춘천 시내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각 어린이집에 1개 반 정도밖에 지원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춘천시 어린이집 192곳 중 40곳에만 지원하는 실정이다.

가정 양육 지원 중에 춘천시에서 특화하여 진행하는 사업은 놀잇감 병원 사업으로 2021년에 전국에서 2번째로 추진한 사업이다.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였으며 장난감 순환 캠페인과 연계되어 있다. 장난감 폐기물을 줄여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300개 이상을 수리하고 있으며 부품이 필요하지 않은 한 별도의 자부담 비용은 없다. 이를 위해 장난감 수리 기사를 고용하여 운영 중이며 이용자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춘천시의 다양한 관련 기관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도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와 함께 플로깅(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이나 환경 행사 등을 운영 중이거나 향후에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문화협동조합에서는 무료로 숲 지도 교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활하게 숲 체험 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돕고 있다.

4)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점 추진하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은 놀이 중심 숲 생태 교육이다. 놀이 중심 숲 생태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하남시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하남시의 어린이집 중 놀이 중심 숲 생태 교육에 관심 있는 어린이집 원장, 교직원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 숲 생태 교육과 어린이집 인증(현판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원장 및 교직원 연수와 기후변화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린이집 생태 프로그램 공모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생태 프로그램 공모전은 놀이 중심 숲 생태 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소속된 원장과 교사가 자체적으로 생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에 출품된 프로그램은 별도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놀이 중심 숲 생태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는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또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육아 친구 나눔 마켓을 열기도 한다. 나눔 마

켓은 중고품 장터를 열어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육아 친구 나눔 마켓은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근방 미사수변공원이거나 하남문화재단에서 열린다.

플로깅 하남 속으로는 하남시 관광 활성화와 기후변화 활동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남시 주요 관광지에서 산책과 더불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더불어 탄소중립 환경교육 관련 영상 시청, 부모와 자녀가 생활 속 탄소 배출 줄이기 실천 약속 실천서 만들기 미션을 제시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관광·기후변화 교육이 혼합된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하남시에서는 독특한 설립 배경이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한 숲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나무고아원에서 시작됐다. 하남시 택지 개발 당시 제거될 상황에 처한 다양한 나무를 한강 근처에 만든 나무고아원에 옮겨 심었다. 볼거리가 많아지자 방문객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하남시에서는 나무고아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하였다. 하남 유아숲체험원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표 III-3-2〉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대상	예산(연)
놀이 중심 숲 생태 어린이집 교육(인증)	숲 생태 어린이집 프로그램 교육, 연수	매년 60개 기관	1700만 원
플로깅 하남 속으로	부모와 자녀와 함께 플로깅(조깅과 환경 정화 혼합 활동)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300가구)	-
육아 친구 나눔 마켓	어린이날에 환경오염을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와 융합하여 눈높이에 맞게 제작하여 뮤지컬 공연 실시	400명	아동 1인당 5000원

나. 기후변화 관련 성공적 활동과 어려움

1)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의 성공 요인

첫째, 면담에 참여한 육아종합센터장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기후변화 활동과 관련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원장과 교사가 기후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원장과 교사의 일상이 먼저 변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활동은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교육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영유아에게 자연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자연을 통해 체득하고 일상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춘천시 및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활동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 요건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센터, 교육원과 연계가 된다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 추진의 어려움

첫째, 영유아를 위한 기후 관련 사업과 활동 추진 시 겪는 어려움은 이러한 사업을 끌고 갈 전문 인력이 많지 않다는 점과 사회 분위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르익은 반면 현장에서는 대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뤄지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예산 부족을 들었다.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부모와 함께하는 숲 체험 활동을 신청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이 많은데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였다. 하남시도 적은 예산에 많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 숲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의 질 자체가 낮아지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단독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상황이라 센터장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데 공간 문제로 확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기후변화와 관련한 일반인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 지자체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은 기후변화 사업 발굴과 관련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다.

다. 지원 요구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이행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관련 교원 연수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원장 및 교사 교육은 대집단 교육보다 소집단 워크숍 및 컨설팅이 효과적인데 이러한 교육 방식에는 많은 예산이 든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핵심 부처인 환경부, 유관 부처인 산림청에서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 연수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도 연수를 위한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시간 확보를 위

한 대체 인력 지원 등의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가 기관에서보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삶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모 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

넷째, 영유아 대상의 기후변화 관련 교육 전문가의 확보 또는 양성이 필요하다. 생태 관련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므로 시도청과 교육청에서 확보한 전문가를 강사로 제공하거나, 강사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의 대학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교육 전문가 집단 양성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기후 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단순히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시설 및 기관, 프로그램, 행사 등을 총망라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많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이 좀 더 친환경적이며 탄소중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 규정 및 기준 개정과 더불어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앙정부(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나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어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면담, 2023년 3월).

일곱째,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자유롭게 놀이 중심으로 연결해 주기 위해 생태 및 숲 놀이터를 만드는 등의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덟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하지만 재활용률은 떨어지는 현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단기가 아닌 장기의 관점에서 부처가 재정적,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유아교육진흥원

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

1)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연수 과정과 연계하여 유치원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들에게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2022년 개발한 지속가능한 실천적 유아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진이 개발하고 7차시(대상 인원 300명)로 구성하여 진행한다(클릭 e-편한 사이버 연수). 2015년에는 서울형 유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 자연 친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연수와 연결지어 6차시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유아교육진흥원 사업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연 친화 유치원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표 III-3-3〉 서울 유아교육진흥원 관련 연수 예시

구분	연수	기후변화 관련 내용	대상	내용
자율	클릭 e-편한 사이버 연수 (7차시, 2022년 개발)	자연과 함께 자라요 환경 놀이 자유 놀이와 바깥 놀이	유치원 교사 300명	1. 생태전환 교육이 왜 필요할까? 2.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적 유아 생태전환 교육의 이해 3. 프로그램의 실제 1: 사랑할까, 먹을까? 4. 프로그램의 실제 2: 내가 행복하면 동물도 행복할까? 5. 프로그램 실제 3: 음식이 말을 한다면? 6. 프로그램 실제 4: 지구와 함께 놀아요 7. 프로그램 실제 5: 어린이 농부가 되어요
자율	클릭 e-편한 사이버 연수 (6차시, 2015년 개발)	서울형 유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 자연 친화 프로그램	유치원 교사100명	1. 유아와 자연 친화 교육 2. 유아 자연 친화 교육 프로그램의 이해 3. 3세 유아 자연 친화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4. 4세 유아 자연 친화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5. 5세 유아 자연 친화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6. 유아 자연 친화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및 교원용·부모용 자료 소개

자료: 서울유아교육진흥원(2022). 2022년 클릭 e-편한 사이버 연수 11월 운영 계획(기획연구과). 내부 자료.

2) 경남유아교육진흥원

경남유아교육원은 진주와 김해분원이 있어 관련 연수 등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경남유아교육원에서는 생태전환 교육은 기후변화, 생태환경 교육은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들 교육은 정책적으로도 강조되고 있어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울러 경남 미래 교육 5대 약속 중 4번째 약속이 지속가능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태전환 교육 지원이므로 경남의 교육 방향과도 일치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진주분원에서는 교원의 기후위기 및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기후위기 및 변화와

관련해 유아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해분원에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생태환경 교육 대전환에 직속 기관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교원, 교육 전문직, 유아 및 학부모, 지역 주민, 지역 대학(유아교육과), 만 3~5세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본원인 경남유아교육원에서는 교원 연수 운영, 생태 관련 문제를 주제로 삼는 전문 학습 공동체 운영, 정보자료실 내 생태환경 코너 및 생태 관련 도서 꾸러미 사업 운영, 유아교육원 소식지 ‘솔잎향기’에 연 3회 생태 관련 주제의 특집 기사 게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분원에서는 유아 및 교원을 위한 환경 노래 제작 배포, 교원 대상 목공 및 숲 힐링 체험을, 김해분원에서는 실내 체험장을 운영하고, 체험 참여 시 일회용 생수병 반입 금지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김해분원의 실내 체험장에서는 ‘풍력으로 전기 만들기’(풍력발전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발전기에 연결된 날개를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음을 경험), ‘자전거를 타면 지구가 튼튼’(인간 동력이라고도 하는 에너지 자원을 경험), ‘신재생에너지 공장’(종이, 병, 캔 등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만드는 경험) 등을 운영하여 유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 및 학부모, 교원들의 생태 감수성과 실천력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원 자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속하여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진주분원에서는 교원들이 숲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및 변화와 연계하여 유치원 수업에 적용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해분원에서는 친환경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미래의 지구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방법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사업과 프로그램은 연중 진행하며, 연수 교과목 편성은 교육부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및 경남 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연수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 진주분원은 관련 프로그램을 대학에 위탁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자체 개발하기도 하였다. 진주분원에서는 교원 및 교육 전문가 TF를 구성한 후 프로그램 자문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하였다. 향후 교원 연수에 해당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현장 수업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표 III-3-4〉 2023년 경남유아교육원 생태환경 관련 연수

구분	연수	기후변화 관련 내용	대상	비고
직무 1	신규 임용 예정 교사 (2시간, 1회)	자연과 함께 자라요_환경 놀이 자유 놀이와 바깥 놀이	유치원 교사 72명	원격 연수 2종
직무 2	놀이가 살아나는 수업 연수 (1시간, 2회)	교육과정 실천 사례 발표 대회 우수 사례(생태 연구 활동 사례)	유치원 교사 80명	사례
직무 3	찾아가는 교육과정 실행 연수 (3차시, 3회)	자연과 연결된 우리	유치원 교사 75명	이론 사례
		숲 놀이 유치원 사례		
직무 4	모두 다 행복 교원 힐링 연수 (3차시, 8회)	생태 체험 연수 (테라리움 및 알로에 체험 숲 & 목재 체험 등)	교원 120명	체험
직무 5	유아 교육 전문직 (3차시, 1회)	생태 화분 만들기	교육 전문직 40명	체험
자격 1	유1정 자격연수 (10차시, 2회)	유아 생태환경 교육의 실제	유치원 교사 260명	이론 체험
		탄소중립 중점 유치원 운영 사례		
		알로에, 허브 및 목재 체험 활동		
원격	원격 연수 프로그램 (4차시)	자연과 함께 자라요_환경 놀이(1)	유치원 교사 교육 전문직	원격
		그림책을 활용한 생태전환 교육(3)		
계	총 64시간	(내용) 이론·체험·실천 사례 나눔	647명	

자료: 경남유아교육원(2023). 2023년 경남유아교육원 생태환경 관련 연수 자료 현황. 내부 자료.

3) 충북유아교육진흥원

충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다. 교수·학습 자료는 장학사와 유치원 교사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놀이 책자와, 식물 자료, 교육용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의 교수·학습 자료의 특징은 환경과 관련된 날과 연계하여 제작한 점이고 또한 QR코드로 연계하여 교사와 유아 모두 관련 자료를 쉽게 연계하여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영상도 QR코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자료의 사용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사업은 자연 놀이 생태 체험 운영이다. 생태 체험장에서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수확하는 체험이다. 자연 놀이 생태 체험 운영은 공모를 통해 유치원을 선정하고 작물당 유아 25명이 수확까지 3회 정도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현재는 총 4가지 농작물인 감자, 고구마, 배추, 무를 재배하는 생태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총 100명의 유아들만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상 톡톡 프로그램은 주로 농어촌 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리수거 활동 참여 프로그램, 메타버스 무빙

시어터 공연, 퍼포먼스 미술 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호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취약 지역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운영한다.

〈표 III-3-5〉충북유아교육진흥원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대상	예산(원)
탄소중립 교수·학습 자료	놀이 책자 1종, 실물 자료 6종, 교육용 콘텐츠 18종	충북 소재 유치원 원장 및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7500만 원
자연 놀이 생태 체험 운영	체험장에서 농작물(감자, 고구마, 배추, 무) 재배 및 관찰	체험에 응모한 유치원당 25명씩, 작물당 25명 총 100명	460만 원
찾아가는 상상 톡톡 프로그램	원거리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놀이 프로그램으로 가정·유치원 분리수거 실천 내용, 환경 관련 공연 등	9개 유치원 412명	

나. 기후변화 관련 성공적 활동과 어려움

1)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의 성공 요인

경남유아교육원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교원들의 적극적인 연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실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연수 참여 시 일회용품 사용 불가 및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기 등의 실천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현장 수업 사례가 공유되고 연구 주제로 선정되는 것을 볼 때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 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 관련 경각심을 갖게 하여 현장의 기후위기 관련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셋째, 진주분원은 교원의 목공 및 숲 체험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한 인식을 전환하고 유치원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었고, 김해분원에서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은 유아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유아의 만족도를 높였다. 유아뿐만 아니라 교사도 다양한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

2)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 추진의 어려움

경남유아교육원의 사업 및 활동 추진과 관련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우수 강사 인력 풀과 연수 대상자의 다양한 체험 기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정보와 활동 방법 및 우수 사례가 부족하여 교육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예산 확보, 유관 기관과의 협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은 생태 체험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 농업기술원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였으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는 많은데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다. 지원 요구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이행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유아교육진흥원 실무자들의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관련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유치원 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즉, 우선적인 주제 또는 영역으로 유치원 환경교육 기반 조성 사업과 기본 생활습관 교육과 연계된 생태시민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인식을 위한 학부모·유아 교육,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유치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일상생활 공간이 친환경적인 그린 유치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 기관을 지역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할 우수 강사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교원 연수를 위한 강사 및 우수 프로그램 및 교사 활용 자료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 동화도 많지만 학습 동화로 재미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자료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 교육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 연수도 일방적인 연수보다 교원 학습 공동체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련 지침 및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관련 교사 연수와 유아 대상 수업의 시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가정과 유치원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자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중앙교육연수원 차원의 생태환경 교육 원격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예산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매뉴얼 개발 및 배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기후변화 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따른 보상 등을 장려해야 한다. 예컨대 대중교통 100일 이상 이용 시 혜택 주기, 동네 주민센터로 건전지, 우유팩을 모아 가면 휴지 및 종량제 봉투로 바꿔 주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에서는 교원 연수 운영을 위한 여건 지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 운영 매뉴얼 제작, 예산 지원, 환경 개선, 자료 개발, 매뉴얼 개발, 교원 연수, 유관 단체 및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홍보, 현장 체험이 가능한 공간 설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서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에코라이프 가이드북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 운동 마련, 기후변화 해결 방안(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홍보 실시, 기후변화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및 매뉴얼 보급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문화, 예술, 복지사업)로 융합하고 운영하여 유아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용어 사용이 혼재되어 있어 개념 정립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업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관련 용어 사용과 관련해 유관 부처(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간 협의가 필요하고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전문가 워크숍 및 정책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1. 전문가 의견 수렴⁴⁵⁾

가. 개요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의 방향성과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다음 단계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과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최종 결과물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가 소통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워크숍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워크숍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유아교육 지원기관, 그리고 지역 환경교육 담당 기관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워크숍에서 다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방향과 목표 논의
- 어린이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과제 도출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논의
-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관련 전문가 논의
- 전략별 추진 계획 등 과제 연구 내용 논의

45) 전문가 워크숍 및 정책 세미나 개요는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정책 세미나

정책 세미나는 육아정책연구원과 환경연구원이 김미애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환경부 기후환경정책실장 및 환경교육 담당자, 서울특별시청 기후환경정책과장 등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실무자, 환경교육학회, 한국 육아보육학회 등 학계 대표, 그리고 어린이집 총연합회 등 육아 교육·보육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영유아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책 이행 로드맵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라. 소결

전문가 워크숍과 정책 세미나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정책,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범위, 영유아 기후위기 교육,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4개 부문의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전략 및 이행계획을 제시한다.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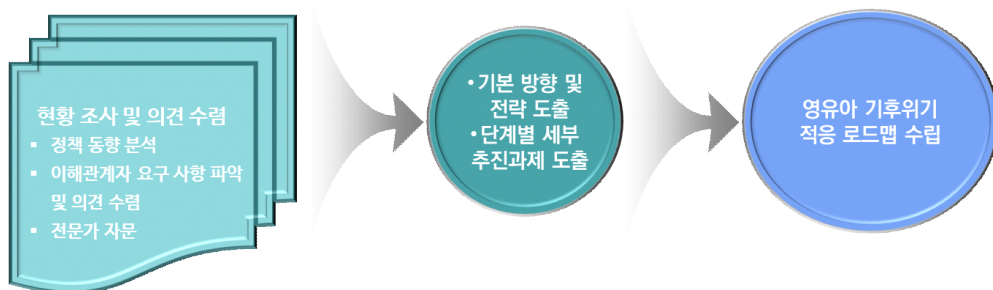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기본 방향



1. 주요 개선과제 도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동향 조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IV-1-1]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도출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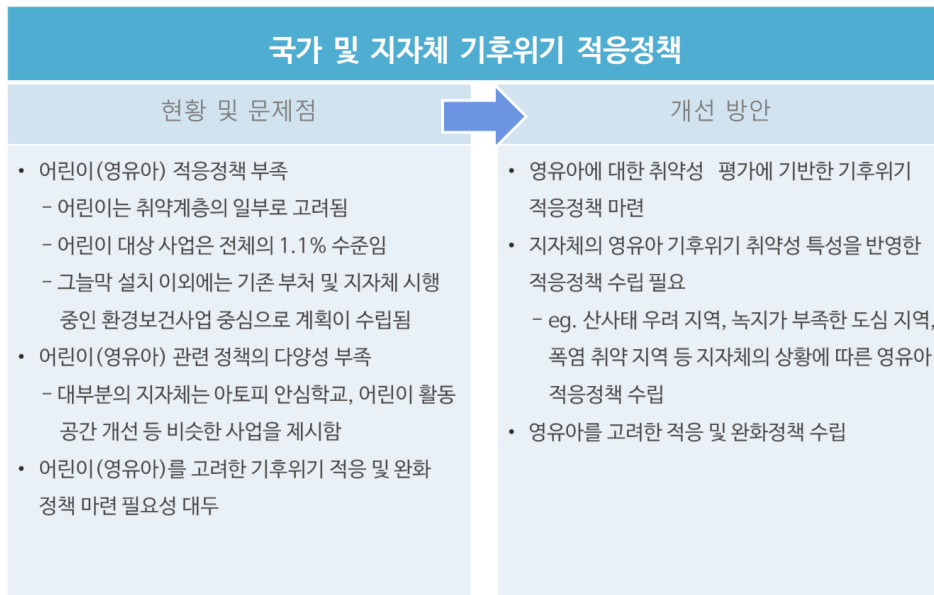
가. 국가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정책

어린이는 생물학적인 민감성, 행동학적인 특성 등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특히 영유아는 신체가 아직 발달하는 중이므로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더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 따라서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및 적응정책은 영유아를 충분히 고려하고 영유아를 중심에 두어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 해외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고려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위기 적응정책에서 영유아는 취약 계층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1.1% 수준이다. 또 놀이터 그늘막 설치 사업 외에는 기존 각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환경보전 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었

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토피 안심학교,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사업 등 지역의 취약성을 고려한 사업이 아닌 동일한 사업만 계획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 과제로 우선 영유아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취약성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관련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기획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성 특성을 반영한 적응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사태 또는 산불 우려 지역에서는 대피소, 쉼터에서의 영유아 놀이 공간 또는 심리 치유 공간 확보, 폭염 또는 미세먼지 취약 지역에서의 야외(숲속) 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체험 시설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영유아를 고려한 적응 및 완화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책에서의 영유아 주류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림 IV-1-2]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개선 방안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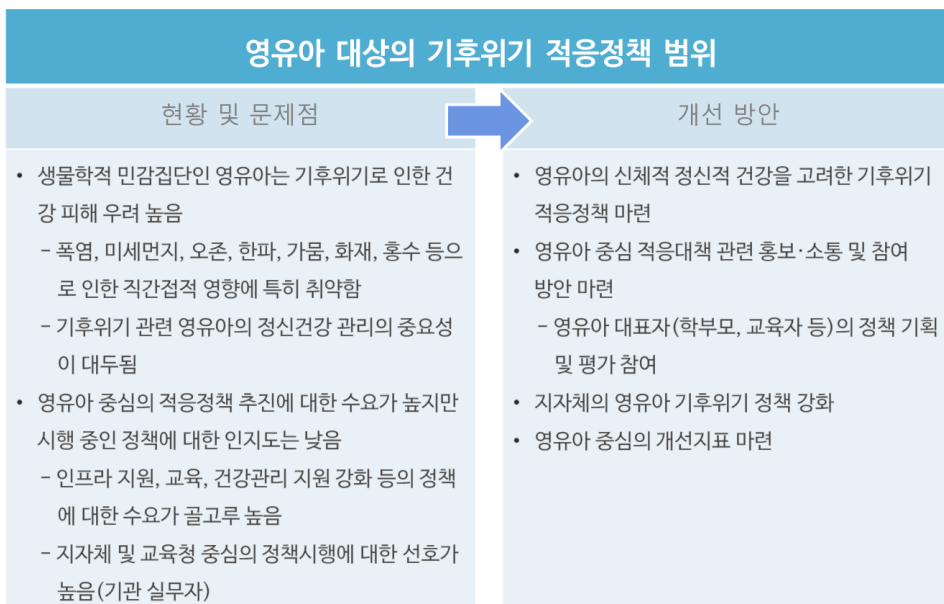
나.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범위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유아는 기후위기로 인해 악화되는 폭염, 미세먼지, 오존, 한파 등으로 빚어지는 건강 피해에 취약하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영유아가 기후변화 관련 재난으로 인하여 신체

적인 피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도 겪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를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한편 실무자와 학부모는 영유아 중심의 적응정책 추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특히 시민 단체에 비하여 지자체 및 교육청 중심의 영유아 적응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적응정책에 대한 실무자와 학부모의 인지도는 낮았다. 이는 영유아 대상의 적응정책에 참여 및 소통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동시에 수혜자가 체험하는 정책 역시 부족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하향식 형태의 정책 마련이 아닌 상향식 형태의 정책 기획 또한 필요하다. 영유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의 참여뿐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IV-1-3]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범위의 개선 방안



자료: 저자 작성.

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교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교육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부문이다. 전체적으로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후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교육의 목표로 기후시민 양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세계적인 흐름과 발맞춘 기후시민 양성

을 위한 체계적인 기후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의 방법이나 틀과 관련해서는 집단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학부모들은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환경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교사들은 지방 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의 지원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특히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기관에서의 기후위기 정책 시행을 위해서 학부모의 지원과 이해가 필수라는 요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실천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로는 교사의 업무 과다, 의무 교육 대상 과목에 비하여 낮아지는 우선순위,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지원 시스템의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현재의 기후위기 관련 교육은 원장·원감 또는 교사들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진행되는 형편인데 면담 대상자의 관심도와 의지에 따라 기관에서의 기후위기 교육 진행 정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교육도 캠페인, 놀이 활동, 지역 시설 방문, 다큐멘터리 시청 등 일회성 이벤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기후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다면 이러한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⁴⁶⁾에 영유아 교육 강화를 포함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 교육 서비스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환경교육통합 플랫폼과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통하여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충북권, 충남권의 환경교육센터는 유아환경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대상의 우수 환경 도서 대여 사업, 탄소중립 환경교육 자료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46) 환경부(2020),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

[그림 IV-1-4] 환경교육센터의 유아 대상 프로그램

<p>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실 놀이 · 에너지 편 ·</p> <p>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에너지는 전기는 전선을 통해, 열은 보일러나 난방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에너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절약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p>		<p>종목권[종목권 유아환경교육관] 유아 2023년 [3월~5월] 쓰레기가 아니라고? (자원순환) 교육시간: 120분 신청기간: 수시 교육시간: 오전(10:00), 오후(13:00)</p>
<p>반려수가 놀이로 우리 함께 지구를 지켜요!</p> <p>지구가 아파요! 물을 아껴주세요!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를 아끼고, 물을 아껴주세요!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를 아끼고, 물을 아껴주세요!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를 아끼고, 물을 아껴주세요!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를 아끼고, 물을 아껴주세요!</p>		<p>종목권[종목권 유아환경교육관] 유아 2023년 [6월~8월] 초록 에너지들 찾아라! (친환경 에너지) 교육시간: 120분 신청기간: 수시 교육시간: 오전(10:00), 오후(13:00)</p>
<p>자수가 자꾸 아파요. 왜 그럴까요?</p> <p>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를 아끼고, 물을 아껴주세요!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를 아끼고, 물을 아껴주세요!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를 아끼고, 물을 아껴주세요!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를 아끼고, 물을 아껴주세요!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를 아끼고, 물을 아껴주세요!</p>		<p>종목권[종목권 유아환경교육관] 유아 2023년 [9월~11월] 동물들의 집이 사라졌대!(공생과 생물다양성) 교육시간: 120분 신청기간: 수시 교육시간: 오전(10:00), 오후(13:00)</p>
<p>자연환경</p> <p>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아끼주세요!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아끼주세요!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아끼주세요!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아끼주세요!</p>		<p>종남권[종남권 유아환경교육관] 유아 (자연환경) 자연과 만나는 아이 교육시간: 90분 신청기간: 수시 교육시간: 오전(10:30), 오후(13:00)</p>
<p>수도권</p> <p>수도권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수도권 환경을 보호하고, 수도권 환경을 아끼주세요! 수도권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수도권 환경을 보호하고, 수도권 환경을 아끼주세요! 수도권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수도권 환경을 보호하고, 수도권 환경을 아끼주세요! 수도권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수도권 환경을 보호하고, 수도권 환경을 아끼주세요!</p>		<p>수도권[수도권 유아환경교육관(비대면)] 유아 [7월] 비대면 환경교육카드(물-1곳 추가접수) 교육시간: 90분 신청기간: 수시 교육시간: 오전(09:00)</p>

자료: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2023. 5. 13. 인출)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하지만 인터뷰에 응한 교사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인지하고 있더라도 지원 기반과 지역 전문가의 부족으로 실제로 활용한 사례는 드물다. 예를 들어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각 광역 시도와 기초지자체에 1개 기관이 선정되기 때문에 담당 지역 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센터 방문을 문의하였을 때, 예약이 다 찼기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또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영유아에게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활용을 포기하였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러한 현황은 기후 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⁴⁷⁾라고 규정하였다. 이 법령을 근거로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체계적인 기후시민 양성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기후 교육을 누리과정의 일부로 진행하며, 동시에 교사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교육 포털 등을 통해 개발하는 교육 콘텐츠는 교육 현장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유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기후변화환경교육).

아교육진흥원을 통하여 개별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지역 보육 지원 시스템-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유아 환경교육을 위한 지역의 전문가 풀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IV-1-5]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교육의 개선 방안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교육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시민 양성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 • 학부모와 교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체험 위주, 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선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학부모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기후위기 교육 경험은 이벤트 중심으로 진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기관 방문, 다큐멘터리 시청, 놀이 활동 등 - 타 주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짐(누리과정 개정 에 따라 교육의 근거가 사라짐) - 원감·교사의 관심 및 의지에 따라 교육 진행 - 영유아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높음 • 교사 교육(연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이수 경험은 매우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교육에 대한 실천력 부족 - 업무의 과다 • 전문 기관의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공유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교육부 등 중앙 부처 및 산하 교육 담당 기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 - 제공되는 프로그램·자료 중 영유아 대상 자료는 매우 부족함 - 지역 단위에서 지원 가능한 전문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시민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함 • 일상생활 속 체험 활동과 학부모 대상 교육을 포함한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기후위기 교육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국가 단위 지침 제공 • 교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교사 연수 의무화 • 영유아 교육 지원 플랫폼 단일 창구 마련 • 개발되는 콘텐츠 활용을 위한 소통 창구 강화 • 지자체 단위의 전문가 양성 및 제공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료: 저자 작성.

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유아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건물 기관 사업, 제로에너지 기관 사업 등 기후위기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은 한정된 예산으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유아 교육·보육기관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의 사업보다는 실제로 많은 기관이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영유아와 학부모가 제로에너지 또는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인식을 바꾸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 단위의 기후 친화적 영유아 활동공간을 만드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유아 교육 기관의 시설 개선과 함께 영유아 체험 및 놀이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영유아 시기의 숲, 친환경 공간 등의 체험은 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시기의 자연환경 체험이 영유아 발달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⁴⁸⁾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증가, 폭염 등의 이유로 특히 대도시의 어린이들은 이러한 친환경 공간 체험 기회가 한정적이다. 또 지역 환경교육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체험 공간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 친화적 영유아 친환경 체험 및 놀이 공간도 지자체가 주도하여 확충하여야 한다.

한편 시설의 개선과 함께 운영 방식도 개선하여야 한다. 다수의 교사들은 교재·교구의 재사용, 파손된 장난감 업사이클링 또는 수리 등 기후 친화적인 운영 방식이 안전과 위생·청결에 대한 우려로 학부모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기관 평가 과정에서 안전성 부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지는 있어도 실제로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실제로 위생, 물리적인 안전이 우선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기후 친화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운영 지침 마련과 평가 체계 개선 등 제도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선 방안으로 친환경 운영 체크리스트, 제로에너지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8) Ulset et al(2017), Hodges(2019), "Are outdoor preschools changing U.S. education?", 2023. 8. 12. 인출.

[그림 IV-1-6]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개선 방안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사업(탄소중립 유치원, 제로에너지 유치원 사업 등)은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다수의 유치원·어린이집은 인프라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함• 지역의 지원 시스템 부재•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 부재• 시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평가 체계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등을 위한 액션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 교재·교구의 수선, 업사이클 물품 이용 등- 학부모의 인식도 오래된 완구 사용, 지속가능한 물품 사용에 부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단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 광역 단위의 거점 지원 센터 마련• 친환경적 공간 접근성 강화• 시설 기후위기 대응 체크리스트 마련 및 평가체계에 반영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추진전략



1.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개요

이 연구를 통하여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IV-2-1]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비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통해서 추구하는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시민’이다. 비전은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기후탄력적인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 기반의 책임감 있는 기후시민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의 미래상을 나타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기후시민 교육 강화, 그리고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등 3대 전략을 통한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의 목표로 선정하였다.

2. 추진전략

가.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정책에서의 특정 의제 주류화는 모든 정책에서 그 의제가 충분히 고려되어 의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⁴⁹⁾ 즉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특정 어젠다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것을 주류화로 정의할 수 있다. 기후위기 적응정책에서의 영유아 주류화는 현재 시행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영유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영유아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신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어린이의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UNICEF의 어린이 기후 리스크 지표 개발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모든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어린이의 관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페루(Salidas Seguras), 필리핀, 조지아 등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에서 어린이 주류화 방안을 도입하였다.⁵⁰⁾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를 단순히 ‘취약 집단’의 일부로 모호하게 규정하지 말고 ‘어린이’와 ‘영유아’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영유아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평가하여 어느 부문에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발달단계의 영유아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후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유아 취약성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생후 1000일 이하 영아의 취약성 데이터는 전혀 없다시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가 부족한지를 파악함으로써 데이터 구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의 선정, 지표의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먼저 정리하여야 한다.

동시에 영유아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호주의 울런공시에서는 영유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시의 정책에 반영한 성공 사례가 있다.⁵¹⁾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하여 환경 이슈를 이해하고 시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여 시의 도로 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당장 영유아들이 국가 또는 지역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어린이집연합회 등의 대표자, 학부모 대표, 또

49) Cambridge Dictionary, “Mainstreaming”, 2023. 8. 15. 인출.

50) 관련 내용은 제2장에서 서술하였다.

51) de Rosnay(2022), “How do we empower children for their uncertain future?” pp. 5-6.

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실무자들이 지역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에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정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위와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영유아 주류화 추진전략의 두 이행과제로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와 영유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을 선정하였다.

나. 기후시민 교육 강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후위기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기후위기 교육의 목적으로는 기후시민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감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전략으로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기후시민 교육 강화를 도출하였다. 기후시민 교육은 기후 리터러시(climate literacy) 교육으로 명명할 수 있다. 기후 리터러시는 기후 과학 리터러시(climate science literacy)의 줄임말로, 인간과 사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위기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즉 지구 기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후에 관한 근거 기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하며,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정보 기반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⁵²⁾ 이러한 능력은 곧 기후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기후시민이란 기후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민이다.

영유아의 기후위기 교육은 기후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후 리터러시 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기후위기 교육은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영유아 환경교육은 지속가능 교육, 녹색성장 교육, 생태전환 교육, 탄소중립 교육 등 사실상 같은 내용을 일관적이지 못한 제목으로 진행해 온 경향이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특히 공교육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유아 교육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기후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 리터러시 교육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지되었듯이 환경부와 교육부 등 중앙 부처에서는 영유아의 기후위기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낮다. 더욱이 교사들의 환경교육 연수 경험은 매우 적다. 영유아 교육을 담당한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그리고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 등 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이 과제에서 제시하는 전략에는 제도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 지역 자원, 거점 기관 등의 기반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 또한 포함되어야

52) Climate.gov, "What is climate science literacy" 2023. 5. 15. 인출.

한다.

다. 영유아 활동공간⁵³⁾의 기후탄력성 제고

기후탄력성⁵⁴⁾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비하고 회복하고 적응하는 역량을 의미하며,⁵⁵⁾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후탄력성을 고려할 때 3가지 요소를 명심해야 한다. 개인의 기후탄력성, 시설의 기후탄력성, 그리고 운영 체계의 기후탄력성이다.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는 이 중 시설의 환경교육과 운영 체계의 기후탄력성에 중점을 둔다.

Treichel(2022)⁵⁶⁾은 어린이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후변화 교육, 어린이 중심의 기후 취약성 및 역량 평가, 그리고 어린이 중심의 소통을 제안하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업들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적응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전략인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는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 구축은 탄소중립 시설, 제로에너지 시설 구축과 같이 현재처럼 소수만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로 진행하며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개별 기관 단위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실천을 통한 효능감이 충분히 체감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또는 기후 적응력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지침)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아 교육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뿐 아니라 운영 체계의 기후 친화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진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녹색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⁵⁷⁾ 전략은 어린이집 녹색 구매 체계 구축 및 지역 기반 교재·교구 순환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였다.

53) 이 보고서에서는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 놀이 시설 또는 체험 시설을 통틀어 영유아 활동공간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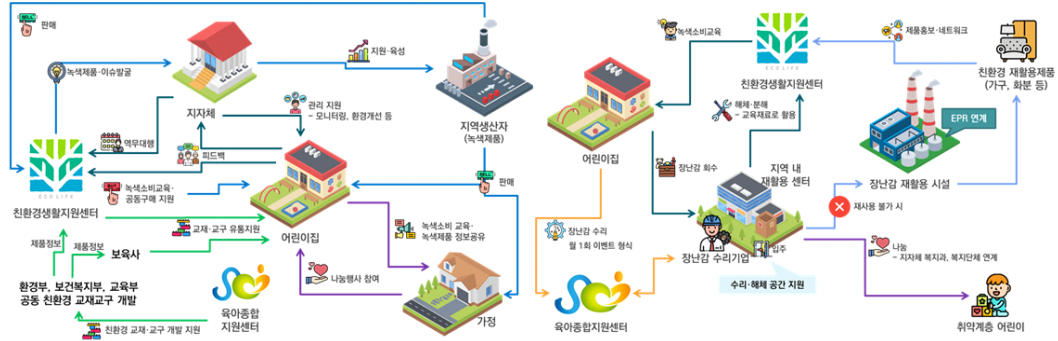
54) climate resilience를 의미하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기후탄력성, 회복탄력성, 기후회복력 등으로 혼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문진영 외(2018)에 따라 위 용어들을 모두 기후탄력성으로 통일하여 표현하였다.

55) U.S. Climate Resilience Tool Kit, 2023. 8. 5. 인출.

56) Treichel(2022), p. 27.

57) 주문술, 정다운 외(2021), pp.165-194.

[그림 IV-2-2] 어린이 활동공간 녹색화 전략



자료: 주문술, 정다운 외(2021), pp.175, 183.

구체적으로 연구는 어린이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거점이 되어 구매와 사용 단계에서 기후 친화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운영 체계 기후탄력성 제고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운영 과정에서 기후 친화적인 운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기후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3절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전략별 이행계획



1.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전략별 이행계획 개요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전략별 이행계획은 [그림 IV-3-1]과 같다.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기후시민 교육 강화’,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등 3개의 전략 각각에 2개의 세부 이행계획을 선정하였으며, 이행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과제를 마련하였다. 단기 과제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2025년까지, 중기 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준 연도인 2030년까지, 그리고 장기 과제는 2025년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나 2035년까지로 계획하였다.

[그림 IV-3-1]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구분		단기 (~2025)		중기 (~2030)		장기 (~2035)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영유아 대상 기후 위기 취약성 평가	영유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영유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고려 정도 분석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영유아 적응전략 포함			
		의사결정 과정의 영유아 대표자 참여 제도화					
기후시민 교육 강화	기후 리터러시 교육 체계 확립	현행 제도와 연계된 영유아 기후교육 방안 마련		기후 리터러시 교육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국가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제도화 및 시행	
	영유아 기후교육 기반 강화	지역 영유아 기후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영유아 기후교육 거점 마련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영유아 중심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		환경교육 플랫폼-지역 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교육 역량 강화 계획 수립		체계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 마련		영유아 교사 기후교육 제도화 전략 마련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 구축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시설 지표 마련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의 기후탄력성 제고 방안 마련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구축	
		지역 기후친화적 영유아 체험 공간 구축 계획 수립		지역의 기후친화적 영유아 체험 공간 구축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운영 체계 구축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지침 마련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지표 및 평가 방안 마련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체계 제도화	

자료: 저자 작성.

2.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가. 현황 및 과제

영유아는 기후위기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피해에 특히 민감한 집단이지만 우리나라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어린이 기후 리스크 지표(CCRI)를 제공하고 국가 정책의 어린이(영유아) 고려 정도를 평가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대상에 어린이(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동시에 영유아의 취약성과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된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나.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1) 영유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연구 사업 수행

영유아 취약성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등 영유아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주요 고려 요소 검토
-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취약성 데이터 검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달단계별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 요소 도출
- 발달단계별 영유아 기후위기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마련
- 영유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여 발달단계와 지역에 따른 영유아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과학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방법론 확립
- 발달단계별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 지역별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기후위기 취약성 데이터베이스 보완 및 고도화
-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주요 시사점 도출
- 주기적인 영유아 기후위기 평가를 위한 방법론 고도화

다. 영유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1)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고려 정도 분석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과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그리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현재 시행 중인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영유아 관점에서 검토하여 정책의 영유아 고려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고려 정도 분석
-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개선과제 도출
- 영유아 중심의 적응정책 수정(안) 및 신규 정책 제시

2) 의사결정 과정의 영유아 대표자 참여 제도화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영유아가 충분히 고려되고, 영유아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대표자가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지자체 기후위원회의 영유아 대표자⁵⁸⁾ 참여 방안 마련 및 시범 사업 진행
- 광역지자체 기후위원회의 영유아 대표자 참여 방안 마련
- 국가 기후위원회 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영유아 대표자 참여 방안 마련
- 영유아 대표자 참여 제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3)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영유아 적응전략 포함

58) 영유아 대표자 구성을 위해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 중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선행 과제에서 도출한 영유아 중심의 적응정책(안)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과정에 영유아 대표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부문별 영유아 적응정책 도출
-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분야별 영유아 적응정책 도출
-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수립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적응대책과 세부시행계획에 도출된 내용 반영

4)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전략의 최종 과제이다. 순차적으로 진행된 영유아 주류화 사업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달단계별 지역별 영유아의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결과 검토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의 영유아 중심 과제의 이행 상황 점검
- 점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중점 전략 및 우선순위 과제 선정
- 영유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3. 기후시민 교육 강화

가. 현황 및 과제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는 생애 주기별 교육 강화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거나 활용되고 있다. 동시에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 대상의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 및 교사 대상의 프로그램은 부족하며, 일선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위의 자원에 대한 인식, 체감 정도, 그리고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 교육은 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기후 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이슈가 녹아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무교육으로의 편입, 지역 단위의 기후 교육 지원 체계의 확대, 그리고 기후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

나. 기후 리터러시 교육 체계 확립

1) 현행 제도와 연계된 영유아 기후 교육 방안 마련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현행 누리과정의 틀 안에서 영유아 기후 교육을 설계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⁵⁹⁾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영유아의 발달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후 교육 프로그램 목록화
- 지역 교육청의 환경교육 계획(생태전환 교육 계획 등) 중 유아의 발달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후 교육 프로그램 목록화
- 누리과정의 주제(‘안전하게 생활하기’(III. 신체운동·건강). ‘자연과 더불어 살기’(V. 자연탐구) 등에 알맞은 기후 교육 프로그램 선정
-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의 홍보 전략 마련(교사 연수 과정에 포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지원 기관을 통한 홍보 등)
- 개별 기관의 프로그램 활용도 증대를 위해 교재·교구 제작 및 배포(교육 꾸러미 등)
- 학부모 대상의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마련
- 사업에서 도출한 시사점, 개선점 등을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

2) 기후 리터러시 교육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율적,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영유아의 기후 리터러시 교육을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누리과정에 포함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9) 환경교육 플랫폼과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개별 교육·보육기관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관계 부처(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협의체 및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발달단계별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 기후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 도출

예시) 기후 리터러시 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적 개선 사항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에 따른 행정규칙 「유치원 교육과정」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2. 내용

내용 범주	내용
I. 신체운동·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사고, 화재,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V. 자연탐구 자연과 더불어 살기	날씨와 계절의 변화, 그리고 기후 환경 문제 를 생활과 관련 짓는다.

「환경교육법」 제10조의 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대상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확대 등

기존	개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과 「 유아교육법 」 제20조에 따른 유치원 원장·원감 은 학생과 원생 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 「유아교육법」 행정규칙 「유치원 교육과정」 및 「환경교육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국가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제도화 및 시행

영유아의 환경 감수성, 자기 효능감 제고를 중심으로 한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체계 확립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제도화 계획 수립
- 기후 리터러시 교육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범 사업 운영
- 기후 리터러시 교육 시행, 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다. 영유아 기후 교육 기반 강화

1) 지역 영유아 기후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의 영유아 기후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기후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영유아 기후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역의 영유아 기후 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 지역의 영유아 기후 교육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2) 지역 영유아 기후 교육 거점 마련

지역의 환경교육센터와 개별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을 연결하며, 일선에서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교육을 지원할 영유아 기후 교육 거점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영유아 기후 교육 현황(기관, 전문가, 예산 등) 분석 및 활용 가능 자원 목록화
- 지역 기후 교육 거점의 역할 규정 및 거점 마련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 도출
- 지역 영유아 기후 교육 거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례, 예산, 인력 등) 조성

3)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영유아 기후 교육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의 교사 연수, 지역 기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영유아 기후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환경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교육센터의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계획 수립
- 지자체 전문가 활용 계획 수립
- 수립된 계획에 따른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 교육

4) 영유아 중심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

현재 구축된 환경부의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과 교육부의 학교환경교육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포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영유아 환경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

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환경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관련 온라인 포털 및 플랫폼 분석 및 영유아 교육 관련 콘텐츠 및 정보 목록화
- 영유아 중심 환경교육 플랫폼 운영 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영유아 중심 환경교육 플랫폼의 주제, 내용, 형식 등의 플랫폼 틀 설계

5) 환경교육 플랫폼-지역 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

구축된 플랫폼의 운영 주체(지역의 영유아 기후교육 거점)와 환경부, 교육부, 지자체 등 환경 교육 플랫폼, 그리고 일선의 유치원·어린이집 사이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플랫폼 활용 경험, 의견 및 요구 사항 파악
-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연계 방안 마련
- 교육 콘텐츠 활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홍보 전략 마련
- 교육 콘텐츠 개발의 상향식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소통 창구 활성화

6)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선행 사업을 통해 구축된 환경교육 플랫폼-지역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과제를 통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 파악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발달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방향성, 수준, 형식 및 내용 확정
- 범부처 통합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7) 교사 교육 역량 강화 계획 수립

현재 교사가 자율로 이수하는 교사 환경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개선하여 교사의 기후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영유아 교사 대상 기후 교육 연수 프로그램 분석
- 기후 교육 연수의 한계점, 개선 사항 및 방향성 도출
- 영유아 교사의 기후 교육 제도화를 위한 교사 기후 교육 역량 강화 계획 수립

8) 체계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 마련

기존의 영유아 교사 기후 교육 역량 강화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와 범위 선정
-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평가지표 마련
- 단계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마련
- 마련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수정·보완
-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시행 방안 마련

9) 영유아 교사 기후 교육 제도화 전략 마련

영유아 교사의 연수 과정에 기후 교육을 의무화하여 내실 있는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교사 연수 프로그램 내에 기후 교육 추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정
- 영유아 교사 의무교육 과정에 기후 교육 추가
- 시범 사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교사 기후 교육의 효과 평가 및 교사 역량 강화의 효과 평가

4.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가. 현황 및 과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탄소중립 또는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 활동공간은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다수의 어린이 활동공간은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육아 교육·보육기관의 시설 및 운영 체계의 기후 친화적 개선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에 대하여 교사 등 교육 종사자와 학부모의 관심은 매우 높지만 개별 기관 단위에서 시설과 운영 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홍보 자료 등 방향성 제시가 부족하다.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후탄력적 시설과 기후탄력적 운영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여야 한다. 또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체험 공간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나.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 구축

1)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시설 지표 마련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 구축의 첫 단계로 기후탄력적 시설을 규정하는 지표의 도출과 이를 평가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령대를 고려한 영아와 유아의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시설의 핵심 요소 도출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시설의 목표 설정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시설의 평가지표 및 성과지표 선정

2) 영유아 활동공간 기후탄력성 제고 방안 마련

선행 사업에서 선정한 핵심 요소와 지표를 기반으로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시설 구축을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 및 담당 인력 확보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시설 구축의 주요 범위 및 내용 확정

- 지역의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및 순차적 계획 수립

3)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업 시행

선행 사업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영유아 활동공간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계획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 개선 사업 시행
- 진행·완료된 개선 사업의 평가 및 환류

4) 지역 기후 친화적 영유아 체험 공간 구축 계획 수립

지역에서 영유아가 친환경 놀이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기후 친화적 영유아 체험 공간의 목적, 범위, 공간 수, 참여 인력 및 예산을 포함한 체험 공간 구축 계획 수립
- 관련 조례의 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기후 친화적 영유아 체험 공간 구축을 위한 지자체 예산 및 담당 인력 확보
- 기후 친화적 영유아 체험 공간 구축의 우선순위 선정 및 순차적 계획 수립

5) 지역의 기후 친화적 영유아 체험 공간 구축

선행 사업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른 지역의 기후 친화적 영유아 체험 공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 친화적 영유아 체험 공간 구축 사업 시행
- 진행·완료된 사업의 평가 및 환류

다.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운영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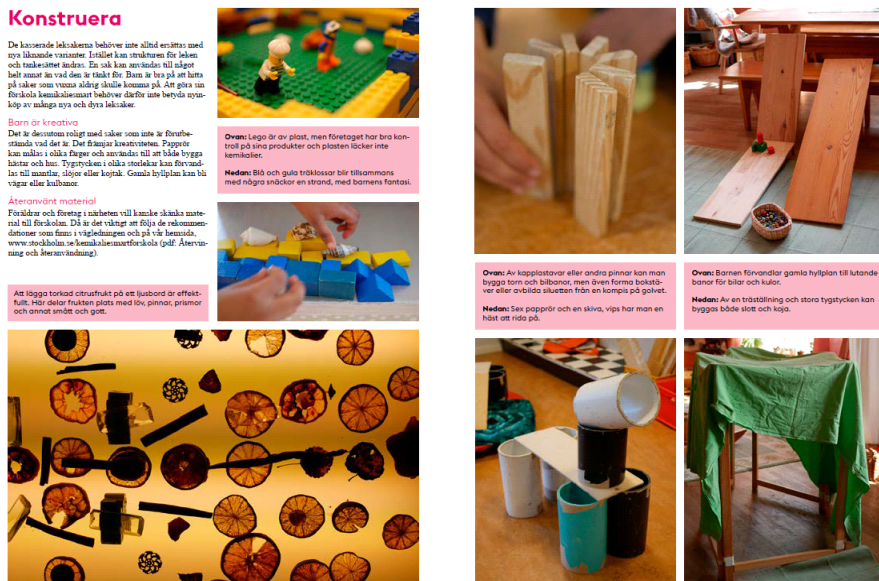
1)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지침 마련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체계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을 위한 주요 요소 파악
- 부문별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실천 방안 검토
- 영유아 활동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운영 지침 제안
-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예, 기후탄력적 생활 체크리스트, 탄소중립 체크리스트, 제로에너지 체크리스트, 자원순환 체크리스트 등) 제공

예시) 스웨덴 스톡홀름시의 영유아 보육 시설(förskola) 친환경 활동 가이드라인. 자연을 활용한 장난감 제작, 업사이클링 소품의 활용 등 기후탄력적 활동공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IV-3-2] 스톡홀름 보육 시설 친환경 가이드라인의 업사이클링 장난감 예시



자료: Stockholm Stadt(2017), Goda exempel för en Kemikaliesmart förskola, pp.14-15.

2)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지표 및 평가 방안 마련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체계를 제도화하기 전 단계에서 7R⁶⁰⁾ 실천, 교재·교구의 지역사회 순환 체계 기여 노력 등 기후탄력적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여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체계 제도화를 위한 선행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행 사업(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운영 지침 마련)의 성과를 검토하여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의 핵심 요소 도출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지침 중 평가 가능한 항목 검토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이행지표 및 성과지표 선정
- 선정된 평가 항목과 지표를 활용한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평가 시범 사업 진행

예시) 어린이집 기후위기 적응관련 평가지표 예시

평가지표	내용
1-2-4 바깥 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바깥 놀이 시간에 생태 친화적 놀이 포함
2-2-1 옥외 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옥외 놀이터는 기후탄력성을 고려하여 설치함
2-4-3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과 관련된 활동의 예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 포함
3-5-2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극한기후 및 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3)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체계 제도화

어린이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기후탄력적 운영 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적 운영 체계 제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 도출
- 관련법(「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유아교육법」 제19조 평가 등) 및 하위 법령의 제정·개정
- 관련 예산 확보 및 담당 인력 확보
-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60) 7R: recycle, refuse, reduce, reuse, repair, re-gift, recover.



결론



제1절

결론



1. 연구 요약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규정하였다. 어린이는 생물학적 요인 및 행동학적 차이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한 민감집단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취약 집단인 어린이, 특히 공교육 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그리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우선 국가의 계획은 대부분 어린이를 아의 노동자, 노인 등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전반적인 국가 정책의 방향에서 어린이(영유아)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 또 어린이 관련 기후위기 교육 대책은 대부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고, 취학연령 이하의 어린이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시도 단위의 대책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보다는 이미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등의 정책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에게 특화된 기후변화 대응책을 위한 신규 발굴 사업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국가 단위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 및 이행계획에서 영유아를 고려한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어린이를 정책의 우선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성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전략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의 취약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기후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기후 리터러시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기후시민 양성은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략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우선 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동시에 지역에서의 육아 교육·보육기관 지원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의 결과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로 기후 정책의 계획과 법에 영유아 부문 지원 명시, 국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영유아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된 기후 교육 제공, 부모 대상의 기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후 교육의 제도적 편입, 영유아 시설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치원·어린이집교사,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기관 실무자,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기후 환경 정책 및 환경교육 담당자, 유관 학회 대표, 그리고 지역 환경교육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워크숍과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여 영유아의 기후 적응 로드맵 마련을 위한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로드맵에 따른 전략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기후시민 교육 강화, 그리고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이며, 각 전략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선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2. 로드맵 이행을 위한 협력 체계

이 연구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굳건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에서 제안한 로드맵에 따른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있기에, 협력 체계에서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전략과 주체별 역할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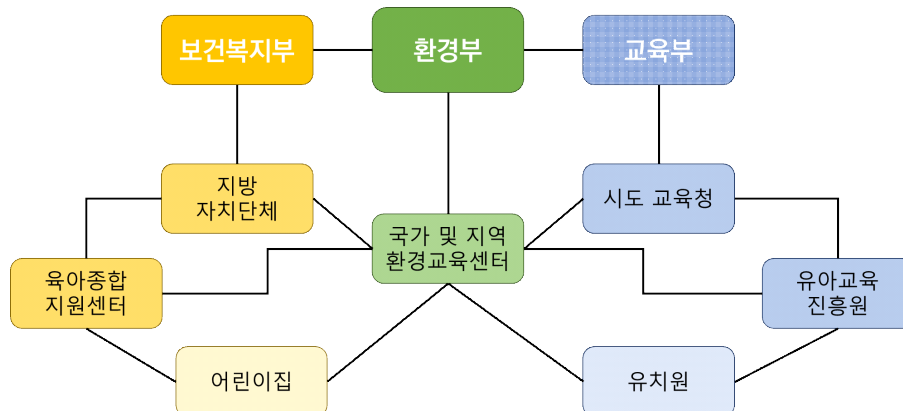
〈표 V-1-1〉 기후위기 적응정책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전략과 주체별 역할

이행전략 이행 주체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기후시민 교육 강화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어린이집· 유치원	- 기후위기 적응정책 영유아 주류화를 위한 상향식 의사 소통 활성화	- 적극적인 교사 교육,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기후시민 양성 참여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실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지역의 영유아 기후 적응 취약성 평가 - 지역 기후위원회 영유아 대표자 참여 제도화	- 기후시민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및 담당 인력 확보 - 영유아 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영유아를 위한 친환경 공간 확보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 및 담당 인력 확보

이행전략 이행 주체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기후시민 교육 강화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환경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 플랫폼의 영유아 교육 콘텐츠 강화 -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친환경 공간 운영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취약성 평가 틀 마련 -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기후 교육 계획 수립 - 영유아 기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 영유아 기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 -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부·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이행과제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환경교육 계획 수립 - 지역 영유아 기후 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사 역량 강화 - 교사 및 영유아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활동공간 평가 항목에 기후탄력성 포함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이행과제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활동공간 평가 항목에 기후탄력성 포함
한국 환경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교육원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탄력적 운영지표·시설 지표 개발 연구 사업 진행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1-1] 기후위기 적응정책 로드맵 이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3. 결론

이 연구는 영유아 분야에서 최초로 진행된 기후 정책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정책 현황 분석, 국내 이해관계자의 방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전략과 이행과제는 ‘모든 정책에 어린이 주류화(Children in All Policies)’라는 새롭게 대두되는 패러다임⁶¹⁾에 기반을 두며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라는 「환경보건법」의 기본이념⁶²⁾에 근거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전략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최근 어린이 대응 기후 금융(child-responsive climate finance)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 기후위기 전략을 위한 예산 확보는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영유아는 단순히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 미래세대인 영유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연구의 결과물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61) Dalglish et al(2021), pp.1065-1067.

62)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법」 제4조(기본이념).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원도(2017).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 경기도(2022).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22~2026」.
- 경상남도(2022). 「제3차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
- 경상북도(2022). 「제3차 경상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관계부처합동(2020).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p.2, p.46.
- 관계부처합동(2022).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세부시행계획」.
- 관계부처합동(2023a).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 관계부처합동(2023b).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p.51.
- 광주광역시(2022). 「제3차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기초지자체 대책목록(2022). 내부자료.
- 대구광역시(2022). 「제3차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대전광역시(2022). 「제3차 대전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박소영 외(2016). 국건영 자료를 이용한 국내 천식 유병률 및 발병률 현황. *Obstructive Lung Disease*. 4(1), p.29.
- 부산광역시(2022). 「제3차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문진영 외(2018).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p.28.
- 서용석. 201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p.14.
- 서울특별시(2017).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 계획(2017~2021)」.
- 세종특별자치시(2019).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안소은 외. 2021.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pp. 13-16.
- 울산광역시(2022). 「제3차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인천광역시(2021).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2~26)」.
- 전라남도(2022). 「제3차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전라북도(2021). 「제3차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정휘철 외(2022). 「중장기적 적응전략 마련을 위한 기후위험 및 적응 평가체계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pp.107-108.
-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주문술, 정다운 외(2021).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연구(III)」. 한국환경연구원.
- 충청남도(2022).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충청북도(2022). 「제3차 충청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환경부(20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국외 문헌]

- ARNEC. Save the Children, UNICEF EAPRO(2022). Most Vulnerable to Most Valuable: A Scoping Study to Put Young Children at the Hearth of Climate Action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ARNEC. Young Children & Climate Change. p.2.
- Berkowitz et al.(2001). “The Rational for a National Prospective Cohort Study of Environmental Exposure and Childhood Development”. *Environmental Research*. 85(2), pp.59-68.
- Christian Aid(2021). Counting the cost 2021, A year of climate breakdown.
- Cunha, F. and J. Heckman(2007). “The Technology of Skill 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7(2), pp.31-47.
- Currie, J. and O. Deschênes(2016). “Children and Climate Change: Introducing the Issue”. *Future of Children*. 26(1), pp.1-10.
- Dalglish, S., et al.(2021). “Children in All Policies 2030: a new initiative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WHO-UNICEF-Lancet Commission”. *The Lancet*, 397. pp.1065-1067.
- de Rosnay, M.(2022). “How do we empower children for their uncertain future?”. *3rd*

- Global Korea Forum*, 25th November, Seoul, National Research Council. pp.5-6.
- Kousky, C(2016).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Future of Children*. 26(1), pp.71-90.
- Landrigan et al.(2010).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Health of Children". *Mount Sinai Journal of Medicine*. 77(2), pp.178-187.
- Larr. A. and M. Neidell(2016).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Future of Children*. 26(1), pp.91-111.
- National Research Council(1993). *Pesticides in the Diets of Infants and Children*. pp.24-28, pp.38-39.
- Oppenheimer, M. and J. K. Anttila-Hughes(2016).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Future of Children*. 26(1), pp.11-30.
- Schoch, C. and Treichel, P(2015). Child-centred climate resilience: Case studies from the Philippines and Vietnam. Plan International and Save the Children.
- Stockholm Stadt(2017). Goda exempel för en Kemikaliesmart förskola. p.14-15
- Treichel, P.(2020). "Why focus on childrens: a literature review of child-centered climate change adaptation approaches".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35(2), p.27.
- Ulset et al.(2017). "Time spent outdoors during preschool: Links with children's cognitive and behavioral develop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pp.69-80.
- UNICEF(2021). The Climate Crisis is a Child Rights Crisis: Introducing the Children's Climate Risk Index. p.73.
- UNICEF(2022). Making Climate and Environment Policies for &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p.4.
- USGCRP(2009). Climate Literacy: the Essential Principles of Climate Science.
- USGCRP(2016).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Human Health in the United States: A Scientific Assessment. pp.255-257.
- US. EPA(2021). Climate Adaptation Action Plan.
- Vergunst, F and Berry, H.L.(2022). "Climate change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

developmental prospectiv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10(4), p.77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2008). *Children’s Health and the Environment*. WHO Training Package for the Health Sector.

Zivin, J. G. and J. Shrader(2016). “Temperature Extremes, Health, and Human Capital,”. *Future of Children*. 26(1), pp.31-50.

[온라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 2023. 8. 16.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환경보건법>. 2023. 8. 16. 인출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https://www.keep.go.kr/>. 2023. 5. 13. 인출

기후위기적응 정보 포털. “기후위기 이해”.

<https://www.ccaipath.kaccc.kei.re.kr/understanding>. 2023. 7. 31. 인출

산림청. “우리나라의 대형산불”.

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2_01_03_03&cmsId=FC_001157. 2023. 7. 4. 인출

질병관리청. “기후변화”.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8040101>, 2023. 7.

31. 인출

BBC News 코리아. “홍수, 가뭄, 폭염... 기상 이변의 원인은 기후 변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m1rk0yejxo>. 2023. 7. 18. 인출

Cambridge Dictionary. “mainstreaming”.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mainstreaming>. 2023. 8. 15. 인출

Climate.gov. “What is climate science literacy”.

<https://www.climate.gov/teaching/what-is-climate-science-literacy>. 2023. 5. 15.

인출

Climate Lit. “Climate Lit Video Library”. <https://www.climatelit.org/videos>. 2023. 7. 16.

인출

EU. 2021. Climate-ADAPT.

<https://climate-adapt.eea.europa.eu/en/eu-adaptation-policy/strategy>. 2023. 3.

6. 인출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Hedegaard, C., Mysiak, J., Lera St. Clair, A., et al.. A climate resilient Europe : prepare Europe for climate disruptions and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 to a climate resilient and just Europe by 2030. Publications Office. 2020.

<https://data.europa.eu/doi/10.2777/69766>

The Guardian. “Why the Guardian is changing the language it uses about the environment”.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may/17/why-the-guardian-is-changing-the-language-it-uses-about-the-environment>. 2023. 7. 31. 인출

Hodges(2019). “Are outdoor preschools changing U.S. education?”.

<https://www.rei.com/blog/news/are-outdoor-preschools-the-wave-of-the-future>. 2023. 8. 12. 인출

Reuters(2023). “One in Five UK children report nightmares about climate change”.

<https://www.reuters.com/article/climate-change-children-idUSL1N2AV1FF>. 2023. 5. 7. 인출

UK Department of Education(2022).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 Strategy for the Education and Children’s Services System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stainability-and-climate-change-strategy/sustainability-and-climate-change-a-strategy-for-the-education-and-childrens-services-systems>. 2023. 5. 13. 인출

UNICEF(2019a). Declaration on Children, Youth and Climate Action.

<https://www.unicef.org/environment-and-climate-change/climate-declaration>. 2022. 10. 13. 인출

UNICEF(2019b). Declaration on Children, Youth and Climate Action-Supporting Guidance.

<https://www.unicef.org/documents/declaration-children-youth-and-climate-action-supporting-documents>. 2022. 10. 13. 인출

U.S. Climate Resilience Tool Kit. <https://toolkit.climate.gov/content/glossary>. 2023. 8.

5. 인출

부록



부록1.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한국환경연구원과의 협동연구로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평소 기후변화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과 가정에서의 양육 실제 및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육아정책연구소장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기후변화 연구진(02-398-7793)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명 수를 기입해 주세요.

1. 자녀 있음 → ()명
2. 자녀 없음 → 조사 중단

SQ3. 귀하의 자녀의 출생년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출생연도
첫째 자녀	()년
둘째 자녀	()년

자녀	출생연도
셋째 자녀	()년
넷째 자녀	()년

SQ4.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SQ4-1.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을 기입해 주세요.

SQ5. 현재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영어유치원, 유아체능단 등 반일제 이상 기관 포함)은 무엇입니까? 미취학 자녀 각각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유치원, 유아체 능단 등)	기관 미이용
	1(→SQ6-1)	2(→SQ7-1)	3	4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SQ6-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국공립
2. 민간
3. 가정
4. 직장
5. 사회복지법인
6. 기타()

SQ7-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설립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공립단설
2. 공립병설
3. 사립법인
4. 사립사인

I. 기후변화 인식

문1. 귀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관심 있습니까?

1. 매우 관심이 있다
2. 관심이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관심이 없는 편이다
5. 전혀 관심이 없다

문2. 귀하는 기후변화의 여러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아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모르는 편이다
5. 전혀 모른다

문3. 귀하는 기후변화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아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모르는 편이다
5. 전혀 모른다

문4. 귀하께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1.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2. 별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상당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심각하다
2. 심각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6. 귀하께 기후변화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7. 기후 변화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1. 온실가스 증가 등 공기 질 악화
2.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지형 변화
3. 개화 시기 변화나 재배곡물/과일 변화
4. 동식물 멸종 등 생물다양성 감소
5. 신종감염병 증가
6. 기타()

문8. 귀하께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자녀세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2. 다소 피해를 입을 것이다
3. 보통
4.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5.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문9. 기후변화로 인해 귀하의 자녀를 비롯한 미래세대가 향후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문10. 귀하의 가구는 최근 3년 동안 기후변화(더위, 한파, 홍수, 가뭄, 화재, 미세먼지 등)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문11
2. 없다 →문12

	매우 심각함	심각함	보통임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해당없음
	1	2	3	4	5	9
1. 더위 (이상 고온)						
2. 한파 (이상 저온, 냉해 등)						
3. 홍수						
4. 가뭄						
5. 화재						
6. 미세먼지						
7. 기타						

()

1. 매우 안전하다
2. 안전한 편이다

3. 보통
- 4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문1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문항을 읽고 표시해주십시오.

	예	아니오
	1	2
1. 냉방기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2. 난방기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3. 천장에서 물이 샌다		
4. 바닥이나 벽이 축축하다(습기가 많다)		
5. 집이 어둡다		

문14. 귀하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1. 매우 좋음
2. 좋은 편임
3. 보통임
4. 나쁜 편임
5. 매우 나쁨

문14-1. 기후변화가 자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보통
4. 약간 영향을 미침 → 문14-2
5. 매우 영향을 미침 → 문14-2

문14-2. 다음 항목 중 기후변화로 인해 나빠진 영유아 자녀의 건강은 무엇입니까? (1가지 선택) ※ 여러 증상을 겪고 있거나, 자녀별로 증상이 다른 경우 가장 심각한 증상을 선택해 주십시오.

1. 호흡기 질환
2. 피부 질환

3. 소화기 질환
4. 신체운동 장애
5. 기타 ()

Ⅲ.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역량, 지식

문15. 다음 진술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5개) 중에서 골라주세요.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2.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3.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5.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 까봐 걱정스럽다					
6.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7.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					
8.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9.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문16. 귀하께서는 환경을 위해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비용을 아끼거나 개인적인 선호 때문이 아닌 환경을 보전하거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온도(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2. 방에서 나갈 때 전기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					
3. 물건을 살 때 친환경마크(저탄소 제품, 친환경 인증 등)가 표기된 제품을 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매한다					
4. 과대 포장인 된 제품은 사지 않는다					
5.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6. 텀블러나 장바구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을 가지고 다닌다					
7.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 받는다					
8. 산이나 공원 등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문17. 다음 진술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5개) 중에서 골라주세요.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2. 나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와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예를 들어, 일회용품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에너지 절약 등)					
3. 나는 평소 자녀에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					
4.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5. 자녀는 기후변화(환경 파괴 등)에 대해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다					

문18. 귀하의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활동한 적이 있다면, 자녀와 함께 활동하였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의 활동 여부		(부모활동 있을 시 응답) 자녀와 함께 활동 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2	1	2
1. 기후변화 관련 체험학습(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등)				
2. 기후변화 관련 봉사활동				
3. 기후변화 관련 가족 간 의사소통				
4.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유튜브, SNS 등)				
5. 기후변화 관련 책 독서				

Ⅳ.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문19. 귀하는 국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문19-1
2. 다소 그렇다 →문19-1
3. 보통 →문19-1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19-1. 어떤 형태의 기후변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골라 주십시오.

1. 지식전달 교육
2. 일상생활 속 체험활동
3. 놀이 활동
4.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5. 영상매체 활용(유튜브 등)
6. 기타()

문20.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귀하의 미취학 자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혹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문20-1
2. 없다
3. 모른다

문20-1.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지식전달 교육
2. 체험활동
3. 놀이 활동

4.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5. 영상 매체 활용(유튜브 등)
6. 기타()

문20-2. 전반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하였다
2. 만족하였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았다 →문20-3
5.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문20-3

문20-3.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나치게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었다
2. 기후변화(또는 환경보호)와 관련이 없어 보였다
3. 영유아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었다
4. 재미와 흥미가 없어 보였다
5. 기타()

문21.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환경보호와 관련된 자료 또는 안내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문21-1
2. 없다

문21-1. 관련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거나 안내에 따라 활동하신 적 있습니까?

1. 함께 읽어보고 설명에 따라 행동하였음
2. 자녀에게 읽어 주기만 하였음
3. 본인(부모)만 읽고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았음
4. 읽어보지 않았음

문22. 거주하시는 지역에 유치원/어린이집 이외에 기후변화(또는 자연보호)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 →문22-1

없다

잘 모르겠다

문22-1. 거주하시는 지역에 기후변화(또는 자연보호)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1. (문화)복지센터
2. 지역환경교육센터
3. 기후변화홍보관(센터 등)
4. 환경교육 단체
5. 기타()

문23. 귀하께서는 기후변화 두 축인 '적응'과 '완화' 중 정부가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2001)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을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적응: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
(예): 놀이터 그늘막 설치로 폭염피해 예방, 미세먼지 높은 날 야외활동 자제, 폭염·한파 조기경보 등 관련 정보제공 국민행동요령 및 캠페인 확대,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확대, 기후변화 교육·홍보 강화
- 완화: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하거나 차단하는 노력
(예): 산업 구조 변화, 탄소중립 실현 등

1. 적응 →문23-1

2. 완화 →문23-2

문23-1. 적응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2.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3.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노력이 적을 것 같아서
4.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
5. 완화정책과 관련된 기술(예, 탄소저감 기술 등)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6. 기타()

문23-2. 완화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
2.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3.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4.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5. 기타()

문24. 귀하께서는 아동 대상으로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문24-1
2. 아니요 →문24-2

문24-1. 바람직하다면, 아동 대상으로 적절한 적응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아동 대상 기후변화교육
2. 부모 대상 기후변화교육
3.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시설 교체, 실내 놀이터 확충)
4.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
5. 주거취약계층 아동 대상 주거 지원 강화

문25. 다음 각 주체들의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	2	3	4	5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3. 시도교육청					
4. 기업					
5. 시민단체(환경단체)					
6. 일반국민					

문26.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부처 →문27
2.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배문1
3. 시민단체(환경단체) →배문1
4. 유치원과 어린이집 →배문1
5. 가정 →배문1
6. 기타() →배문1

문27. 그렇다면, 중앙부처 중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환경부
2. 교육부
3. 보건복지부
4. 기타()

V. 배경질문

배문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만()세

배문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이하
2. 대졸(3년제 이하)
3. 대졸(4년제)
4. 대학원 이상

배문3. 귀하의 취업 상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취업 (취업과 학업 병행 시 취업으로 선택)
2. 휴직
3. 학업
4. 구직중
5. 미취업

배문3-1. 귀하의 직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종사 업종	① 관리자	업무의 80% 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	-------	--

분야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그래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③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⑤ 판매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⑩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⑪ 전업주부	

배문4. 귀하의 배우자의 취업 상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취업 (취업과 학업 병행 시 취업으로 선택)
2. 휴직
3. 학업
4. 구직중
5. 미취업
6. 해당사항 없음(배우자 없음 등)

배문5.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세 전) 얼마입니까?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공적 이전 소득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200만원 미만
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7. 700만원 이상

부록2.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및 실태조사(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한국환경연구원과의 협동연구로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평소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 교육과 활동 실태,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개별기관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육아정책연구소장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기후변화 연구진(02-398-7793)

1. 기관 기본 정보 및 현황

배문1-1. (유치원) 귀 유치원의 설립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공립단설 ② 공립병설 ③ 사립법인 ④ 사립개인

배문1-2. (어린이집) 귀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공립 ② 민간 ③ 가정 ④ 사회복지법인 ⑤ 법인단체 ⑥ 직장

배문2. 귀 기관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또한 해당 지역규모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구분	응답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지역 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배문3-1. (유치원) 귀 기관의 기본 정보를 적어 주십시오.

구분		현황
1. 영유아 수	정원 () 명	현원 () 명
2. 학급 수	일반 3세	학급

구분			현황
	학급	4세	학급
		5세	학급
		혼합연령	학급
	특수통합학급(장애)		학급
3. 교직원 수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	원장		명
	원감(자격 소지)		명
	교육과정 교사		명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명
	기타 인력		명

배문3-2. (어린이집) 귀 기관의 기본 정보를 적어 주십시오.

구분			현황
1. 영유아 수	정원 () 명		현원 () 명
2. 학급 수	일반 학급	0세	학급
		1세	학급
		2세	학급
		3세	학급
		4세	학급
		5세	학급
		혼합연령	학급
	특수통합학급(장애)		학급
3. 교직원 수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	원장		명
	담임교사		명
	비담임교사		명
	연장반 전담교사		명
	영아반 보조교사		명
	누리과정 보조교사		명
	야간연장 보육교사		명
	야간 12시간 보육교사		명
	24시간보육 교사		명
	시간제보육 교사		명

배4-1. (유치원) 귀하가 담당하는 학급은 몇 세반이며, 몇 명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3세 (____명) ② 4세 (____명) ③ 5세 (____명)
 ④ 혼합연령반 (____명)

배문4-2. (어린이집) 귀하가 담당하는 학급은 몇 세반이며, 몇 명의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0세 (____명) ② 1세 (____명) ③ 2세 (____명) ④ 3세 (____명)
 ⑤ 4세 (____명) ⑥ 5세 (____명) ⑦ 혼합연령 (____명)

배문5. 귀하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경력을 적어주십시오. 총 ____년 ____개월

II.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문1. 귀하는 기후 변화 문제에 얼마나 관심 있습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문2. 귀하는 여러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 ④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문3. 귀하는 여러 기후변화의 해결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 ④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문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문5. 귀하께 기후변화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6. 기후변화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 ① 온실가스 증가 등 공기 질 악화
 ②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지형 변화

- ③ 개화 시기 변화나 재배곡물/과일 변화
- ④ 동식물 멸종 등 생물다양성 감소
- ⑤ 신종감염병 증가
- ⑥ 기타()

문7. 귀하께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자녀세대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②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③ 보통
- ④ 다소 피해를 입을 것이다. ⑤ 매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문8. 기후변화로 인해 귀하의 자녀를 비롯한 미래세대가 향후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 ① 건강 ② 교육 ③ 고용 및 경제활동 ④ 주거 ⑤ 문화활동 ⑥ 기타

문9. 귀하께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①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② 별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상당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지식, 실천역량

문10. 다음 진술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5개) 중에서 골라주세요.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2.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3.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5.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럽다					
6.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7.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					
8.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9.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10.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실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문11. 귀하께서는 환경을 위해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비용을 아끼거나 개인적인 선호때문이 아닌 환경을 보전하거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응답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온도(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2. 방에서 나갈 때 전기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					
3. 물건을 살 때 친환경마크(저탄소 제품, 친환경 인증 등)가 표기된 제품을 구매한다.					
4. 과대 포장인 제품은 사지 않는다.					
5.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6. 텀블러나 장바구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을 가지고 다닌다.					
7.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 받는다.					
8. 산이나 공원 등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9. 고기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와 고기를 균형있게 섭취한다.					
10.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쓴다.					
11. 분리수거가 되는 품목을 잘 알고 철저히 분리수거한다.					
12. 가능한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먹지 않는다.					

IV. 기후변화교육 관련 연수 경험

문12. 귀하는 기후변화교육에 관심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3. 귀하는 최근 5년간 기후변화교육과 관련한 연수를 이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13-1) ② 없다. (→문14)

문13-1. 기후변화 연수 관련하여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응답)

구 분	
1. 연수기관	① 시도교육청(본청) ② 지역교육지원청 ③ 유아교육진흥원 ④ 교육연수원 ⑤ 학회 ⑥ 기타(적어주세요:)
2. 연수방식	① 집합교육 ② 온라인교육 ③ 집합+ 온라인 병행
3. 연수유형	① 자격연수 시 과목으로 포함되어 이수 ② 직무연수 ③ 기타(적어주세요:)
4. 연수 횟수 및 시간	총 _____ 회, 총 _____ 시간
5. 연수주제/내용 (모두 선택)	① 기후변화의 문제점과 기후변화교육의 필요성/중요성 ② 기후변화교육 이론 ③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④ 기후변화교육 평가 ⑤ 기타 (적어주세요:)

문14. 귀하는 기후변화교육과 관련한 주제를 스스로 알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14-1) ② 없다.

문14-1. 있는 경우, 어떠한 채널을 통하여 스스로 알아보셨습니까?

- ①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유튜브 시청 등) ② 도서 탐독 ③ 체험관 견학
④ 웹(온라인) 자료(인터넷 검색)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V. 유치원/어린이집의 기후변화교육 실태

문15. 귀하는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문16. 귀하는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6-1.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향후 교육방안 지표)

- ①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②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③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④ 현재와 미래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6-2. (영)유아 기후환경변화교육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용이 (영)유아 발달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
 ②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
 ③ 가정에서의 교육이 (영)유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④ 기후변화교육보다는 다른 교육내용에 더 충실해야하기 때문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6-3. 어떤 형태로 기후변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골라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지식전달 교육 ② 일상생활 속 체험활동 ③ 놀이 활동
 ④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⑤ 영상매체 활용(유튜브 등)
 ⑥ 기타(적어주세요:)

문17.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시 어느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향후 교육내용 지표)

- ① 기후변화 현상과 원리 ② 기후변화 원인 ③ 기후 변화 영향
④ 기후변화 적응 ⑤ 기후변화 완화(감축)

문18. 귀하는 기후변화교육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다큐멘터리 시청 ② 과학관, 센터 등 기관 방문
③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행사 운영(지구촌 전등 끄기 기념일 등), 캠페인 등
④ 놀이활동 ⑤ 기타(적어주세요:)

문19. 다음 진술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5개) 중에서 골라주세요.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 작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평소 (영)유아들과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2. 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들과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예를 들어, 일회용품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에너지 절약 등).					
3. 나는 평소 (영)유아들에게 환경친화적인 환경이나 활동을 제공한다.					
4. (영)유아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5. (영)유아들이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VI. 교육과정과의 연계

문20.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1. 개정 누리과정의 어떤 영역과 기후변화교육이 가장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신체운동건강 ② 의사소통 ③ 사회관계 ④ 예술경험 ⑤ 자연탐구
⑥ 모든 영역과 유사한 비중으로 연계성이 높음

문22.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의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유-초-중-고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연계
- ② 체험활동 중심의 기후변화교육
- ③ 놀이 중심의 기후변화교육
- ④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의 기후변화교육
- ⑤ 개정 누리과정과 기후변화교육의 연계
- ⑥ 기후변화 이론에 대한 지식전달 교육

문23. (영)유아 기후환경변화교육의 교육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후변화의 현상, 원인, 대응 이해
- ② 기후변화 대응방법을 익히고 기후문제 해결과정에 참여
- ③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형성
- ④ 기후변화 대응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문24.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의 교육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연간 교육계획으로 수립하여 실시
- ②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
- ③ 프로젝트 등의 특정 활동주제로 집중적으로 실시
- ④ 외부강사와 협력하여 특별활동으로 실시
- ⑤ 하루일과 중 기후변화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상시로 실시
- ⑥ 자유놀이시간을 활용한 교육활동으로 실시

문25.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의 평가내용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중요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 ② 탄소중립의 지속적 실천
- ③ 환경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 ④ 환경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VII. 기후변화교육 관련 지원 요구

문26. 유아교육기관에서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불안감 및 공포 조성 문제
- ② 교사 자신의 지식 및 기술부족
- ③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화 부여 문제
- ④ 워크숍 또는 폭 넓은 연수기회 부족
- ⑤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 ⑥ 연수 안내에 대한 정보 부족(연수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없거나 찾기 어려워서)
- ⑦ 교수학습자료 및 자원 부족
- ⑧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27. 유치원에서의 기후변화교육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의 운영
- ② 다양한 체험터 발굴 및 공유
- ③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방법
- ④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
- ⑤ 관련 교육자료(교구)의 보완

문28. 효과적인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영)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② 교사를 위한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제공
- ③ 지역사회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④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후변화교육 연수자료 개발·보급
- ⑤ 체계적인 이론의 제시와 명료화

문29. 귀하는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관련 연수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문29-1) ② 없다(→문29-3)

문29-1.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관련 연수를 받는다면 어떤 연수내용을 가장 희망하십니까?

- ①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기초이론
- ②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관련 교재교구의 제작 및 활용방법에 관한 워크숍
- ③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에 관한 성공적인 실천 사례 및 현장적용 연수
- ④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 견학

문29-2. 다음 중 귀하가 선호하는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연수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단위유치원에서 교사 단체연수 ② 온라인 연수
- ③ 워크숍 형식의 연수 ④ 체험관 등 관련기관 방문연수
- ⑤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29-3.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관련 연수를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연수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② 활용할 기존 자료가 충분하므로
- ③ 연수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④ 연수방식이 적합하지 않아서
- ⑤ 주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30. 귀하께서는 기후변화 두 축인 '적응'과 '완화' 중 정부가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2001)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을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로 정의하고 있습니다.</p> <p>■ 적응: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u>자연·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u></p> <p>(예): 놀이터 그늘막 설치로 폭염피해 예방, 미세먼지 높은 날 야외활동 자제, 폭염·한파 조기경보 등 관련 정보제공 국민행동요령 및 캠페인 확대,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확대, 기후변화 교육·홍보 강화</p> <p>■ 완화: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하거나 차단하는 노력</p> <p>(예): 산업 구조 변화, 탄소중립 실현 등</p>
--

- ① 적응 →문30-1 ② 완화 →문30-2

문30-1. 적응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 ② 완화 정책보다 적응정책이 경제적 비용의 소모가 적을 것 같아서
- ③ 적응 정책에 들어가는 노력이 완화보다 적을 것 같아서
- ④ 완화 정책보다 적응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
- ⑤ 완화 정책과 관련된 기술(예, 탄소저감 기술 등)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 ⑥ 기타

문30-2. 완화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해결이라고 생각해서
- ②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③ 적응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 ④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 ⑤ 기타

문31. 귀하께서는 (영)유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문31-1 ② 아니오 →문32

문31-1. 바람직하다면, (영)유아 대상으로 적절한 적응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 2순위__

- ① (영)유아 대상 관련 교육
- ② 부모 대상 관련 교육
- ③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시설 교체, 실내 놀이터 확충)
- ④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⑤ 주거취약계층 (영)유아 대상 주거 지원 강화

문32. 다음 각 주체들의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항	매우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	2	3	4	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문항	매우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	2	3	4	5
기업					
시민단체(환경단체)					
일반국민					

문33.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합한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부처 (☐ 환경부,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여타 부처: 적어주세요_____)
- ②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③ 시민단체(환경단체) ④ 유치원과 어린이집
- ⑤ 가정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부록3. 면담질문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방안 연구]	
연구의 취지 및 목적	
<p>○ 최근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에 기후위기 취약 집단에 어린이를 포함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련 정책을 추가함(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어린이 대상 정보제공 강화 등).</p> <p>- 그간의 어린이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실체는 주로 환경교육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기후변화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p> <p>○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취약 집단인 영유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수립을 위하여 주요관계자 및 유관기관의 관련 사업/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요구를 분석하고자 함.</p>	
구분	질문 및 의견란
기후변화 관련 사업현황과 추진 배경	Q1-1. 귀 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또는 최근 추진했던) 기후변화 관련 사업/활동은 무엇입니까?
	1) 대상 2) 구체적 사업/활동 내용 3) 예산 규모 (연간?, 기관당?) 4) 기간 (언제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가?) 5) 프로그램/ 자료의 개발은 누가 했는가? (대학에 위탁, 기존 프로그램 활용, 자체 개발 등) 6) 향후 계획 및 기타
	Q1-2.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사업/활동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Q1-3.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사업/활동의 목표(치)는 무엇입니까?
기후변화 관련 성공적 활동과 어려운 점	Q2-1. 위의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성공적/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2-2.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사업/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예) 연수의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정보 부족, 활동방법 부족, 법/규정 문제 등

구분	질문 및 의견란
정책적 제안 및 지원 요구	Q3-1.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선적인 주제 또는 영역 2) 우선과제 (예: 교사교육,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지침/매뉴얼 개발 등) *기후변화 관련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Q3-1.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바라는 지원사항은 무엇입니까?
	1) 중앙부처 2) 지자체/시도교육청 등
기타	<p>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관련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보수교육 제공 현황 및 개선 요망 사항 등 - 놀이중심 누리과정과 기후변화교육 자료의 연계 - 부모교육 제공 현황 및 개선 사항

협동연구총서 23-42-01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발행 2023년 10월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
ISBN 979-11-5567-669-1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Climate Adaptation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the Future Gener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9 791159 676697
ISBN 979-11-5567-669-1

비매출/무료

93330